운명의 선택 4

장수봉, 류원규

평 양 출 판 사
주체104(2015)년

◎ 차 례 ◎

1. 인정의 바다에 안겨

(작가 오영재)……………………………………3

2. 어버이의 품속에서 화술계의 재사로

(영화배우 박섭)………………………………67

3. 무대와 함께 영생하는 삶

(연극 및 영화배우 태을민)………………103

4. 붓대와 신념

(작가 리용악)…………………………………165

5. 한 화가의 생을 더듬어

(미술가 배운성)……………………………209

1. 인정의 바다에 안겨

오 영 재(작가)

- 1935년 11월 17일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출생.
- 1950년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으로 입대.
- 1958년 4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직속 작가학원(당시)에 입학.
- 1960년 4월 조선예술사(당시) 기자로 활동.
- 1965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현역작가로 활동.
- 2011년 10월 23일 사망.
-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
메마른 가시밭을 울고울며 네 왔느냐
거친 길 에돌면서 외로웁던 시내물아
불행에 감겨 찢겨진 몸을 시름놓고 맡긴 곳은
아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

누구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 가사는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 사랑의 바다에 안긴 작가 오영재가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화폭을 통해 절절히 노래한 한생의 총화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이 한생을 산다는것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것과 같다.

그 길에는 넓고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 가시덤불이 웅크리고있는 어두운 오솔길도 있고 한발만 잘못 내짚어도 온몸을 삼켜버리는 수렁과 위험한 낭떠러지도 있다.

인생길을 헛들세라 걸음걸음 손잡아주고 지쳐서 쓰러지면 힘을 더해주는 자애로운 은인을 만날 때 그 삶은 더없이 행복해지는것이다.

그런 행복자들중에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인 작가 오영재도 있다.

씨앗

한여름내 푸르싱싱하던 나무잎사귀들이 별안간 불어치는 썰렁한 바람에 움츠러들던 1950년 마가을이였다.

설악산릉선을 타고 북쪽을 향하여 씩씩하게 행군하는 인민군대렬에서 두 전사가 떨어져나왔다.

《왜 그래요?》

이제 겨우 열대여섯살쯤 되였을, 코밑에 솜털이 보시시한 전사가 의아해하며 묻는 말이였다.

그 전사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크고 나이도 두세살 우인 동료가 얼른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어린 전사는 그를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그동안에 대오는 산굽이너머로 사라졌다.

《이러다 대오에서 떨어지면 어쩔려구 그래요?》

동료는 어이없이 웃었다.

《너 정말 북으로 가자는거야?》

어린 전사가 놀란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자 동료는 고개를 슬며시 돌려 뒤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잘 생각해봐. 북에 가면 누가 있어?》

《…》

《그러지 말구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조용히 살자. 아무렴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온 우릴 죽이기야 하겠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어린 전사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앞서간 대오를 따라 북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고향사람의 말대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생이였던 그가 자신의 한생을 결정할 운명적인 선택을 한순간에 한다는것은 무리일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들의 뒤에 한개 소대가량의 인민군군인들이 나타났다.

대오앞에서 씩씩하게 걸어오던 군관이 왜 여기서 우물거리는가고 물었다.

속이 찔끔해난 두 전사는 서로 마주볼뿐 대답을 못하였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군관은 대오에 휴식구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고향은 어디며 언제 입대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고향은 전라남도이고 한달전 의용군에 입대하였

다는것과 인민군대가 후퇴하니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대답을 듣고난 군관은 숨을 거칠게 내쉬였다.

락오자들은 그 기상에 눌리워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후퇴하는 대렬에서 리탈한 군인에게 어떤 결과가 차례진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던것이다.

근엄한 눈길로 그들을 굽어보던 군관은 입을 열었다.

… 동무들은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니까 마음이 흔들린것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최고사령부로 간다. 최고사령부는 곧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장군님은 하늘이 내신 태양이다. 그래, 태양이 꺼지는것을 보았는가.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후퇴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

어린 전사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아, **김일성**장군님!)

눈앞에 난생처음으로 땅을 분여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고향사람들의 모습이며 미군에게 병영으로 빼앗겼던 교실을 되찾아준 인민군대의 손을 부여잡고 울고웃던 학급동무들의 얼굴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그 행복을 안겨주신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죽지 못해 살아오던 우리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분이 어느분이신가? **김일성**장군님이시다. 그렇다.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고향으로 떳떳이 돌아갈것이다!)

그는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군관동지, 전 북으로 가겠습니다.》

고향청년이 슬그머니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잘 생각해봐.》

어린 전사는 결연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를 지그시 노려보던 고향청년은 이새로 말을 내뱉았다.

《좋다. 후회하지 말아.》

그 말은 움직이기 시작한 대렬을 따라 급히 달려가는 전사의 뒤잔등에 부딪치고 맥없이 미끄러져내렸다.

이렇게 되여 한고향에서 나서자라고 방금전까지 형님동생하며 지내온 두 친구는 기약할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헤여지고말았다.

대오는 빨리도 전진하였다.

어린 전사는 턱을 타고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훔칠념도 못하고 정신없이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질가봐 겁이 나 어쩔줄 몰라하는 어린 자식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던 그는 산등성이를 올라서다가 넘어질듯 비칠거렸다.

제 키보다 큰 보총이 발뒤꿈치를 쳤던것이다.

제꺽 몸균형을 바로잡은 그는 총부혁을 꽉 당겨잡고 냅다 뛰여갔다.

대오의 맨뒤에서 필사적으로 걷고있는 어린 전사, 때없이 땅에 끌리는 총을 추슬러올리며 행군하고있는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오영재였다.

오영재는 1935년 11월 전라남도 장성군의 청빈한 교원가정에서 7남매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당시 일제는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고 전대미문의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었다.

불우한 식민지노예의 아들로 태여난 오영재는 하얀 명주처럼 깨끗한 가슴속에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아프게 새기며 성장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소룡리 국민학교 교원이였다.

아버지는 둘째아들을 자기가 교편을 잡고있는 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여 교실에서는 담임교원인 아버지가 제자인 아들을 가르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어릴적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영민했던 오영재는 학교적으로 실력이 단연 뛰여난 학생이였다.

산수면 산수, 창가면 창가 지어 체육시간에도 그만큼 뜀뛰기를 잘하고 체조를 맵시나게 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야말로 군계일학과도 같은 존재로 알려졌다.

그에 대하여 한 교원이 동료들앞에서 《오영재는 중학교에 진급시켜도 무방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자주 움켜쥐고 휘두르는 주먹이 그자신에 대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신망을 모래성처럼 허물군 하였다.

남달리 정의감이 강한 오영재는 가난한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부자집자식들과 쩍하면 싸웠다.

철부지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승자와 패자가 있기마련이다.

오영재는 상대의 키가 크든 몸집이 우람차든 관계없었다. 일단 붙으면 맹수처럼 싸웠고 이길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한번은 그한테서 구원을 받은 친구가 넌 어떻게 매번 이기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오영재는 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내쏘았다.

《그 자식들은 왜놈과 한편이야. 그래서 난 반드시 이겨야 하는거야.》

하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오영재때문에 난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였다.

학부형들은 이틀이 멀다하게 찾아왔다.

어제는 비단치마자락을 걸친 부자집녀편네가 달려와 행악질하고 오늘은 개화장을 든 면장이 와서 벅적 고아댔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르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영재는 약한 아이가 얻어맞는것을 보면 아버지의 그 훈계를 감감 잊군 하였다.

어느날 누군가가 또 집에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가버리자 아버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서 매를 맞은 오영재는 뗑해서 있다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렸다.

《그 자식이 가난한 아이들을 때리는데 가만있으라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다른쪽 뺨에서 철썩하는 소리가 났다.

씩씩거리던 오영재는 분을 참지 못한채 밖으로 왁 뛰쳐나갔다.

집뒤로 돌아간 그는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우에서 쟁반같은 보름달이 담장을 따라 심은 탱자나무들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가지마다 어른손가락만 한 가시들이 어긋어긋 박혀있는 그 나무—침략자들을 성벽에 기여오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전설을 안고있는 탱자나무가 이밤의 수난자를 가엾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별안간 어둠을 타고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쩡쩡 들려

왔다.

《밥은 무슨 밥. 기운이 뻗쳐서 애비망신이나 시키라구?》

리해할수 없었다.

수업시간마다 아버지는 동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착한 학생이 되라고 얼마나 가르쳤는가. 그래, 가난하고 약한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부자집자식들을 쥐여박은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가까운 곳에서 귀에 익은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오영재는 보지 않고도 어머니라는것을 알았다.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나타난 어머니는 치마폭에 감춰가지고 온 밥그릇을 조심히 꺼내놓았다.

오영재는 옆으로 삑 돌아앉았다.

별안간 설음이 북받쳐오른것이다.

《씨, 아버진…》

《아서라.》

수저를 쥐여주며 달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히 오르내리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휘감았다.

《그건 다 네가 잘되라고 그러시는거란다. 자, 어서 먹어라.》

그처럼 살뜰한 어머니앞에서 아들의 울분은 물에 풀린 소금처럼 녹아버리고말았다.

오영재는 달빛처럼 유정한 웃음을 담고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올려다보다가 씩 웃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던 가십게 볼이 메여지게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

나라가 해방되였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났다.

마을사람들은 해방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해방은 열살밖에 되지 않은 오영재의 작은 가슴에도 새 생활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며칠후 그는 작문시간에 《우리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

《…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러니 조선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제자들앞에서 될수록 부자관계를 나타내지 않던 아버지도 그날만은 아들이 작문을 잘 썼다고 칭찬하였다.

물론 오영재는 자기한테 문학적소질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작문은 해방된 조선의 벽촌에서 살고있는 한 소년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데 지나지 않은것이였다.

그해 오영재는 아버지가 전근되는 관계로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공립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였다.

하지만 해방의 감격을 작문에 담을만치 감성적이였던 그의 가슴속에서 햇솜처럼 부풀어올랐던 희망은 된서리를 맞았다.

오영재는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골에서 7남매라는 무거운 가정의 짐을 힘겨웁게 끌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던 청빈한 교육자의 가정은 나에게 이렇다할 포부도 희망도 줄수 없었다. 나무의 씨앗이 비옥한 땅을 골라 떨어질수 없듯이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만 나의 생의 씨앗은 삶의 터전도 향방도 미처 잡지 못한채 소년시절의 꿈속을 헤매이고있었다.》

어느날 읍거리에 처음 보는 미국군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운두가 뾰족한 모자를 쓰고 껌을 질근질근 씹으며 거드름스럽게 돌아다녔는데 때로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느라고 알락달락한 사탕과 과자를 뿌리기도 하였다. 그러면 아이들은 먹이를 본 비둘기떼처럼 오구구 모여들었다.

때로는 수확물이 많은 아이와 빈손뿐인 아이사이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해방군》은 그 모양이 재미난듯 껄껄 웃다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사진기를 꺼내여 샤타를 누르군 하였다.

학교에 갔다오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오영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부러 조선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사진기에 꼬박꼬박 찍어두는 그들의 처사가 어린 마음에도 옳은것 같지 않았다.

이듬해 미군과 비슷한 군복을 입은 《국방경비대》가 마을에 나타났다.

군복소매를 쭉 걷어올린 그들은 환영나온 백성들에게 자기들은 국토와 백성을 지키는 민족군대라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며칠후 어느 집에서 돼지가 없어지고 또 다른 집에서는 온 집안의 명줄이 달려있는 소를 잃어먹은 주인이 통곡하더니 나중에는 미국제군화를 신은 군인들이 집집마다 뛰여들어 략탈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격분하였다.

저놈들이 백성을 지키는 우리 군대가 옳긴 옳은가?

그 와중에 몽양 려운형이 서울 혜화동로타리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비명횡사하였다느니, 제주도에서 5.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느니, 려수에서는 《국군》장병들이 들고일어났다가 끝내 진압당하고말았다느니 하는 별의별 소문들이 돌아갔다.

며칠후 《국군》이 빨갱이를 잡는다면서 집들을 발칵 뒤집었다.

마을뒤산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따쿵, 따쿵 하는 총성이 귀아프게 들려오군 하였다.

범잡은 포수마냥 기세등등해서 돌아치던 《국군》이 사라지자 온 마을은 페허로 변하고 마을 한복판에는 《빨갱이를 박멸하자!》라고 쓴 커다란 구호가 두억시니처럼 생겨났다.

오영재는 아직 세상의 리치를 깨닫기에는 어렸지만 풍부한 감수성으로 그 무리가 백성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해 가을날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그의 어머니는 논에서 수확한 벼단을 집앞의 길가에 펴놓았다. 따뜻한 가을해는 아홉식구의 배를 채워줄 식량을 착실하게 말려주었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오영재도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갑자기 요란한 발동기소리가 울리더니 군대를 가득 태운 트럭이 미친듯이 달려왔다.

어머니와 아들은 트럭을 향해 멈춰서라고 손을 내저었다.

했으나 트럭은 질주하던 속력으로 벼단을 깔고 지나갔다. 벼이삭들이 으깨여지고 사방으로 뿌려졌다.

아연해서 서있는 어머니의 머리우로 새된 휘파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백성이 먹는 낟알을 깔아뭉개는 저놈들이 무슨 <국군> 이냐?》

오영재는 다른 집들의 벼단도 마구 깔아뭉개며 달아나는 트럭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

미제의 강요로 전쟁이 일어났다.

침략자들은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떠들면서 북으로 밀려들어갔다.

그러나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도적무리처럼 황황히 남으로 밀려나오더니 전쟁개시 3일만에 《수도》라고 하던 서울에서 쫓겨났고 《상승》사단이라고 떠들던 미24사 사단장 띤은 급한 나머지 졸병옷을 입고 도망치다가 포로신세가 되였다.

어느날 가까운 곳에서 쿵—쿵— 하는 포소리가 들려오더니 전라남도의 궁벽한 산골마을인 오영재의 동네에도 인민군대가 들어왔다.

그들은 자기들도 넉넉치 못한 식량을 절량세대들에 아낌없이 나누어주었고 《국군》처럼 아무 집이나 밀고들어와 주인들을 한지에 내쫓고 틀고앉지도 않았다. 대신 마을뒤산기슭에 야전천막을 치고 생활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귀가 메도록 들어온 《정부》의 반공선전과 전혀 다른 그들의 행동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며칠후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한 덜퉁스러운 아낙네가 물을 긷다가 그만 드레박을 떨구었던것이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중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 우물은 다른 마을의 우물보다 퍼그나 깊었던것이다.

아녀자들은 아우성을 쳤고 조무래기들은 큰일이 난것처럼 우물가에서 설레발을 치고있었다.

그때 우연히 우물곁을 지나가던 두명의 인민군대가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다들 《공산군》에게 사연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망설이는데 한 아이가 《군대아저씨, 드레박이 우물에 빠졌어요.》라고 재잘거렸다.

인민군대들은 약속이나 한듯 우물가로 다가갔다.

고개를 기웃하고 우물속을 들여다본 석줄배기군인이 무작정 군복을 벗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줄배기군인이 다급히 그를 제지시켰다.

《안됩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가만있소. 동문 여기서 날 방조해주오.》

《아닙니다. 분대장동지, 제가…》

분대장의 얼굴이 엄해졌다.

《상급이 한번 말하면 다지 무슨 말이 많소?》

한줄배기군인은 습관적으로 차렷자세를 취했지만 얼굴에 떠오르는 실망기를 감출수 없었다.

얼마후 분대장은 우물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아낙네들과 조무래기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한치한치 들어가는 인민군대를 조마조마해서 지켜보았다.

이윽고 우물밑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솟구쳐오르자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갑자기 아낙네들은 벌떼마냥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우물에 들어간 인민군대가 혹시 잘못되면 《공산군》이 자기네를 가만두지 않을것이라는것이였다.

그때 키가 작고 오돌지게 생긴 다른 인민군대가 옆에서 붙잡을새없이 우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일이 그쯤되자 겁기많은 사람들은 비실비실 달아나려고 하였다.

그 찰나 인민군대의 푹 젖은 머리가 우물우로 불쑥 솟구쳐올랐다.

사람들이 일제히 후―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또 다른 군인이 드레박을 들고 나타났다.

《야!》 하고 환성이 터져올랐다.

인민군대가 무서워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던 아낙네들이 제법 도담해져서 그들의 손목을 잡고 고맙다고 거듭 인사하였다.

아낙네들의 진정어린 인사에 답례하듯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낸 드레박을 아이한테 넘겨준 인민군군인들은 늦어진 시간을 보충하려는듯 바삐 뛰여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인민군대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무리 죽물을 먹는 집이라도 지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을 보면 시원한 랭수라도 들고 가라고 친절히 잡아끌었고 바지런한 녀인들은 그들이 쉬는 짬에 옷과 발싸개들을 빨아 말리워주군 하였다.

인민군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의 힘찬 노래선률이 울려나왔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한 오영재는 그 노래를 제꺽 외웠다.

강진공립농업중학교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학우들에게 처음 배워준것도 그였다.

하루는 어머니가 혀를 차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오후, 인민군대 자동차들이 집앞의 길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부리나케 벼단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웬 일인지 자동차들이 멎더니 인민군군관이 달려오는것이였다.

잠시 벼단을 바라본 그는 뒤에 대고 손짓하였다.

그러자 주런이 늘어섰던 차들이 뒤로 밀리더니 마을뒤로 난 소로길로 접어들었다. …

《원, 세상에 전쟁을 하는 군대가 그까짓 벼 몇단이 뭐라구. 확실히 인민군대는 <국군> 하고는 영 다른 군대더구나.》

오영재의 눈앞에 벼단을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달아나던 《국군》트럭이 떠올랐다. 이어 그 환영을 밀어내며 벼단을 피해 돌아가는 인민군대 자동차대렬이 나타났다.

가렬한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이름없는 농촌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사실들, 인민군대의 름름한 모습은 오영재의 가슴에 백성을 위하는 참된 군대의 군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였고 며칠후 열다섯살의 어린 그가 의용군에 탄원하게 된 직접적동기로 되였던것이다.

그에 대하여 오영재는 수기에 이렇게 썼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의용군에 입대한것은 내 운명에서의 사변적인 전환이 아닐수 없었다. 거창한 전쟁의 밀물은 해변의 작은 모래알과도 같은 내 삶을 전혀 다른 대안으로 옮겨놓았던것이다.》

어느날 중학교에 찾아온 인민군군관이 인민군대에 탄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오영재는 선참으로 나섰으나 불합격이 되였다. 군대라는 상비적인 무력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기에는 그의 키가 작고 나이도 어렸기때문이였다.

이틀후 그는 18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야 겨우 인민군대에 입대할수 있었다.

오영재의 별명은 《덥석》이였다.

어릴 때 물속에도 진창에도 덥석덥석 뛰여들군 하는 둘째 아들때문에 어머니는 늘 걱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선뜻 의용군으로 탄원한 아들의 의기가 그 또래 소년들이 흔히 빠지군 하는 감상적인 용감성으로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았다.

아니다. 그것은 물덤벙술덤벙하는 소년시절의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였다. 척박한 땅에 떨어졌던 오영재라는 씨앗을 비옥한 대지에로 옮겨놓은 인생전환의 씨붙임이였다.

의용군에 입대한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한주일이면 전조선을 해방하고 돌아온다고, 기껏해야 한달이면 돌아온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집을 나섰었다.

지금 길고 무거운 보총을 땅에 줄줄 끌며 대오를 좇아가는 오영재는 북을 향하여 내짚은 그 발걸음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줄것이라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

후날 오영재가 고향방문단성원으로 남조선에 갔을 때 알아보니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설악산에서 헤여진 고향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대오를 버리고 고향마을로 돌아온 그는 인민군대에 복무했다는 죄아닌 죄로 무참히 맞아죽었던것이다.

설악산에서의 운명적인 선택을 결코 잊을수 없었던 오영재는 장가를 들고 첫아들이 태여나자 오설악이라고 이름 지었다.

행복한 땅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영재는 소중한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그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를 량쪽어깨에 메고 다녔다.

옆에서 돌격하던 전우가 선혈을 콸콸 쏟으며 쓰러지는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인다는 피의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한 원산에서의 첫 전

투, 전호우에 올라서서 적기를 향하여 기관총을 휘두르던 진지방어전투, 적의 총탄에 다리를 상하고 고지밑으로 굴러떨어졌다가 이름모를 처녀담가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죽음의 고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무명고지전투…

그 나날은 삶을 아끼여 땅에 엎드리면 비겁한자가 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박치는 탄우속에 서슴없이 던지면 애국자가 된다는 철의 진리를 피와 땀으로 깨닫던 잊지 못할 시절이였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청춘의 열정으로 헌헌히 넘나들며 온몸을 강철같이 벼리여온 3년간의 전쟁은 오영재에게 한생토록 다 터득하지 못할 심오한 인생체험을 안겨주었다.

후방병원에서 반년나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받은 그는 원산계선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중 마침내 전승의 날, 승리의 7.27을 맞이하였다.

몇해후 오영재는 군대에서 제대되였다.

함께 렬차에 올랐던 전우들이 하나둘 도중에 내리고 홀로 남은 그가 도착한 곳은 평양역이였다.

그가 저저마다 자기네 고향으로 가자고 잡아끄는 친구들의 청을 사양하고 그곳에 내린것은 설악산에서 만났던 인민군군관의 이야기에서 받은 충격의 여운이 그때까지도 가슴속에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그의 말은 옳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인민군대는 재진격의 길에 올랐으며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통쾌하게 꺾어놓고 승리하였던것이다.

오영재는 평양,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이 못내 그리웠다.

그러나 막상 렬차에서 내리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평양은 그가 어린시절 지도에서 한두번 보았던 곳이였다.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오영재는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들은 부모형제들이 반기는 제 고향에 가게 되였다고 기뻐들 했지만 나에게는 불비를 겪으면서도 살아서 돌아오는 아들을 반겨줄 부모도 친척도 단 한사람 여기 북녘땅에 없었던것이다.》

망연한 심정으로 우두커니 서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오영재와 나이가 비슷한 초면의 제대군인이였다.

그는 오영재의 사정을 알자 무작정 상대방의 손을 잡아끌었다.

《가기요. 아무렴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를 반겨맞아줄 곳이 없겠소?!》

순간 오영재는 눈굽이 찌릿했다.

… 두 제대군인은 어느 한 독신자합숙에 제대배낭을 풀

어놓았다.

오영재가 의용군출신이며 혈혈단신이라는것을 안 합숙생들은 그를 친형제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를 제 옆자리에 데려가겠다고 싱갱이를 벌렸다.

오영재는 그들의 고마운 모습에서, 한가지 별식이라도 더 차려주려고 아글타글하는 료리사녀인들의 정성어린 모습에서 자기가 안긴 보금자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며칠후 오영재는 중구역 로동과에 찾아갔다.

로동지도원은 그에게 건설사업소 배치장을 내주었다.

그는 사업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람들이 퇴근하자고 등을 떠밀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 나날 작업반장은 군복대신 갈아입으라고 깨끗이 빨아서 다린 작업복을 가져다 주었고 한 처녀는 밤새워 만든 새 장갑을 수집게 건네주었다.

오영재의 눈에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즐거운 하루하루가 시처럼 아름답게 안겨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합숙에서 로동의 랑만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문학에 뜻을 둔적 없고 농촌집 사랑채에 굴러다니는 소설책을 흥미삼아 읽은것밖에 없는 그가 시에 흥미를

느낀것은 포성울리는 싸움터에서였다.

오영재는 전우들의 피가 흐르는 락동강을 넘었고 숨진 전우를 남겨두고 돌격하는 판가리격전장에서 종군작가들을 만났다.

당시 중대마다 배포되던 《전선문고》에 박세영, 조기천, 김조규 등 이름난 시인들의 시가 실리군 하였는데 보풀이 일도록 읽고 또 읽은 그 작품들은 오영재를 문학의 길로 손잡아준 친근한 안내자였고 시를 써보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일으킨 불꽃이였다.

그의 습작품에서 문학의 싹을 발견한 종군작가들의 고무와 방조속에 18살의 인민군전사는 첫 서정시 《갱도는 깊어진다》(1953년)를 썼다.

첫 발표로 신심을 얻은 그는 군대에서 제대될무렵까지 여러편의 시를 작가동맹중앙위원회기관지와 신문 《조선인민군》에 발표하였다.

이미전부터 오영재의 시적재능을 눈여겨보던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그를 작가학원에 추천하였다.

1958년 4월 작가동맹중앙위원회직속 작가학원에 입학한 오영재는 무의무탁자로서 다른 학생들보다 두배의 장학금을 받으며 2년간 문학공부를 하였다.

첫 장학금을 받던 날 그는 작가학원의 뒤산에 올라 어

린애처럼 울고웃으며 남녘의 어머니와 오래도록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부터 격동적인 시대와 더불어 심장을 용암처럼 불태워온 오영재인생의 두번째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가 인생의 닻을 내린 곳, 진정한 삶의 요람인 공화국은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주었고 혈육을 대신해주었다. 아니, 부모도 혈육도 미처 줄수 없었던 사랑을 주고 정을 부어주었다.

《나는 가끔 한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마음의 기둥에 대하여 생각하군 한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기 홀로는 한생의 길을 걸어갈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의탁할 정신적지주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와 염세, 타락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게 되며 결국 그것은 인간에게 처참한 말로밖에 줄것이 없다.

신에 대한 인간의 신앙보다도 더 현실적인 생활의 진리, 신념이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수 없는 내 삶의 반석같은 지반이다. 이 지반을 마음에 지녔을 때 어려운 역경이 닥쳐온다 해도,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풀뿌리를 캐먹는다 해도 이 신념을 어찌 달리할수 있을것인가. 만약 이

신념이 변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데야. …》

이것은 그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공화국은 오영재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주고 원대한 청춘의 포부와 희망을 안겨준 어머니조국이였다.

그는 한알의 씨앗에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자양분을 주어 싹틔우고 애지중지 키워주는 고마운 품을 위해 더 높은 지식의 탑을 쌓으려고 피타게 노력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에도, 배식을 기다리며 식탁앞에 앉아있는 그 몇분간에도 부피두터운 시집을 읽었고 밤이면 등잔불밑에서 쓰려나는 두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작품을 읽고 분석하였다.

후날 젊은 시인들속에서 《오영재령감은 척 앉으면 시가 술술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을 안 오영재는 정색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라는게 뭐 술술 나오는건줄 알아? 그건 노력의 산물이야.》

당시 작가학원에서 오영재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중에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시 《어머니》를 쓴 김철도 있었는데 그는 동료의 범상치 않은 열정과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 하였었다.

작가학원을 졸업한 오영재는 1960년 4월 조선예술사(당시) 기자로 배치받았다.

그는 편집원으로 일하면서 이름있는 작가들과 만났고 그들의 작품들을 편집하는 과정에 문학공부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할수 있었다.

몇해 지나 그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현역작가로 되였다.

오영재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듯 활기에 넘쳐 시를 써내기 시작하였다.

이때 발표한 서정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1963년)에서 그는 자신도 그 한복판에 뛰여들어 성실한 로동의 땀을 흘린 천리마시대, 자랑과 긍지로 빛나는 그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방불히 펼쳐보였다.

그외에도 여러편의 좋은 시들을 창작하여 개성적인 작가의 모습을 문단에 드러냈다.

봄이면 꽃나무가지에 싹이 트듯 오영재라는 생활의 가지에도 이성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창작실로 한 처녀가 찾아왔다.

갸름한 얼굴의 처녀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단정히 받쳐입었는데 남의 심부름을 들어주는 처녀들이 흔히 그러하듯 담담한 표정을 지은채 한통의 편지를 오영재에게 건네

주었다.

발신인은 오영재가 조선예술사에서 편집원으로 있을 때 함께 일한적 있는 녀성이였다.

속지를 꺼내읽던 오영재는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지금 가는 동무는 송숙녀라는 처녀인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는 편지너머로 슬그머니 처녀를 훔쳐보았다.

창작실창턱에 주런이 놓여진 화분들을 말끄러미 보고있는 처녀는 싱겁게 크지도 않고 아쉽게 작지도 않은 보통키에 이목구비가 단아하게 생긴 얼굴이였다.

활짝 피여난 한떨기의 꽃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은 7년간의 독신자합숙생활에 넌덜머리가 난 로총각의 가슴에 비쳐든 한줄기 해빛과도 같았다.

(이런 처녀라면야…)

오영재는 시치미를 뚝 따고 처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웬 일인가 하고 편지를 읽던 처녀는 부끄러워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무르익은 도마도처럼 빨갛게 상기된 얼굴빛이 눈처럼 하얀 저고리에 금시 물들것만 같았다.

오영재는 공연히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후회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대동강유보도를 거닐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오영재였지만 그날따라 무슨 정신이 나갔는지 처음 만난 처녀앞에서 자기의 지난날을 죄다 털어놓았다.

열변을 토하며 걷는데 옆에서 따라오는 인기척이 없었다.

돌아보니 처녀가 조용히 눈굽을 훔치고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처녀는 남조선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온 오영재가 이렇듯 공화국의 품에 안겨 참된 새 생활을 찾게 된 모습이 기뻐서 그런다는것이였다.

오영재는 첫 만남이였지만 감성이 풍부하고 리해력깊은 이 처녀야말로 자신의 독신생활을 끌장내줄 반려자라고 확신하였다.

알고보니 송숙녀는 함경남도태생이였는데 걸어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왔었다고 한다.

시험전날 대학주변의 한 집에 묵으려고 찾아가니 그 집 부부는 처녀가 지방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왔다는것을 알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대학으로 나간 숙녀는 어제 밤 자기가 들었던 집의 인심좋은 세대주가 다름아닌 대학총장이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하루밤의 인연에 기대를 걸고싶지 않았던 그는 높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졸업후 그는 잡지 조선예술사 기자로 일하게 되였다.

헤여질무렵 두 청춘은 조금전까지 남남이였던, 간혹 길가에서 만나도 무심히 지나칠번 하였던 자기들이 마치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던 사람들처럼 퍼그나 가까와진 사실에 은연중 놀라면서 며칠후에, 아니 래일 저녁에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였다.

사랑의 향기에 흠뻑 취한 그들은 저녁마다 높뛰는 가슴을 안고 유보도로 달려와서는 뜨겁게 만나군 하였다.

어느날 새벽, 온밤 걷다못해 주저앉은 처녀를 닁큼 안고 걸어가던 오영재는 그만 순찰중이던 사회안전원(당시)에게 단속되였다.

오영재는 버젓하게 말하였다.

《우린 오늘 결혼합니다.》

안전원은 그 대답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증명서를 요구하였다.

오영재는 앞가슴에 단 휘장을 보여주었다.

안전원은 때마침 떠오른 해빛을 받아 유난히 빛나는 작가휘장을 알아보자 정중히 경례하고 돌아섰다.

얼마후 그들은 결혼하였다.

오영재의 안해가 결혼후 처음으로 사준것은 남자양말이였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살림에 하루하루가 꿈같이 흘러가는데 행복의 무아경에 잠긴 새색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안겨줄것이 고작 양말이였을가?

아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인간됨이 텁텁하고 사치를 모르는 오영재는 양말이라는 법을 몰랐고 겨울에도 맨발에 구두를 신고 다녔다. 그래서 송숙녀는 양말부터 사준것이다.

《어, 이거 꼭 신어야 하는건가?》

오영재는 어색해하면서도 슬금슬금 양말을 신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새 양말에 반짝반짝 윤기나는 구두를 신은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래우는 안해의 얼굴에는 웃음이 남실거렸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새 양말은 이틀도 못 가서 다른 작가의 소유로 되였던것이다.

《그 친구가 꿰진 양말을 신고 다니는게 보기 딱하더구만.》

그전처럼 맨발바람에 구두를 신고 퇴근한 오영재의 이야기였다.

안해의 눈에 야속한 빛이 떠올랐다.

그까짓 양말 한컬레가 아까와서가 아니였다. 래일이라도 상점에 가서 또 사면 그만이다. 문제는 안해의 성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였다.

《그게 그렇게도 아깝소?》

오영재가 마뜩지 않아하며 물었다.

《…》

《그럼 나하고 못살지 뭐.》

오히려 제편에서 엇서나가는 남편이였다.

《그게 진정이세요?》

《그렇소.》

안해는 그만에야 물러서고말았다. 별치않은 양말 한컬레가 그렇듯 심중한 문제를 야기시킬줄은 꿈에도 몰랐던것이다.

그후에도 오영재는 생활비를 타면 아이가 태여난 친구나 혹은 병치료를 받고있는 문우에게 봉투채로 내주군 하였다.

하지만 안해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언제나 남편을 밝은 얼굴로 맞아주군 하였다.

앞에서 언급되였지만 송숙녀는 대학입학시험때부터 실력이 뛰여났으며 대학기간 문학공부를 이악하게 한 녀성이였다.

그런것만큼 문학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있었고 실지로

남편의 시창작에 많은 도움을 준 귀중한 방조자였다.

오영재는 창작생활 전기간 수많은 시를 내놓았는데 거의 대부분 작품들은 안해가 첫 독자로, 편집원으로, 교정원으로 되여주었다.

1990년대에 배출된 첫 공화국영웅 김광철의 수첩에는 서정시 《어머니의 당부》가 적혀있었다.

그 시도 안해의 방조속에서 태여난 작품이다.

그때 안해는 둘째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간혹 별식이 생기면 군대에 나간 아들이 생각나서 수저를 들지 못하군 하였다.

오영재가 보다못해 지휘관들이 친형처럼 돌봐주니 걱정말라고 일렀다.

그러자 안해는 그래서가 아니라 아들이 혹시 군사복무를 제대로 못해서 남들의 말밥에 오를가봐 걱정스러워 그런다고, 이 나라의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들의 당부를 명심하고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절절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당신은 시인이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들의 당부를 담은 시를 쓸수 없는가요?》

그 말에서 강한 충동을 받은 오영재는 그날 밤 줄곧 붓을 달렸다.

…
당부하나니
명심하거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키워 조국에 바쳤고
너는 이미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아들
명령을 받은 전사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라
조국이 명령할 때
아들아, 네 만약 그 길에서 주저한다면
이 어미는 이 손으로 그 가시나무를 꺾어
너의 잔등에 매를 안기리…

안해는 동녘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그 초고를 보고 또 보면서 몇번이고 다듬었다.

그렇게 되여 발표된 서정시 《어머니의 당부》는 오늘도 인민군전사들속에 널리 애송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 가요 《흰눈덮인 고향집》에도 송숙녀의 남모르는 손길이 깃들어있다.

오영재가 《사나운 눈보라를 휘여잡은 집》이라는 표현을 찾아냈을 때 제일 기뻐하고 지지해준것이 그였고 남편에게 후렴을 더 달라고 권고한것도 바로 그 녀성이였다.

조선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 《로동계급편》의 주제가인 《장군님식솔》의 가사에 대한 첫 독자도, 편집원도, 교정원도 역시 오영재의 안해였다.

그에 대하여 늘 고맙고 미안하게 여겨온 오영재였기에 안해의 60돐생일날 자기가 받은 로력영웅메달을 그의 가슴에 달아주며 내가 영웅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나를 키운 영웅이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오영재는 늘 자신을 행운아라고 하였다.

다정한 어머니처럼, 살뜰한 누이처럼 돌봐주고 방조주는 녀성을 일생의 반려자로 만났으니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남편은 없는것 같았다.

송숙녀는 그렇듯 현숙하고 사려깊은 안해였지만 한가지만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의 술버릇이였다.

오영재는 남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줄 몰랐고 일단 마시면 폭주하군 하였다.

어느날 오영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의 생일에 초청받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그만 가방을 잊고 무궤도전차에서 내렸던것이다.

집에 도착해서야 문득 손에 가방이 쥐여있지 않다는것을 알았다. 가방에는 오래동안 고심하며 쓴 서사시초고가 있었다.

어찌나 급했던지 오영재는 취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다.

그때 그의 안해는 몹시 앓고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자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외투를 입고 나섰다.

《어디 가려고 그러오?》

얼굴에 병색이 짙은 안해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방을 찾아야 할게 아니예요.》

오영재는 안해가 걱정스러워 그를 부축하려고 하였다.

안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방을 꼭 찾겠으니 먼저 쉬라고 이르고는 집을 나섰다.

찬바람속을 뚫고 힘겹게 걸어가는 안해를 보면서 오영재는 자신을 끝없이 저주하였다.

다음날 아침 안해는 끝내 낯익은 밤색가죽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온밤 시내를 훑고 또 훑다가 무궤도전차사업소 사령실에

서 찾은것이다.

오영재는 온몸이 꽁꽁 언 안해를 억이 막혀 바라보았다.

(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래, 이 녀자에게는 한심한 남편이 그렇게도 귀한 존재란 말인가?)

오영재는 마침내 고열로 얼굴이 빨갛게 된 안해의 두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고맙소. 난 정말 당신없이는 못사오.》

안해는 얼음처럼 차거운 손으로 남편의 뜨거운 손을 어루쓸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쪽에 계시는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아셨다면 저처럼…》

여기까지 이야기한 안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옹근 한주일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앓았다.

참으로 이악하고 총명한 그 녀자는 남편의 미숙한 측면을 말없이 바로잡아주고 보충해주는 둘도 없는 방조자였다.

태양의 품속에서

1978년 가을이였다.

그날 창작실에서 새로 쓰게 될 서사시를 구상하고있던 오영재는 한 일군을 만나게 되였다.

얼마전 오영재는 서사시창작을 위해 반년나마 제강소에서 현지체험생활을 하였었는데 일군은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러더니 문건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몇가지 사실자료를 확인하였다.

거기에는 오영재가 현지체험기간 생활을 잘하지 못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밤 궁싯거리며 마흔고개를 넘어선 삶의 로정을 돌이켜보았다.

고향집을 떠나올 때 부모형제들과 헤여지던 탱자나무울타리, 비뿌리는 태백산준령을 밤새워 넘어 새벽녘에 처음으로 디디게 된 공화국북반부땅, 조국을 지켜 목숨바쳐 싸우던 전투들, 나라에서 내준 교복을 입고 눈물속에 공부하던 작가학원시절, 현숙하고 당돌한 안해와의 결혼, 귀여운 아이들의 출생, 보람찬 시창작의 나날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삶의 씨앗이 움트고 줄기차게 가지를 뻗어온 행복한 날들이였다.

그 고마운 품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겠다고 얼마나 많은 맹세를 다졌던가.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어찌 어머니앞에 밥투정부리는 철부지자식의 어리광으로만 볼수 있겠는가.

자신을 아프게 질책하고 또 질책했으나 그 고민의 수면우로 떠오른것은 절망이였다.

당시 오영재는 자기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심려하고계신다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 시각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고 오영재가 어떤 사람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무슨 일로 물으시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일군들은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 작가에 대하여 아는대로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오영재가 재간있는 작가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적지 않게 썼으나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한다고 보고드리면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심중한 안색으로 주의깊게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건 하나를 일군들에게 주시며 그 작가에 대한 자료인데 읽어보라고 이르시였다.

자료에는 오영재가 제강소에 나가있을 때 생활에서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결과 일부 사람들속에서 좋지 못한 반영이 제기된 사실들이 적혀있었다.

일군들은 자료를 다 읽고난 후에도 장군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어떻게 되여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오영재가 어떤 작품을 썼는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 그가 쓴 작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물으신다는것을 직감한 일군들은 오영재가 쓴 대표작들의 제목과 내용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음성으로 그 동무가 어린 나이에 혁명을 하겠다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난날 남조선에서 못살고 천대받던 그에게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었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영예로운 작가대렬에 세워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제강소에 내려가 오영재의 현지생활을 다시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며칠후 제강소에 내려갔던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오영재가 현지체험기간 로동에 성실하고 인간됨도 좋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음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습니다. …

그는 우리와 한대오에 서있는 혁명동지입니다. 결함과 과오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허물처럼 함께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혁명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란 말입니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형제들과 헤여져 수령님의 품을 찾아왔으며 지금까지 근 30년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랐다, 그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 서서 어려운 후퇴의 길도 걸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도 하였으며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작품도 썼다, 그는 우리와 함께 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며 우리가 공을 들여 키운 작가이다, 작가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창작을 시킬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해당 부문 일군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달받은 오영재는 귀를 의심하였다.

이미 모든것을 각오한 그였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눈부신 광명이 쏟아져내렸다.

그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무아의 경지에 빠져 창작실로 향하였다.

어느새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작가들이 달려와 오영재를 에워싸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약속도 없이 터져나온 격정의 분출이였으며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아끼고 믿어주시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환호성이였다.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오영재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 울었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영재는 많은 눈물을 흘렸었다.

괴롭고 슬플 때 울었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울었다. 그러나 지금의 눈물처럼 뜨거운 감격의 눈물은 일찌기 없었다. 진정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새롭게 정화된 심장이, 온넋이 뿜어올리는 격정의 분출이였다. …

예로부터 위인은 하늘이라고 일러왔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일것이다.

바로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하늘이시였다. 언제나 우리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낀 하늘이시였다.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오영재는 그후 오래동안 고심한 끝에 서사시 《인민의 아들》을 완성하여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긴 시간에 걸쳐 서사시를 들어주시고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흐르는 편지를 다 읽으신 장군님께서는 **《당에 충직한 시인》**이라고 활달한 필체로 감사의 회답을 써보내주시였다.

또한 1989년 5월 공화국의 최고상인 **김일성**상계관인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고 1977년과 1992년에 두차례에 걸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수여받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1995년 12월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의 칭호를 수여받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외국에 가족휴양까지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년로하여 정상출근을 못하게 되자 자택작가로 글을 쓰도록 해주시고 새로 일떠선 살림집을 배려하여주시였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은인이나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깊은 물에 빠져 헤여나올수 없을 때 뛰여들어 건져주었거나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명약을 써서 낫게 해주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은인이고 귀인들이다.

그러나 오영재가 한생에 맞이한 은인은 혈육도 친우도 그 어떤 명의도 어찌할수 없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구원해주신분, 이고 사는 하늘과도 같고 영원한 태양과도 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하여 그는 자신께서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는다고 하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훌륭한 시들을 많이 썼으며 그 길에서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찾군 하였다.

시인과 시

오영재는 늘 시와 생활은 같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는 문학의 길에 들어서려는 막내딸 오은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시인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생활도 시처럼 해야 한다. 그래서 시를 쓰기는 쉽지만 시인이 되기는 힘든것이야.》

그 말은 시인은 직장에 나가서나 가정에 들어와서나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나 절해고도에 있을 때나 언제나 량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뜻일것이다.

량심, 그것은 더없이 깨끗한 마음이다.

시는 시인의 순결한 량심에서 흘러나오는 서정의 샘이라고 할수 있다.

오영재는 한편의 시를 써도 아늑한 창작실에서가 아니라 불꽃튀는 현실에서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썼다.

예로부터 한다하는 문인들은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에 대하여 노래는 많이 하였지만 진정한 인민의 강, 행복의 강으로 변천된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쓴 사람은 없었다.

오영재는 TV나 신문으로가 아니라 직접 대동강을 답사하면서 장편서사시를 쓰려고 결심하였다.

안해가 걱정하였지만 오영재는 간단한 화식도구 몇개와 담배, 신발이 든 배낭을 메고 대동강기슭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50이 불원한 나이에 마음을 든든히 먹고 나섰으나 헐치 않은 답사였다.

어느날은 날씨가 쾌청한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멎지 않고 내렸다.

그는 대동강반을 따라 비를 그대로 맞으며 계속 걸었고

자주 끼니를 건느기도 하였다.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오영재의 머리우에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솜옷생각이 저절로 드는 마가을이 다가왔다.

그러나 시창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안고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꼬박 반년을 답사한 오영재는 끝내 장편서사시 《대동강》을 훌륭하게 써냈다.

기행체서사시로서 4개의 편과 머리시, 맺음시로 구성되여 있는 《대동강》은 시인이라기보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한 작가가 뜨거운 심장의 피를 잉크로 삼고 유정한 대동강을 원고지로 삼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일떠선 아름답고 풍요한 강반의 주인공들을 노래한 작품이였다.

그 과정에 그는 《대동강명상시초》를 남겼는데 말그대로 대동강을 따라 걸으며 명상에 잠긴 순간들에 떠오른 생각들을 진실하게 적은것이다.

오영재는 위세를 부리고 허풍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맏아들 오설악이 평양연극영화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가는 날에 있은 일이다.

그날 오설악은 아버지에게 손목시계를 차고 가자고 졸랐다.

구실은 시험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실은 아버지가 장군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선물시계를 차고 수험생들에게 뽐내고싶었던것이다.

다림질을 미끈하게 한 옷에 새침데기누이의 향수를 몰래 훔쳐 뿌리고 얼굴에 뭔가 묻지 않았는가 해서 거울을 몇번이고 들여다보는 그 시절, 수집은 처녀들앞에 나서면 멋없이 으쓱거리기 좋아하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로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었다.

오영재는 대번에 《안돼. 시험이나 잘 치거라.》 하고 잘랐다.

물론 오설악은 수험생들가운데서 제일 높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였고 다시는 아버지에게 그런 청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모르는 오영재는 웃지 못할 일화도 남겼다.

어느해 2월 오영재는 두번째로 맞은 부인과 함께 삼수발전소에 현지창작을 위해 내려갔었다.

돌격대원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로시인이 부인을 데리고 건설장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그런데 오영재는 처음 만난 돌격대원들에게 옆에 있는 부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로친이 바로 내 후처요.》

급해난것은 부인이였다.

그 부인은 너무 창피해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후에 부인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노여워하자 오영재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아무래도 다 알게 될텐데 미리 말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나.》

오영재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기처럼 순진한 인간이였다.

부인은 오영재가 외출할 때면 옷차림을 정성껏 돌봐주군 하였다.

하루는 집에 들어온 그가 일흔이 넘은 로인답지 않게 기분이 들떠서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부인이 웬 일인가고 묻자 그는 오늘 동무들이 자기더러 미남자라고 하였다고 뻐기듯 대답하는것이였다.

사실 오영재를 미남자라고 할수는 없다. 그리고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늘그막에 미남자면 어떻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단 말인가.

아마 동료들은 귀중한 방조자로, 둘도 없는 문우로 동고동락하던 안해를 잃고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던 그가 새 부인을 맞아 슬픔을 가시고 로당익장하는것이 기뻐서 이야기했을것이다.

그런데 오영재는 자기는 이제부터는 미남자라고 냅다 우기였다.

《아무렴, 내가 미남자이구말구.》

오영재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 온밤 시를 썼다. 그처럼 남다른 행복속에 산 오영재였지만 가슴속 한구석에는 늘 두고 온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안고있었다.

때로는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워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 하고 찾군 하였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어린 누이동생을 업고 70리길을 걸어 의용군훈련소에 찾아왔던 모습이였다.

그날 8월의 무더위속을 뚫고 아침부터 줄창 걸어서 해질녘에야 의용군훈련소에 도착한 어머니는 온몸이 금방 물에서 나온것 같았다.

뒤잔등에 업힌 젖먹이는 배가 고파 칭칭거리는데 어머니는 아랑곳않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꺼내놓았다.

짧은 면회시간이 끝났다.

다른 사람 같으면 보초에게 조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으련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성한 너를 보았으니 이젠 마음이 놓이고 잠도 잘 올것 같다. 이왕 나선 길이니 잘 싸우거라.》 하고 돌아섰다.

석양이 뉘엿뉘엿 저무는 먼지낀 길을 따라 힘겹게 걸어가

는 어머니를 오영재는 눈물로 바래웠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웃고있을 때 오영재는 어머니의 축복없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이 너무 크고 고마와서 더 울군 하였다.

작가학원에 입학한 첫날도, 장가를 들고 첫 아기가 태여난 날도 오영재는 남녘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행에 울고있을 어머니와 형제들을 잊을수 없었고 그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쌓이고쌓인 분노가 불기둥처럼 솟구쳐올랐다.

가슴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사랑과 증오의 뒤엉킴은 마침내 분화구를 찾아 시대의 격정으로 터져올랐으니 그것이 시 《복수자의 선언》(1966년)이였다.

불과 얼음처럼 사랑과 증오라는 판이한 감정과 감정이 격렬하게 맞부딪치는 현실앞에서 시인 오영재는 정의의 목소리를 터치였고 50년대에 잡았던 총창을 다시 틀어잡는 심정으로 복수자의 서리발같은 선언을 하였다.

…

더는 이대로 나이를 먹을수 없어라

친할머니를 모르고 자라는 어린 가슴들에
하나의 나이를 더 보태주는 설과 설을
  다시 더 맞을수 없어라
이 무서운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안고
  이제 더 가야 한다면
무정한 세월이여, 수억만년 변함없던
  지구의 공전이여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

스물도 되기 전에 떠나온 집을 서른이 넘어서도 못 간다면 이 총창은 무엇때문에 쥐고 섰는가, 한목숨 기꺼이 바쳐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겠다고 격조높이 토로한 《복수자의 선언》은 조국땅 방방곡곡에 울려퍼지였다.

고향을 떠나는 어린 자식을 바래우며 남녘의 어머니가 마음 못 놓던 어제날 의용군출신병사 오영재는 그 시와 함께 진정한 삶의 요람인 공화국을 목숨바쳐 지켜갈 불타는 결의에 넘친 복수자로 성장하였던것이다. 오영재가 어머니의 소식을 알게 된것은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당시 그는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으로 사업하고있었

는데 범민족대회기간에 친숙하게 된 해외교포 문필가가 오영재를 포함한 북조선의 문인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게재하였다.

그것을 서울에서 살고있는 오영재의 동생이 받아보고 북으로 떠나간 형의 생사여부를 알게 되였다.

오영재도 동생과 《한겨레》 기자와의 대담이 실린 그 신문을 보고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살아있다는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그 해외교포가 대전에서 살고있는 80고령의 어머니와 평양에서 살고있는 아들이 서로 통화할수 있게 중계해주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이 뜻깊은 전화상봉의 기회마저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오영재는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그 나날 오영재는 누가 진정으로 민족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가슴아파하며 그것을 가셔주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있는가, 누가 민족을 배반하고 반통일의 길로 나가고있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후 오영재는 조국에 왔던 한 해외동포를 통하여 어머니의 생일 여든돐에 정성들여 마련한 옷감과 보약을 비롯한 선물을 보내였다.

50년가까이 《영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을수 있냐.》 하고 사진찍는것을 한사코 마다해온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옷감으로 곱게 지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사진을 찍고나서 그 심정을 회답편지에 담았다.

《… 사람이 자식을 낳은것으로 부모가 아니지. 그애 장래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부모인데 너를 세상에 버려둔 사람이 무슨 엄마라는 부름을 받을수 있나.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진토만도 못한 존재라 너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구나. 너의 소식을 들으니 어느 정도 한이 풀리는구나. 내 이제 죽는다 해도 한이 없을것 같다. …》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오영재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없는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친어머니도 주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당이 주고있다고 노래하고있지만 오영재는 그 참뜻을 자신의 생활로, 한생을 통하여 체험하였던것이다.

2000년 8월 오영재는 제1차 고향방문단에 속하여 남조선에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홍안의 모습은 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로인들로 되여버린 형제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과의 기쁜 상봉을 밀어내고 오열을 터뜨려야 하였다.

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뛰쳐나온 아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던 어머니, 젖먹이동생을 업고 먼길을 찾아왔던 그 어머니는 가슴아픈 추억만을 남겨놓은채 이미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오영재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어머니제사를 하였다.

무릎을 꿇은채 흐느끼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50년 한을 담은 자식의 마음, 통일이 되면 아들을 만나 불러보고 안아보고 만져보고싶어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돌아간 어머니를 추억하여 즉흥시를 읊었다.

그러는 그의 두눈에는 장장 반세기동안 민족을 갈라놓고 이 나라 아들들의 가슴에 씻을수 없는 회한을 남겨놓은 장본인인 외세와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오영재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형제들은 사고무친의 그가 공화국의 품에서 **김일성**상계관인으로, 공화국의 로력영웅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몹시 기뻐하였다.

50년전 어머니의 등에 업혀 오빠를 찾아왔던 누이동생이 어떻게 북조선에서 이름난 작가가 되였는가고, 자기들도 놀랐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오영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를 작가로 키워주셨다고,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과 원쑤에 대한 증오가 나를 시인으로 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조선의 힘》이 나오기까지

2012년 설날아침 눈물에 젖은 두볼을 훔치며 《로동신문》을 펼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신문의 1면에 뜻밖에도 오영재가 쓴 가요 《조선의 힘》이 크게 실렸던것이다.

불과 두달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인 오영재의 령구에 화환을 보내신 소식을 《로동신문》에서 보았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함박눈도 흐느끼며 쏟아지던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맞는 새해의 첫아침 당보 1면에 시인의 유고작이 실린것이다.

불세출의 령장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수십성상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한 력사의 총화와도 같은 송가이며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이 낳은 맹세의 합창곡인 《조선의 힘》은 나오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의 힘》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세차게 울려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고귀한 업적을 칭송한 국보적인 그 작품이 어떻게 되여 세상에 나왔는가를 모르고있었다.

오영재는 순진한 어린애가 어버이를 따르듯 위대한 장군님을 선군조선의 하늘로 높이 모시고 받든 시인이였다.

특히 오영재의 1980년대 작품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인 가사 《흰눈덮인 고향집》은 자기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

고향을 남쪽에 둔 시인이여서 더욱더 정을 주시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보람차고도 영광스러운 창작활동을 벌려온 그에게 있어서 태양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은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 봄우뢰였다.

성스러운 백두의 밀림속을 헤치며 정일봉기슭에 들어선 시인의 눈가에, 심장에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어떻게 비쳐들었던가.

아득한 밀림은 눈에 덮이여

하늘땅 저끝까지 눈부신 광야
아 하얀 눈속에
봄빛을 안은 고향집이여
…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안겨준 눈과 봄빛이라는 시적발견은 오랜 기간 위대한 스승의 각별한 지도와 보살피심을 받으며 창작생활을 하는 과정에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매혹과 신뢰감이 터친 환희였다.

작가로서 동서고금의 명인전도 읽어보았고 위인에 대한 송가도 들어본 오영재의 정서적체험은 그날 밤 더욱 깊어졌다.

낮에는 신비스러운 눈세계를 펼치며 유정한 물소리만이 차넘치던 소백수골안에 어둠이 깃들자 뢰성이 터졌다.

천리수해를 휘저으며 광풍이 기승을 부리고 천둥소리가 하늘을 깨치던 그 밤은 시인에게 아침해돋이를 다시금 못보게 하려는 자연의 횡포한 광란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눈보라에도 끄떡않고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해발속에 유난히도 정갈하게 흰빛을 뿌리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사나운 눈보라를 길들인 전설적인 위인의 모습으로 안겨들어 시인의 마음속에 세찬 격랑을 일으키였다.

정녕 사랑과 정의를 지켜 남녘의 추녀낮은 초가집을 떠났던 오영재가 한생을 바쳐 가닿은 백두산밀영고향집뜨락은 어린 나이에 자기 키를 넘는 보총을 메고 공화국으로 들어온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알고 참된 인생의 진미를 느끼며 걸어온 삶의 절정이기도 하였다.

시인은 크나큰 흥분속에 가사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옥은 다듬을수록 더욱 빛난다고 그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세상에 고성을 울리는 그 순간에 벌써 온 나라 군민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위인의 칭송의 노래와 더불어 그의 이름도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아직 마음껏 노래하지 못한듯 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을 하며 불타는 창작의 열정으로 낮과 밤을 지새웠다.

해바라기는 그 어디에 심어도 오직 태양만을 따른다.

그가 제1차 고향방문단차로 서울에 갔을 때의 일이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둘째아들이 오면 장가갈 때 주겠다고 장농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례장감을 꺼내주었다.

그것을 어루만지는 오영재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형제들은 오영재에게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는가고, 철없을 때 이 땅을 떠나간것이 이제 와서 후회되지 않는가고 물었다.

오영재는 단호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혈육들과 한지붕밑에서 화목하게 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남녘땅에 그냥 있었다면 삶의 좁은 울타리밖을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을것이고 더우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영영 모르고 한생을 마쳤을것이 아닌가.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그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진정한 고향은 장군님의 넓고 위대한 품이라고, 장군님의 품으로, 영원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오영재는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김정일**장군님이라고 부르군 하면서 형제들에게 꼭 **김정일**장군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는 꿈을 꾸어도 장군님을 찾았고 늘 자식들과 친구들에게도 그이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아래에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 손성모동지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

로당익장으로 언제나 활기와 정력에 넘쳐계시는 형님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살고있지만 형님이나 제가 혈혈단신이여서 서로 의지하며 여생을 장군님께 충정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

저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힘껏 일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 동생 영재 올림.》

이러한 작가였기에 그는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미구에 끝이 날 한생에 대한 걱정보다도 장군님을 위해 한편의 시라도 더 쓰지 못한것을 두고 안타까와하였다.

70고령의 생을 두고 짧다고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었던 그였지만 그때만은 꺼져가는 한초한초를 무척 아까와하며 가요 《조선의 힘》을 한자한자 완성해나갔다.

참으로 《조선의 힘》은 위대한 장군님을 선군조선의 하늘로 높이 모시고 받든 시인 오영재의 심장이 뿜어올린 시대의 명곡, 선군시대의 찬가였다.

하기에 오영재가 림종의 순간에 찾은분도 15년세월밖에 키워주지 못한 어머니가 아니라 60여년세월 자신의 생을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2011년 10월에 시인 오영재는 조용히 두눈을 감았다.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조선의 한 재사, 한 충신이 우리곁을 떠나갔다.

오영재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영재만 한 시인이 다시 나오겠는지 모르겠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 부고를 잘 써서 내며 장례는 기관장으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도록 해주시고 고인의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며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연까지 차려주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의 힘》뿐만아니라 오영재의 유고작들을 《로동신문》에 내도록 해주시고 유가족들에게도 대를 두고 전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시인 오영재!

그는 7천만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맡길 품은 과연 어디인가를 자신의 한생을 통해 밝혀준 참된 작가, 인민의 친근한 작가였다.

정을 다해 노래할 위인을 모시였고 재능을 깡그리 쏟아부을 위대한 품에 안겨 인생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행운아였다.

시인 오영재가 조국과 인민앞에 남긴 시는 무려 천여편에 달한다.

서정시들인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1963년), 《복수자의

선언》(1966년), 《사랑하는 조국이여》(1987년), 《어머니의 당부》(1988년), 《나의 발자욱》(1988년), 《세상에 오직 하나》(1988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전에》(1994년), 《조국이여 앞으로》(1994년)…

장편서사시들인 《철의 서사시》(1981년), 《대동강》(1985년), 《인민의 아들》(1992년)…

서정서사시 《아, 우리 수령님》(1984년)과 가사들인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1986년), 《사랑의 미소》(1989년), 《흰눈덮인 고향집》(1989년), 《백두의 말발굽소리》(1992년), 《장군님식솔》(1993년)…

시인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 오영재가 한생을 두고 창작한 시작품들은 명곡 《조선의 힘》과 더불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선군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갈것이다.

2. 어버이의 품속에서
화술계의 재사로

박　섭(영화배우)

- 1925년 11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출생.
- 해방후 서울에서 극단배우로 활동.
- 1951년부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로 활동.
- 2001년 10월 17일 사망.
-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배우.

조선혁명박물관의 《수령님과 전우관》에서 사람들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진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전하는 사연깊은 사진들을 보며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그 사진들가운데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배우들의 대사록음과정을 지도하시는 뜻깊은 사진도 모셔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우들의 록음과정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는데 그이를 모시고 록음작업을 하는 남녀배우의 얼굴에는 흥분된 기색이 력연히 떠돌고있다.

사진속의 남자배우가 바로 우리 인민들에게 《화술계의 재사》로 널리 알려진 인민배우 박섭이다.

사람들은 그 사진앞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저력있고 사색적인 특유의 화술로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던 박섭의 재능이 과연 어디에서 그렇듯 줄기차게 샘솟았는가를 심장으로 감득하게 된다.

불우했던 시절

망국노의 그 시절 박섭의 인생은 물우에 떠도는 개구리밥처럼 정처없이 흘러갔다.

그는 1925년 겨울 서울시 서대문구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온 식구가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수입에 기대여 근근히 연명해가는 형편이였다. 아침 한끼에나 겨우 밥이 차례지고 점심에는 아이들만 조금 먹었을뿐 어른들은 굶어야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콩나물죽이나 꾸어온 되박쌀로 끼니를 에우거나 그마저 없을 때에는 굶기가 일쑤였다.

박섭은 형이 그러했듯이 간신히 소학교를 마치는 길로 호구지책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얼음과자행상도 해보았고 고물장사군을 따라다니며 심부름노릇도 해보았으며 관청에 급사로 들어가 일본인관리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잡일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 타끓는 향학열만은 좀처럼 누잦힐수가 없었다. 요행 박섭이 15살 나던 해에 그의 처지를 동정한 동거집 아주머니가 자기의 옷을 저당잡혀 마련한 돈 20원을 내놓았다. 덕분에 그는 낮에는 급사일을 하면서

밤마다 상업실천학교 야간부를 다니게 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박섭은 고달픈 급사노릇을 면하고 토목조수가 되였지만 일본인관리들에게 당하는 천대가 지겨워 이내 관청일을 걷어치우고말았다.

그는 벌어먹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다. 외가친척들이 사는 강원도 통천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보기도 하였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술배급점에서 잡부노릇도 해보았다. 그런가 하면 형과 함께 자그마한 인쇄소를 차리고 인쇄공으로 일해보기도 하였다. 허나 일제통치하에서 그에게 차례지는것이란 어디 가나 민족적멸시와 노예의 굴욕뿐이였다.

1945년 8월초 저주로운 일제의 징병장이 박섭에게도 날아들었다. 패망에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의 단말마적발악으로 온 겨레와 강토가 참혹하게 란도질당하고있던 시기였다.

포악스러운 총칼에 떠밀리우며 사지판으로 속절없이 끌려가는 박섭의 낯빛은 원한과 절망으로 하여 시꺼멓게 죽어있었다. 억이 막혔다. 이대로 왜놈의 총알받이가 되여 이름도 모를 타향의 황량한 곳에서 무주고혼으로 썩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설음인지 공포인지 모를 그 무엇이 자꾸만 목구멍을 꽉 메웠다.

정녕 이것이 망국노의 피할길 없는 숙명이란 말인가. 억울하고 통분했다. 구만리앞날을 왜적들에게 고스란히 빼

앗기게 된 20살의 애젊었던 박섭은 식민지노예로 태여난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한탄하며 가슴을 쥐여뜯었다.

그런데 천길나락속에 빠져 몸부림치던 그에게 재생의 해발이 비쳐들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오시였던것이다.

동북의 열하지역에까지 끌려갔다가 뒤늦게야 그 소식에 접한 박섭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옛말에 범한테 다 먹힐번 했던 불쌍한 오누이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보내주었다더니 지옥에서 광명을 받아안은 자기들이야말로 그 오누이와 무엇이 다르랴싶었다. 걷잡을길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숨막히는 환희와 격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길로 왜놈병영을 뛰쳐나와 해방만세를 목메여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 두달만에 다시 밟는 조국땅은 재생의 흥분으로 뒤설레이고있었다. 너도나도 해방의 기쁨에 취해, 희망에 흥떠 어깨를 들썩거리며 뛰여다녔다.

박섭에게도 해방은 넘쳐흐르는 희열이였고 새로운 희망이였다.

태줄을 끊은 첫 순간부터 빈궁에 쫓기우고 압제에 신음하느라 청춘의 꿈조차 변변히 가져보지 못했던 그는 해방

조국의 하늘아래서 자기의 앞날을 가슴 부풀도록 꿈꾸었다.

그는 이미전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형의 영향을 받아 작가가 될 포부를 품었었다고 후날 추억하였다. 단지 형의 영향때문만이였을가? 그에 못지 않게 본인자신의 넋속에 잠들어있던 예술가적소질이 해방의 감격속에 깨여나 박섭을 예술창조의 길로 떠밀었는지도 모른다.

형을 따라 지방으로 간 그는 그 고장 청년들과 함께 예술소조를 뭇고 통천읍과 주변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그때는 연극이 퍽 류행이였던것 같다. 그들이 공연한 작품도 《황혼》, 《철쇄는 끊어졌다》 등의 단막극들이였는데 박섭은 주로 배우로 출연하였다.

하건만 그들의 공연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쁜 놈들이 공연을 방해해나섰던것이다.

박섭은 아연해졌다. 해방의 환희를 노래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불의를 타매하였는데 왜서 그네들은 그리도 못마땅해하는것인가? 세상이 바뀌였다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해방을 달가와하지 않고 정의와 광명을 두려워하는 어두운 무리들이 있다는것을 그제서야 그는 놀라움속에 깨달았다.

비록 첫걸음부터 좌절의 쓴맛을 보았어도 지방에서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배우로서의 자기를 처음으로 발견한

박섭은 자신의 소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배우가 되기를 열렬히 지향해나섰다.

그리하여 서울로 돌아온 그는 어느 한 연극에 림시출연하게 된것을 계기로 극단 혁명극장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박섭은 배우예술에 대하여 일정하게 터득하게 되였으며 황철, 박학, 태을민을 비롯한 당대의 이름있는 배우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인 연극창조에 뛰여들었다. 그가 오향문과 친교를 맺은것도 그 시절이였다.

기쁨과 희망으로 달아올랐던 남녘사람들의 가슴은 날이 감에 따라 점점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모든것이 이전 그대로였다. 일제총독부는 미군정청으로 간판만 바뀌여졌고 민족반역자의 대명사로 증오받는 친일경찰들은 친미경찰로 제복만 갈아입었다. 어제날의 반일애국자들은 미군정하에서도 변함없는 탄압의 첫째 과녁이였고 새우등처럼 굽어든 백성들의 등허리는 여전히 가난과 무권리에 무겁게 짓눌려있었다.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숙망도, 새 생활에 대한 열망도 미제의 횡포무도한 군화발에 부딪쳐 물거품마냥 꺼져버리고말았다. 게다가 반만년을 이어온 민족의 혈맥과 지맥마저 둘로 갈라지게 되였으니 희망을

짓밟히고 앞날을 도적맞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남녘의 곳곳에서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다시는 되풀이하고싶지 않은 식민지노예살이였고 결코 빼앗길수 없는 소중한 앞날이였기에 박섭도 주저없이 항쟁의 대오에 들어섰다.

형과 동무들의 영향밑에 조직에 망라된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단죄하는 삐라공작에 참가하였는가 하면 투쟁단체들의 예술소조도 지도하고 10월인민항쟁의 분화구였던 대구로 나가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미제와 매국노들의 파쑈광란으로 진보적인 극단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자 박섭은 1947년 8월 조직의 외곽예술단체인 극단 독립극장에 들어갔다. 그는 삐라공작과 남북총선거를 위한 련판장서명운동, 투쟁자금조달사업 등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계속 줄기차게 참가하였다.

후에 본인이 회상하였듯이 그 나날 박섭의 마음은 일구월심 북녘으로만 달려가고있었다. 절세의 위인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고 북으로 간 벗들의 반가운 희소식들에서 그토록 동경하는 새 생활을 그려보았다.

인민이 주인되고 겨레의 꿈이 꽃펴나는 북녘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삐라 한장을 붙이자고 해도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준엄한 투쟁의 길에 서슴없이 나설수 있었을것이다.

원쑤들은 북으로 쏠리는 남녘의 민심앞에 야수의 이발을 드러냈다. 온 남녘땅이 피와 곡성, 몸서리치는 살풍경으로 차고넘쳤다.

박섭의 집도 반동경찰의 주목대상이 되여 수시로 야간 습격을 당했다. 때로는 체포되여 옥고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숨어다니기도 하면서 그는 험난한 사선을 헤쳐가야 했다.

가증스러운 세월이였다. 남녘의 암울한 현실에 숨이 막히고 원쑤들의 참혹한 만행에 치가 떨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북으로만 향했다.

그리웠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는 북녘이 한없이 그리웠다.

박 섭

그 품에 안겨

드디여 그날이 왔다.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서울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굴레에서 벗어났던것이다.

비로소 참다운 해방을 맞이한 박섭은 자신의 희망이며 미래인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정의의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그는 전선지구경비사령부 문화공작대에 입대하여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과 해방지구들을 돌며 위문활동에 참가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매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엄혹한 선택의 시각에 박섭은 조금도 망설임없이 북행길을 택하였다.

결코 20대의 혈기때문이 아니였다. 사람으로 태여나 사람으로 살고싶은 인간된 존엄때문이였다. 험산준령이 막아서고 만리장벽이 가로놓여있어도 그리운 어버이에게로 달려가려는 자식된 본능때문이였다.

진정 그에게 있어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은 왜적의 총알받이로 값없이 사라질번 한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암흑속에서 방황하던 외로운 가슴속에 광명을 안겨주신 하늘같

은 은인이시였다. 그이이시야말로 온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주실 민족의 어버이이시라고 굳게 믿고있었기에 박섭은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연히 북을 향해 발걸음을 뗄수 있었던것이다.

비단 그만이 아니였다. 오향문, 허춘보, 김린욱, 권원한, 홍승학, 리정언, 김영규, 김수조, 왕선화를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북으로 들어왔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한생이 웅변으로 증명하였다.

천신만고의 시련을 이겨낸 끝에 마침내 그처럼 그리던 어버이품에 안긴 박섭은 꿈많은 청춘의 나래를 한껏 펼쳤다.

그는 1951년 3월 희망대로 국립영화촬영소(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전신)에 소환되였으며 예술영화 《또다시 전선으로》(1952년)에서 단역인 적군 중위역을 맡는것으로 영화배우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그후 그는 예술영화 《빨찌산처녀》(1954년)에서 적 장교역, 예술영화《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1956년)에서 지주역을 맡았으며 예술영화 《어랑천》(1957년)에서는 주역인 애국농민 장만호역을 맡아 형상하였다. 뿐만아니라 연극무대에도 출연하여 장막연극들인 《위대한 힘》(1958년)에서 지배인역, 《불사조》(1959년)에서 손의사역, 《붉은 선동

원》(1961년)에서 최진오역 등을 담당하였다.

공화국의 자애로운 손길은 박섭의 생활에 따뜻이 스며들었다. 1955년에 그가 전쟁시기 서울에서 들어온 처녀와 가정을 이룰 때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성심성의껏 결혼식을 차려주었고 신혼부부에게 아담한 살림집도 배정하여주었다.

1964년 12월 8일은 박섭의 인생에 영광의 첫 페지로 아로새겨져있다. 그가 꿈결에도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어버이를 처음으로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웠던것이다.

그날 몸소 촬영소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을 크나큰 감격과 환희속에 우러르며 그는 이 나라의 영화인된 사명감과 행복감을 가슴벅차게 느꼈다.

지난날 남녘에서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자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관심하는 영화무대에 내세워주시고 마음속에 한점 그늘이라도 남아있을세라 다심한 정으로 품어주시는 어버이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박섭은 영화창조사업에 진심과 열정을 다 바쳐갔다.

그는 예술영화 《량반전》(1964년)에서 군수역, 예술영화 《김정호》(1965년)에서 주인공역을 비롯한 여러 역들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기량을 더욱 련마해나갔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그가 형상한 역들가운데서 예술영화 《어랑천》과 《김정호》, 연극 《위대한 힘》과 《붉은 선동

원》에서 보여준 연기는 당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이 작품들에서 일정하게 연기수준을 보여준 그는 1966년에 제작된 예술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스승인 심일로역으로 등장하였다. 비록 단역이긴 하였지만 내성적이면서도 지조높은 민족주의자의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심일로》로 통할 정도로 일약 인기있는 배우가 되였다.

한 영화평론가의 말을 빈다면 마치도 그 영화를 위해 지금껏 배우생활을 축적해온듯이, 오직 그가 아니면 안될듯이 심일로의 역형상은 박섭에게 연분이라 할만큼 딱 들어맞았던것이다.

당시의 영화전문가들은 말하였다.

《물론 리종순의 문학이나 박학의 연출형상이 좋은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 문학과 연출형상 역시 추석봉이나 신동철, 차계룡이나 박섭과 같은 1류급배우들이 그렇듯 진지하고 실감있게 연기하였기에 력력한 광채를 뿌릴수 있었다.》

이때로부터 박섭은 연출가들의 뇌리에 지성도가 확연히 풍기는 인상으로 새겨져 늘 그러한 류형의 배역을 담당하게 되였다. 예술영화들인 《조국으로 돌아온 관오의 일가》(1970년)에서 주인공 김관오역, 《푸른 소나무》(1984년)에서

지체높은 민족주의자인 한세광역, 《교육자의 모습》(1988년)에서 주인공인 대학 부학장역 등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의 배우생활에서 이채로운 전성기는 번역영화배우로 활약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만한 문화정서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박섭, 오향문을 비롯한 화술에서 특기가 있는 여러 배우들을 번역영화창조사업에로 불러주시였다.

초기에 배우들은 외국영화이니만큼 그 나라의 말억양과 표현방식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나름의 생각에서 대사에 별난 억양을 붙이다나니 결국 우리 말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닌 얼치기화술이 되고말았다.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대사형상을 화면에 나오는 인물의 입놀림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영화해설을 영화를 연구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한 기초우에서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식 번역영화형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실로 앞이 확 트이는 가르치심이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그이의 예지의 빛발을 받아안으며 박섭은 다시금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남다른 화술기량을 소유할수 있은것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였다.

언제인가는 낡은 기량에 만족해있는 그를 간곡히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 언제인가는 배우들의 연기훈련을 보아주시며 대사형상의 귀중한 지침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던 위대한 스승의 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영화화술은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미감을 훌륭히 구현하게 되였고 박섭도 영화화술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할수 있지 않았던가.

절세의 위인의 높은 기대와 무한한 창조세계는 박섭을 비롯한 배우들을 뜨겁게 흥분시켰다. 그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형상의 지침으로 삼고 지칠줄 모르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자질과 관록을 나날이 쌓아나갔다.

그리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격동적인 그 나날에 번역영화화술부문에서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쟁쟁한 명배우들이 배출되였다.

능란하고 해학적인 해설로 유명해진 김창수, 웅글지면서도 코소리가 섞인 특색있는 화술로 대사를 귀맛이 있고 구수하게 형상한 고창길, 은근하고 위풍스러운 대사형상을 창조한 리근우와 류창하고 기름진 소리색갈의 김순호, 그런가 하면 령롱하고 정찬 목소리로 백가지 소리를 내는 백경

아며 은방울을 굴리는듯 한 우아한 화술의 김진완, 소름끼치는 마귀역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성격창조에서 특기를 보여준 엄미화…

그들중에서도 단연 쌍벽을 이룬 거장들은 박섭과 오향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기회에 화술에서 박섭, 오향문동무들을 따를 배우가 없다고, 자신께서는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다가도 이들이 번역해설한 영화를 보면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박섭은 오향문과 더불어 우리 식 번역영화화술을 창조한 1세로, 첫 공로자로 조선영화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다.

오향문이 《섬세성의 대가》라는 평에 어울리게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생활감이 강하게 화술형상을 창조하였다면 박섭은 대가 굵고 시원시원하면서도 저력있는 화술의 능수였다.

박섭의 화술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관중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불러일으키던 그의 설화들이다.

오향문이 《대사의 왕》으로 불리우고 김창수가 《해설의 왕》으로 불리웠다면 박섭은 《설화의 왕》으로 불리울 정도로 인상에 남는 훌륭한 설화형상들을 많이 창조하였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진지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색

적이면서도 감칠맛있게 펼쳐가는 박섭의 화술형상은 관중들로 하여금 비록 외국영화이지만 우리 영화를 보는듯 한 방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하였다.

박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인민배우 허춘보와 함께 우리 나라 영화들에서도 대부분의 설화를 맡아 형상한 이 분야의 로장이였다.

허춘보가 예술영화들인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푸른 소나무》, 《영생》의 설화들에서 무게있고 부드러운 형상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을 품위있게 안받침했다면 박섭은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예술영화들인 《민족과 운명》, 《이름없는 영웅들》들에서 보여준것처럼 무게있으면서도 구성지고 부드러우면서도 지성적인 설화로 관중들을 주인공의 내면세계에로 바닥없이 끌고들어가군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박섭은 얼굴보다도 목소리로 관중들의 마음속에 인상깊이 새겨진 화면뒤의 보이지 않는 배우이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연출가들이 보이지 않는 그의 《덕》을 톡톡히 보았고 영화의 성공을 위해 그의 《숨은 신세》를 지려고 은근히 왼심들을 썼다.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서 창조된 박섭의 설화형상은 수십여년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사람

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영화에서 나오는 설화시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밤따라 저 달빛은 나의 가슴에
왜 이리도 하많은 이야기 속삭여주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소리는
청류벽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여울물소린가
아니면 어린시절에 듣던
모란봉의 그 솔바람소린가
…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인 이 설화시는 원래 주인공역을 맡은 배우가 형상하기로 되여있었으나 영화의 형상적요구로부터 설화자에게 맡겨지게 되였다.

시형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리저리 모색하던 박섭은 처음에 흔히 시랑송을 하는 식으로 설화시를 읊으려 했다. 그런데 몇번 련습을 해보니 보통시랑송으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장면과는 동

떨어진 형상이 돼버리고말았다.

시의 심오한 세계에로 끌려들어감에 따라 감정이 점점 고조되여 저도 모르게 설화자의 목소리가 작중인물이 아닌 화술배우의 목소리로 되였던것이다. 단순히 시랑송이라면 그런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수도 있었겠지만 영화의 그 장면에서 설화시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내면독백으로 울려나와야만 하였다.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던 박섭의 뇌리에 배우는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게,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게 말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 파악하고 진실하게 체험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새벽해빛마냥 비쳐왔다.

훌륭한 화술은 배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예술적자질이라고 하시며 그 방도들까지 환히 밝혀주신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마침내 박섭은 새로운 형상방도를 찾았다.

그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을 가슴속에 묵묵히 간직해야만 하는 적후정황에 맞게 설화시가 주인공의 내면독백으로 관중들의 심장에 울려퍼지게끔 조용하면서도 절절하게 시를 읊어나갔으며 그리하여 영화장면에도 맞고 주인공의 심리감정과도 완전히 밀착된 사색적인 화술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섭동무가 설화시를 아주 잘 읊었다고, 시인이 시도 잘 썼지만 박섭동무가 형상을 아주 잘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감동적인 영화장면과 조국애가 굽이치는 시의 구절구절들이 설화자의 세련된 화술형상으로 안받침된것으로 하여 설화시는 나오자마자 관중들의 애송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박섭의 본을 따 그 시를 즐겨 읊조리고있다.

이렇듯 박섭은 로숙하고 들을 맛 있는 설화형상으로 수많은 영화들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돋구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사람들을 작품세계에로 친근하게 안내해주었다.

화술배우로서의 그의 개성을 론할 때 무엇보다 이야기되여야 할것은 화술형상에서 격조높은 웨침보다도 내면적인 감정표현을 위주로 한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비유하면 굴곡이 심한 상류계곡의 물흐름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드는 큰강의 하류와도 같았다고 할가. …

박섭은 특히 대사와 설화를 보다 사색적이고 정서적으로 형상하는데 신경을 쓴 배우였다.

언제인가 TV에서 김상오의 시 《나의 조국》을 리단과 박섭이 각각 랑송한 두개의 편집물을 방영한적이 있었다. 세

상에 널리 알려진 서정시였지만 화술계의 두 거장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랑송한것으로 하여 두 편집물이 보여준 맛과 색갈은 서로 달랐다.

리단의 시랑송이 격조가 높고 기백이 강한, 강약이 뚜렷하면서도 류창한 색갈이였다면 박섭의 시랑송은 강약은 뚜렷치 않았어도 유유히 흘러가는 대하처럼 저력있고 웅글진, 소박하면서도 사색적인 색갈이였다.

박섭은 또한 화술에서 우리 말을 정확하고 부드럽게, 구수하게 형상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청각을 자극함이 없이 그 감정세계에 자연히 끌려들도록 한 배우였다. 그의 화술은 항상 말의 높낮이와 력점을 정확하게 찍은것으로 하여 아무리 긴 대사나 설화를 단숨에 형상해도 관중이 쉽게 알아들을수 있었다.

친화력을 자아내는 그의 화술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오늘도 사람들은 생전에 그가 록음한 설화와 대사들을 들으며 과연 박섭이야말로 화술계의 거목이였고 재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군 한다.

그러면서도 생의 말년까지 시들줄 몰랐던 그의 재능이 얼마나 은혜로운 품속에서 꽃펴난것인가 하는것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다.

영원한 어버이품

1971년 5월 하순 어느날 새벽 2시경이였다.

촬영소 록음실에서 대사록음을 하고있던 박섭은 갑자기 웃배에 심한 아픔을 느끼며 괴로워하다가 쓰러지고말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그에게 의사들은 위동맥파렬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내렸다.

생명을 위협하는 급병이여서 할수 있는 응급치료를 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끝내 환자의 심장이 멎고 더는 손을 써볼 여지가 없게 되자 의사들은 손맥을 놓고 죽음이라는 의학적선고를 내렸다.

박섭의 실낱같은 숨결마저 사라진지 5시간이 지나서 촬영소의 책임일군은 그 사실을 위대한 장군님께 전화로 보고올렸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다가 어제까지도 일하던 동무가 그렇게 되였다니 무슨 말인가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예술인을 아끼시는 마음이 오죽하시였으면 현대의학이 선고한 죽음까지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였으랴.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알리는가고 일군을 나무라시고나서 그 사실을 아무리 믿을래야 믿을수 없으니 다시 가보고 알리라고 이르시였다.

병원에 와서 백포를 들고 박섭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일군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박섭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끊어질듯말듯 그의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있었다.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불꽃을 발견한 병원에서는 비상소집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자의 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를 살려내기 위한 긴급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렇게 되여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보다 난감한 고비는 앞에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당장 수술을 해야 했건만 심한 장출혈로 혈압이 거의 령상태이고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에게 누구도 선뜻 수술칼을 댈념을 못하였던것이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박섭의 상태를 알아보시면서 수술을 시작했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일군이 형편을 그대로 말씀드리자 환자의 생명은 자신께서 보증할테니 대담하게 수술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혈혈단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환자의 친부모가 되시여 몸소 생명을 보증해나서신 그 숭고한 사랑에 의사들은 격정을 삼키며 마침내 수술칼을 잡았다.

수술이 시작된 다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시로 수술과정을 료해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수술은 5시간만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참으로 그것은 사랑의 힘이 낳은 기적이였다.

소생후 침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섭은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당시 촬영소 의상사로 남포에 출장을 갔다가 뒤늦게 달려온 안해에게 그는 장군님의 배려가 아니였더라면 자기는 살기 힘들었을거라고,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게 옛날일거라고 눈물겹게 외웠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섭이 수술후 치료를 받을 때에도 그의 몸상태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시면서 귀중한 보약들을 거듭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그가 드디여 병원을 나설 때에는 너무도 기쁘시여 퇴원축하모임까지 마련해주시고 경치좋은 곳에 휴양도 보내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그이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던 장엄한 시기였다.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을 비롯한 문학예술혁명의 전반을 지도하시는 그렇듯 분망하신 속에서도 반년간에 걸쳐 진행된 한 예술인의 치료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에서 박섭은 사랑과 헌신으로 고동치는 어버이의 열렬한 심장을 보았다.

철들기 전부터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일찌기 위병을 얻은 그에게 어머니는 헤여지면서 소다 한봉지밖에 쥐여주지 못하였다. 그러한 어머니가 천만부모들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품에 아들이 안겨있다는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감격해했으랴.

박섭에게 부어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져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섭동무가 대사형상을 특색있게 잘한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큰 대회의 대표명단에도 친히 그의 이름을 써넣어주시고 공훈배우칭호와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1992년 4월에는 **김일성**상계관인의 높은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면 몸상태부터 알아보시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몸을 잘 돌봐야 한다고 따뜻이 당부하군 하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언젠가 어느 한 영화의 작업필림을 보아주시다가 화면에 스치는 박섭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고는 그의 얼굴이 왜 저렇게 축갔는가고 무척 가슴아파하시며 귀한 보약까지 보내주시였다.

1996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입원치료를 받고 나온 박섭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그의 건강상태를 다정히 물어주신 장군님께서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며 70살이 넘었지만 아직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사업에서 제기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다 제기하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박섭이 제기할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왜 없겠는가고, 그러지 말고 제기하라고 거듭 이르시였다.

그날 걸리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대책까지 취해주시고나서야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고 미덥게 말씀하시며 전화를 놓으시였다.

자식이 로약해질세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려는 어버이의 진정이 담겨진 전화였다.

정녕 이렇듯 웅심깊은 사랑의 품속에 박섭이 안겨살았다.

빛의 소중함은 암흑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수십년간이나 갈라져있던 혈육들과의 상봉을 통해 박섭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할수가 있었다.

그의 형제는 6남매였다. 맏형은 전쟁시기에 의용군으로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두 남동생과 두 녀동생이 부모들과 함께 고향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1991년 4월초 미국에서 살고있던 남동생이 둘째형인 박섭을 만나보려고 공화국으로 찾아오게 되였다.

어느 기회에 우리 나라 예술영화 《림꺽정》을 보던 그 동생은 자막에서 전쟁전 형과 같이 연극을 하다가 북으로 간 낯익은 한 배우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길로 공화국에 편지를 써보내여 형의 소식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꿈만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박섭은 창광산려관에서 홍안의 시절에 헤여졌던 동생과 마주섰다.

틀림없는 동생 병규였다. 어렸을적에 동생이 배고파 울때마다 밥대신 노래를 불러 잠재우군 하던 일이 떠올랐다. 입학시험을 치러 갔다가 떨어져 온 동생에게 꾸지람을 하던 일도 어제런듯 삼삼히 밟혀왔다.

형제는 목메여 찾고 부르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눈물속에 들려주는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박섭은 40여년만에야 처음으로 부모형제들의 소식을 알게 되였다.

전쟁때 박섭과 헤여진 후 그의 어머니는 많은 식솔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작은딸 병옥을 데리고 떡장사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골병이 들어 큰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까맣게 기다리며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말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것이였다.

화는 연거퍼 들이닥쳤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고역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하반신마비에 걸렸고 그렇게 되자 불구인 큰딸마저 절망에 빠졌던것이다.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먹여주고 부축해주던 어머니가 돌아가고 집안의 《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비관한 그는 결국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눈을 감고 말았다.

병규는 피눈물을 머금은채 아버지만은 살려내려고 가장집물을 팔고 나중에는 많은 빚까지 내여 병원에 다니였으나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그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우인 처녀와 결혼하여 안해와 함께 아버지를 구완하였지만 종시 아버지도 한많은 세상을 떠나버렸다.

량부모와 누이를 잃고난 병규는 먹고 살기 위해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아득바득 애를 썼지만 고달픈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숨가쁘게 그를 압박해왔다. 별수없이 동생은

살길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였다. 하건만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도 그는 실업자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은 타향살이에 지친 동생의 마음을 더욱 서럽게 하였다.

시집을 갔다가 자식이 생기지 않아 본가로 되돌아왔던 병옥누이가 막내동생에게 부담을 끼칠수 없다면서 혼자 살다가 중병에 걸려 외로이 숨을 거두었다는것이 아닌가.

혈육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전해듣는 박섭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묘자리를 마련할 돈이 없어 부모님들의 시신조차 묻지 못하고 화장하여 집뒤산에 뿌리지 않을수 없었다는 동생의 기막힌 이야기에 그는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통분함을 삼키며 스스로 물어보았다.

(살아도 살 곳 없고 죽어도 묻힐 곳 없는 남녘땅에 그대로 머물러있었더라면 과연 나의 운명은 어찌되였겠는가?)

필경 이미 오래전에 부모들이나 동생들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하거늘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들의 운명은 얼마나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가.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형의 살림집에 들어서서 부러움과 감동을 금치 못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박섭은 다 쓰러

져가는 산비탈의 오막살이집에서 물때문에 그리도 애를 태우던 어머니를, 수도물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것이 평생소원이라고 외우군 하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죄스러웠다. 부모형제들과 함께 북으로 오지 못한것이 더없이 한스럽고 후회막심하여 박섭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제대로 눈을 붙일수가 없었다.

그후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그해 8.15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의 한 성원으로 서울에 나가 막내동생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가 안겨사는 품이 얼마나 은혜로운 품인가를 더더욱 사무치게 느끼였다.

진정 그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생각할수 없는 자신의 삶이였기에 그는 이 땅우에 살면서 그토록 고마움의 눈물을 많이 흘린것이 아니겠는가.

심장으로 하는것이 예술이다.

박섭의 안해 김옥경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늘 가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군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마이크앞에서 죽겠다고 몇번이나 되뇌였다고 한다.

언젠가 밤늦게 집에 돌아온 박섭이 자는 아이들까지 깨

워 자기의 손을 보여주며 장군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셨댔다고 흥분에 겨워 자랑하였다는 일화를 통하여, 어느 한 자리에서 《육체적인 로쇠는 있을는지 몰라도 아마 목소리만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려는 나의 정신과 함께 힘있게 울릴것》이라고 말하던 열망에 넘친 토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가슴속에 맥맥히 끓어넘치던 불같은 보답의 심정을 후덥게 느끼게 된다.

열백번 다시 태여난대도 못다 갚을 어버이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그는 한생이 다하도록 인민들의 기억속에 길이 남는 화술형상을 창조하는 길에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수 있었던것이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재능이란 없는 법이다. 설화에선 박섭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두드러졌던 그의 재능도 따지고보면 피타는 탐구와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부지런한 독학가였다. 자습으로 일어와 영어를 습득했고 예술창조로 바쁜 속에서도 이틀에 한권씩 소설책을 독파하였다고 한다. 평소에 그렇듯 꾸준한 노력으로 체득한 지식은 그의 넋속에 슴배여있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샘솟아나오군 하였다.

박섭은 매번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에 대하여 인간으로

서, 예술인으로서 모든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였다. 마치 그 영화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작품이기라도 한듯이.

그는 이에 대하여 자기가 그 작품에 출연하고 죽을지도 모르지 않는가고 웃으며 굼땠지만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그의 놀라운 책임성과 열정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한 기풍은 박섭의 예술활동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그가 외우군 하던 말이 있다.

《인생뒤에 인생이 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 인생이 끝난 뒤에 내려진다는 의미였다.

오늘도 새 세대들은 그의 말을 전해들으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조국과 시대에 바치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책임적이였던 한 예술인을, 그처럼 예술앞에서 진지하였고 성실하였고 량심적이였던 박섭, 오향문 등을 존경을 담아 추억하군 한다.

박섭은 단지 자신만 노력한것이 아니라 말없는 실천과 실력으로 집단을 이끌어나간 이신작칙의 일군이였다.

그는 창작집단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면서도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대사록음의 절반이상을 맡아하였다. 이름있는 녀배우이며 화술배우였던 김선영도 행정일군은 그런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박섭을 퍽 존대하였다고 한다.

종종 박섭은 배우들의 대사록음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때도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을 보면 버릇처럼 입에서 한숨소리가 새여나왔다.

《어휴휴휴… 좀 대본연구허시우. 연구허구 들어오시우. …》

워낙 과묵한 그였던지라 긴말은 더 없었지만 배우들은 로장이 내쉬는 한숨소리에서 예술은 량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준절한 질책을 듣군 하였었다.

허나 그렇게 요구성이 높은 그도 제기되는 의견이 정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린 사람의 말일지라도 《어 그럴가, 그렇지.》 하며 성근하게 받아들이는 허심함과 겸손성을 지니고있었다.

박섭의 안해는 남편에 대해 《말이 없고 무게가 있고 난대로 있는 사람이였다.》고 회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섭과 오랜 기간 함께 있은 사람들은 그를 두고 걸보기엔 말이 적고 과묵해보여도 알고보면 이따금씩 우스운 소리도 곧잘하는 성격이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인민배우 백경아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결코 뚝박새가 아니라 유모아가 바글바글하고 내적감정이 약동하는》 다감한 인간으로 동지들과 혈육들의 추억속에 새겨져있다.

2001년 10월 17일이였다.

어느 한 영화의 화술형상을 맡았던 한 배우에게 갑자기 부득이 한 사정이 제기되자 박섭은 스스로 그 역을 맡아나섰다.

방금 입원치료를 받고 나와 아직 몸이 추서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영화를 하루빨리 완성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주저없이 그 역형상에 달라붙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쩐지 발음이 잘되지 않았다. 몹시 불편해하는 그를 보고 함께 록음하던 배우들이 좀 쉬라고 거듭 만류했다.

웬간한 사람 같으면 아픈데 후에 보자고 미루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긴장한 창조활동을 벌렸다.

박섭은 퇴근시간이 퍽 지난 뒤에도 혼자 남아 자기의 대사록음이 잘 안된 장면들을 밤늦도록 다시 돌려보면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놓고서야 흐릿해지는 의식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날의 영화는 그가 형상한 마지막영화였고 영화에 록음한 박섭의 목소리는 그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박섭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던 예술인을 잃은것이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괴로움이 내려가지 않으시여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자신의 잊을수 없는 전우들과 나란히 내세워주시였다.

2002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자리에서 박섭에 대해 회억하시면서 우리 나라 영화사에 새겨진 그의 공로를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부모는 자식을 땅에 묻는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다. 정녕 위대한 어버이의 마음속에는 떠나간 자식들이 없었다.

복중에 복은 사람복이고 사람복중에 사람복은 부모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할진대 이 세상 천만부모복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크나큰 수령복, 어버이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인민인가.

박섭이 세상을 떠난지도 10여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원한 삶의 어버이품을 목메여 노래하며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뜨겁게 메아리쳐오고있다.

3. 무대와 함께 영생하는 삶

태 을 민(연극 및 영화배우)

- 1916년 11월 6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생.
- 해방전 서울동양극장과 여러 극장들에서 연극배우로 활동.
- 해방후 서울예술극장 연극배우로 있다가 1948년에 공화국으로 의거.
- 1948년부터 국립연극극장, 평양극장 배우로 활동.
- 1968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1969년 5월 10일 사망.
- 인민배우.

사람들은 태을민이라고 하면 조선예술영화 《흥부전》에서 나오는 놀부부터 생각한다.

돈이 아까와 부모의 제상에 종이《음식》을 올려놓는 불효자식, 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재산을 독차지하고 마음씨 착한 동생을 빈몸으로 내쫓는 패덕한, 《보은박씨》의 도움으로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생이 심술나서 고의적으로 제비의 다리를 꺾어놓았다가 그 제비가 물어온 《보수박씨》의 징벌을 받는 인간…

선한것을 사랑하고 악한것을 증오하는것은 인간의 고유한 성정이다.

놀부가 얼마나 미웠던지 사람들은 그 역을 수행한 배우마저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태을민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태을민의 맏딸 태지애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지만 난 그때 학교에 가기 싫어했답니다. 학교정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동무들이 <놀부딸>이라고 막 놀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놈의 놀부역을 그만두지 않으면 학교에 안 갈래.> 하고 엉엉 울군 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을민이 1960년대초에 벌써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받은 재능있는 예술인이라고 하면 아마 놀랄수도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예술영화 《내 고향》의 지주역으로부터 시작하여 20여년간의 배우생활경력에서 열에 아홉은 부정역을 하였기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영화나 연극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긍정주인공역을 한적도 없고 주로 부정역을 한 그가 어떻게 되여 인민배우로 될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은 태을민의 생애를 전하려고 한다.

무대와의 인연

해방전 서울동양극장에서 있은 일이다.

어느날 연극이 한창인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연극에서 두부장사군역을 맡은 배우가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였던것이다.

연출가의 길쑴한 얼굴이 비구름을 머금은 하늘처럼 컴컴하게 질렸다.

두부장사군역이란 비록 비맞는 시늉을 하며 무대를 지나가는 단역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장면이 빠지면 공연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제가 그 역을 하겠습니다.》

그는 극장에 들어온지 고작 한해밖에 안되는, 그나마 연극배우가 아니라 대본필사공으로 일하는 19살의 평범한 청년이였다.

연출가는 급한 모퉁이를 한몸으로 막아나선 그 호호탕탕한 의기가 눈물이 날만큼 고마웠으나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꿩대신 닭이라도 써야 할 형편이지만 얼굴생김새나 몸가짐이 별로 남다른데 없어보이는 그에게 자칫하면 극단의 운명과 이어질수도 있는 두부장사군역을 선뜻 맡길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청년의 불같은 제기였다.

그 찰나 배우들이 약속이나 한듯 초조한 눈길로 연출가

를 바라보았다. 두부장사군이 출연할 시각이 닥쳐온것이다.

(이젠 할수 없지.)

연출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청년은 제꺽 의상을 갈아입고 분장까지 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대밖으로 와당탕 뛰쳐나가는것이였다.

모두 아연해하였다. 당장 출연해야겠는데 도대체 어쩌자는건가?

잠시후 청년은 큼직한 호박잎사귀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건 뭔가?》

연출가의 물음에 청년은 싱긋 웃었다.

잠시후 청년은 그 의문을 그림자마냥 달고 무대로 나갔다.

《두부사시오! … 두부사시오! …》

제법 구성지고 늘어진 웨침소리, 우산대신 머리우에 올려놓은 싱싱한 호박잎사귀, 비물이 고인 《웅뎅이》를 훌쩍훌쩍 뛰여넘는 우습강스러운 몸가짐…

《두부사시오! … 입에 넣기만 하면 슬슬 넘어가는 두부사시오!》

조용하던 관객속에서 폭소가 터졌다.

숨을 죽이고있던 연극단성원들도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성공이다!》

그동안에 연기를 마친 청년은 유유히 무대밖으로 사라졌다.

연출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그야말로 한뉘 무대우에서 살아온 관록있는 배우들도 감탄할 멋진 연기였다.

호박잎사귀에 대한 착상도 기발하였고 목소리와 행동거지도 나무랄데 없었다.

(어떻게 그한테 그런 재간이 있었을가?)

불현듯 얼마전에 목격하였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대본을 가진 필사공이 없어져서 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는 왕청같이 극장관람석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우들의 연기훈련을 보고있었다.

그가 바로 두부장사군역을 대신한 청년이였다.

그때는 그저 배우들의 연기가 재미있어 구경한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결코 그런것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천부적이라고 할만 한 연극배우의 재능이 있었던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넝쿨에서 호박이 저절로 굴러나온셈이

였다.

(음, 이름이 중배라고 했던가?!)

그렇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중배였다.

그러나 후날 그는 운명의 소용돌이속에서 본래의 이름을 태을민으로 바꾸게 된다.

다음날 연출가는 배우들을 모여놓고 김중배가 정식 연극배우로 되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순간 중배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아,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던가?)

감회에 젖은 그의 눈앞으로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김중배는 1916년 11월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계수리공가정의 넷째아들로 태여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서울 남대문동의 한 시계점에서 시계수리공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회중시계가 류행이였으므로 시계수리공의 월급은 일반로동자들보다 높았다.

중배가 태여나던 때만 하여도 어머니는 늘 배고픔과 싸우고있는 자식들의 밥그릇에 강냉이밥일망정 무드기 담아주군 하였었다.

그랬으나 영원할것만 같던 그 《호시절》은 해빛을 받은

아침이슬처럼 서서히 사라지고말았다.

시계수리란 보통 정밀한 작업이 아니다.

눈에 확대경을 대고 깨알같은 치차와 유사를 아이들손가락처럼 가늘고 작은 나사틀개로 돌리고 풀고 하는데 온종일 일하고나면 눈알이 금방 쏟아지는것 같고 신경은 잡아당긴 활시위마냥 팽팽해진다. 게다가 간혹 실수로 시계부속품을 잊어먹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직업이 고약해서 그런지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꼭꼭 술집에 들리군 하였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들이킨 술에 고주망태가 되여가지고 비틀비틀 집에 들어서는것이였다.

그렇다고 아버지더러 술을 그만하라고 충고하는 자식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올방자를 틀고앉으면 갈데없이 지엄한 가장인데다 아버지의 손재간에 명줄이 달린 가족들인지라 누구도 감히 이래라저래라할수 없는것이였다.

중배는 청운공립보통학교를 겨우 마친 뒤 아버지에게서 짬짬이 배운 기술을 밑천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시계점에 수리공으로 들어갔다.

그는 눈썰미있고 일손이 여물어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계수리의 리치를 인차 깨달았으며 남의 자전거를 빌려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이동봉사도 하며 이악스레 일하였다.

어느덧 첫 월급을 타는 날이 왔다.

그날 시계점주인은 기대와 우려가 엉킨 착잡한 심정을 안은채 꼼짝않고 서있는 중배의 손에 3원을 주었다.

그것은 배움의 희망을 포기한 그가 육체를 혹사한데 대한 넉넉치 못한 보상이였다. 또한 쌀과 소금, 신발을 살수 있고 가정에 기쁨을 안겨줄 소박한 자본이기도 하였다.

돈을 쥔 중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와 함께 심장도 성나서 내닫는 말처럼 마구 높뛰였다.

제손으로 번 돈이 너무 신기하고 소중해서 몇번이고 세여보던 그는 품속에 찔러넣고는 집으로 달려갔다.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어머니는 살같이 날아든 아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중배는 의기양양해서 돈을 꺼내주었다.

《어머니, 월급탔어요!》

《어이구, 네가… 용쿠나!》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눈굽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렇지 않으랴. 한창나이에 만년필대신 시계수리도구를 들고 고장난 시계와 씨름질하는 아들이였다.

더구나 그무렵 남편이 목덜미가 뻣뻣하고 몸중심을 제대

로 가누지 못하는 증상(후날 그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으로 시계점에서 쫓겨나 집에 들어온지라 14살밖에 안된 막내자식에게까지 가정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모성의 심정으로써는 아들이 대견하기는커녕 측은해보였던것이다.

그 심정을 알리 없는 중배는 물 한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나서 뭔가 말할듯말듯 하다가 그만두었다. 실은 밥이 다 되였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느날도 아니고 첫 월급을 타온 날에 밥재촉을 하기가 어쩐지 멋적었던것이다.

방에 들어간 그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다음달에는 일을 더 많이 해서 약도 사고 집살림에 보탬을 주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착한 결심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며칠후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친 형이 집에 돌아왔는데 막내동생이 왜놈시계점에 다닌다는것을 알자 펄쩍 뛰더니 다시 나가면 다리를 분질러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은것이다.

감옥생활을 하면서 왜놈들에 대한 울분이 머리끝까지 들어찬 맏형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계점에 나가지 않으면 당장 가정의 호구지책이 문제였다.

그는 부친의 소개로 조선사람이 운영하는 시계수리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중배의 말쑥하던 코밑에 시꺼먼 수염이 나오고 골격도 사내답게 큼직큼직해졌다.

그무렵 그에게는 한가지 이상한 재간이 생겨났다.

사방으로 벌이를 떠났던 형제들은 저녁이면 모여앉아 하루동안 있은 일을 주고받군 하였는데 그중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중배의 이야기였다.

그는 시계를 찾으러 왔던 거만한 신사며 새침한 아가씨의 흉내를 곧잘 냈는데 어찌나 신통하였는지 형들은 물론 온종일 얼굴의 주름살을 펴지 못하던 어머니마저 허리를 그러안고 웃었다.

어느날 밤 중배가 시계수리를 하던중 부속품을 잊어먹고 방바닥을 쓸고 불고 하는 흉내를 내여 형제들을 한바탕 웃기고난 뒤였다.

둘째형이 《아무래도 넌 연극배우가 맞을것 갈구나.》하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중배는 동료들한테서 종종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군 하였었다.

그자신도 앞으로 연극배우가 될 생각이였다.

사실 그는 어머니한테 월급을 바칠 때면 다른것은 몰라도 연극관람표를 살 돈만은 달래고싶은 소박한 욕심이 불쑥

불쑥 솟구치군 하였다.

《그럼, 나 연극배우될가요?》

절반은 진담이고 절반은 롱담인 중배의 말에 과잉반응한 것은 맏형이였다.

《그따위 연극이 뭐가 좋아서 그래? 싹 그만둬.》

방안의 공기가 한겨울의 시내물처럼 얼어붙었다.

맏형이라는 혈연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페인이 되여버린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지위로 보아도 그의 말은 곧 법이였다.

대번에 주눅이 든 형제들은 슬금슬금 이부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다.

중배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정말이지 연극배우가 되고싶었다. 설사 당장 죽는다고 해도 무대우에 한번 서보기만 하면 한이 없을것 같았다. 물론 맏형의 눈에는 연극이란 관객들앞에서 웃고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울고싶지 않아도 울어야 하는 광대노릇으로 보일것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상에 연극처럼 고상한 예술은 없다.

그날 밤 중배는 꿈에서 연극배우가 된 자기를 보았다.

북이 둥둥 울리는 속에 무대우로 서슬푸른 검을 비껴든 장군이 달려나온다.

그는 좌충우돌하며 달려드는 왜적을 삼대베듯 쓸어눕힌다.

적들이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난다.

어깨를 들썩이며 통쾌하게 웃고있는 장군.

어느덧 장군의 모습은 자기 김중배로 바뀐다. …

갑자기 누군가 엉뎅이를 철썩 갈겼다.

깜짝 놀라 깨여나보니 맏형이 눈을 지릅뜨고있었다.

《곱게 잘게지 왜 몸은 들썩거리는거냐?》

중배는 얼얼한 엉치보다 꿈이 깨여진것이 더 아쉬워 입을 다시였다.

그가 황금상회에서 로동자로 있던 어느해 4월이였다.

그날 아침 소학교동창생이 찾아왔다.

《중배, 동양극장에 대본필사공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잠시 생각을 굴리던 중배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음, 들어가겠네.》

처음은 필사공, 그 다음 연극배우로 되려는것이 그의 계획이였다.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란리가 일어났다.

맏형은 성난 호랑이처럼 펄펄 뛰였고 맏형 몰래 극장구경값을 쥐여주던 어머니마저 막내아들을 만류했다.

중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장부 18살이면 세상을 한번쯤 굽어볼만 한 나이다. 남이장군은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고 하였는데 래일모레면 스무살의 대장부가 맏형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는단 말인가.

그 일로 중배는 맏형과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후 어머니가 어떻게 설복하였는지 맏형이 중배를 불렀다.

《이미 말했지만 난 연극배우라면 질색이다. 하지만 대본필사공이라니 참겠다.》

중배는 내친김에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맏형, 난 정말 연극을 하고싶어요.》

간절한 빛이 어린 동생의 두눈을 본 맏형은 금시 쏟으려던 욕설을 꿀꺽 삼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정말 연극배우가 될수 있다면 어디 증명해보렴.》

중배는 너무 기뻐서 환성을 지를번 하였다.

그처럼 엄하던 맏형에게 반승낙이라도 얻어냈으니 일은 떼놓은 당상이였다.

한편 걱정도 없지 않았다. 자기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신없었다.

중배는 동양극장 대본필사공으로 들어갔다.

막상 극장에 들어가보니 말이 대본필사공이지 막심부름

군이나 다름없었다. 무대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의례히 동원되여 땀을 뽑아야 하고 또 지방순회공연을 떠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따라다녀야 하였다.

그속에서도 그는 연극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짬만 있으면 배우들의 연습을 주의깊게 관찰하였고 조용한 곳만 있으면 나름대로 연기를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던중 예견치 않은 두부장사군역을 한 덕에 정식 연극배우가 되였던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준셈이였다. …

김중배는 맡은 역을 잘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것을 말해주는 한가지 일화가 있다.

그가 어느 한 연극에 단역배우로 출연했을 때였다.

그날 중배는 어리광대역의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머리에 엿을 바르고 출연하였다.

한창 흥이 나서 연기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껍진껍진한 액체가 흘러내리는것이 아닌가.

《?!》

그날따라 날씨가 어찌나 무더운지 그만 엿이 녹아내렸던것이다.

(야단났구나!)

어느덧 죽처럼 묽어진 엿물은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번번하던 얼굴은 엉망이 되여버렸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였다.

금시 무대우로 야비한 휘파람소리, 걸죽한 말소리들이 날아드는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젠 다 쑤어놓은 죽이니 별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엿물이 그냥 떨어졌지만 연기를 계속하였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지금껏 해온 신파적인 연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형상의 세계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관객속에서 요란한 박수소리가 분수처럼 터져올랐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였다. 배우의 연기에 감동된 사람들의 꾸밈없는 찬탄이였다.

《!》

비로소 중배는 자신에게는 그처럼 난감하기 그지없었던 정황이 관객에게는 오히려 진실한 연기로 감수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마지막까지 연기를 마친 그는 그칠줄 모르는 박수속에 퇴장하였다.

동료들이 몰려와 성공한 연기를 두고 떠들썩하였지만 중배는 엿물로 얼룩진 얼굴을 지울념도 않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렇다. 오직 진실한 연기만이 관객들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다!)

당시 연극배우들은 관객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신파적연기에 매달리고있었다.

선배들의 영향을 받은 중배도 연기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우연적인 실수가 가져다준 교훈은 심각하였다.

아마 수십여년간에 걸친 그의 배우생활과정을 줄기차게 관통한 연기의 진실성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그때부터 생겨난것인지도 모른다.

그후 김중배는 중앙무대, 극예술연구회, 랑만좌, 조선무대, 꼴롬비아악극단, 아랑극단 등을 전전하면서 배우생활을 하였다.

그 시기 그는 《춘희》, 《지열》, 《눈먼 동생》, 《김삿갓》, 《콩쥐팥쥐》 등 수십편의 연극에 출연하였다.

특히 아랑극단에 있을 때 후날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유명한 배우들인 황철과 리단, 문정복 등과 연극 《물새》, 《칭기스한》, 《동학당》, 《왕자

호동》 등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창조과정은 얼음우에 박밀듯 무난히 흘러간것은 아니였다.

당시 일제는 연극에 대한 검열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였고 그 내용이 조금만 민족적색채를 띠기만 하여도 가차없이 공연을 중지시켰다.

중배가 아랑극단에 있을 때만 해도 단장인 황철은 쩍하면 왜놈들에게 불려다녔는데 그가 침울한 얼굴로 돌아오면 다음날부터 배우들은 굳게 닫긴 극장문앞에서 한숨을 내쉬군 하였다.

김중배는 그늘속의 봉선화마냥 생기없는 연극의 운명을 두고 통탄하였다.

마침내 재생의 봄을 안아온 력사적인 8.15해방의 날이 왔다.

중배는 극단배우들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가 해방만세를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불렀다.

그날 그가 친형처럼 따르는 황철은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중배, 우리 이제부턴 마음껏 연극을 해보자구.》

중배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머지않아 그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것인가를 깨단

게 되였다.

9월 어느날 중배는 숱한 사람들이 광고판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미군정을 실시할데 대한 맥아더의 포고였다.

《…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륙군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선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머리가 몽둥이에 얻어맞은것처럼 땡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미국을 《해방자》로 알고있었다. 그런데 《점령》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뿐이 아니다. 포고문 제2조의 내용도 의문을 자아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조선에 남아있는 왜놈들과 친일파들이 해방된 이 땅에서도 계속 활개치며 살수 있다는것이다.

가슴속에 의혹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웠다.

(정말 미국이 《해방자》가 옳긴 옳은가?)

날이 갈수록 미국에 대한 환상은 깨여지고있었다.

미국은 일제시대와 다름없이 조선의 민족문화를 가혹하게 유린말살하였으며 진보적인 예술인들의 활동을 무참히 탄압하였다.

한편의 연극작품때문에 연출가, 배우들이 검거대상이 되고 무대를 떠나 은신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더는 《해방자》가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은 중배는 단호히 무대를 떠나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그의 이름도 태을민으로 바뀌였다.

어느날 경찰의 추격에서 겨우 벗어난 중배는 어머니에게 이름을 고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이름을 고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로부터 사람은 이름자를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고작 세 글자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자신들의 절절한 소원을 담는다.

김중배란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좋은 이름을 바꾼단 말인가?

긴장한 눈길로 창밖을 얼핏 내다보는 아들을 보자 어머니는 그 사정을 깨달았다.

(그렇다. 내 아들이 이름마저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바로 이 더러운 세상때문이다.)

아들은 이름을 태을민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즉 성은 줄줄이 딸을 낳다보니 태씨대가 끊어진다고

아우성치는 외가켠의 성을 따고 《새 을》자와 《백성 민》으로 하자는것이다.

태을민… 태을민…

몇번이나 곱씹어본 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였다.

피덩어리시절부터 름름한 청년으로 자란 오늘까지 사랑담아 정을 담아 불러오던 이름자를 본의아니게 잊어야 하는 허우룩한 감정을 다소나마 메워줄만큼 뜻이 깊은 이름이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김씨집안의 넷째아들 김중배는 족보에도 없는 태을민으로 되고말았다.

태을민은 원쑤들의 검거선풍을 피하여 숨어다니는 속에서도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조선의 극장무대에서는 새 조선의 연극활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감동되였다.

날이 갈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의 싹이 움트고 무성하게 자라났다.

1948년 8월 태을민은 뜻을 같이하는 연극인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왔다.

그때부터 태을민의 인생렬차는 새 민주조선이라는 궤도를 따라 힘차게 달리게 되였다.

고마운 품

태을민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948년 여러 연극인들과 함께 북으로 왔다.

나의 배우생활에서의 지향은 당의 옳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활짝 꽃폈다. 나의 세계관형성에 있어 이 당시의 생활은 획기적인 시기로 되며 정치적자각의 시기로 된다. …》

그의 눈앞에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민주조선의 수도 평양은 자양분을 한껏 들이킨 거대한 나무처럼 싱싱하고 활기에 넘쳐있었다.

간악한 왜놈들이 이를 갈며 파괴하였던 공장의 굴뚝에서 타래쳐오르는 삼단같은 연기, 일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5월》의 씩씩한 선률,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어디 그뿐인가. 극장들에서도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연극들과 《춘향전》을 비롯한 민족고전극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었다.

그 광경들은 미제의 군화에 짓밟힌 남조선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다.

얼마후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국립연극극장 연극배우로 되였다.

그처럼 소원하던 연극을 마음껏 할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의 소용돌이속에서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그는 주체적영화예술의 첫 산아인 조선예술영화 《내 고향》창조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날 그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뜻밖에 차례진 행복이 꿈인가 해서 몇번이나 손등을 꼬집어보며 확인한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에서 연극무대는 고사하고 경찰의 마수를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던 자기가 가슴을 쭉 펴고 새 조선의 예술영화창조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으랴.

더우기 그를 감격하게 한것은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예술영화 《내 고향》의 창조사업을 친히 지도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화의 제목까지 달아주시였다는 사실이였다.

원래 이 영화문학을 창작한 작가 김승구는 지난날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자신의 눈물겨운 체험에 기초하여 영화문학의 제목을 《고향》이라고 달았었다고 한다.

작가가 올린 영화문학줄거리를 몸소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창작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밝혀

주시면서 영화의 제목을 새맛이 나고 주제사상에 맞게 달데 대하여 지적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제목이 많은데 이 영화의 제목은 **《내 고향》**으로 달자고 말씀하시였다. …

태을민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겼는가를 다시금 느끼였고 그 기대에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하지만 막상 지주 최경천역을 맡았을 때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는 해방전에 연극 《물새》의 고리대금업자역과 《왕자 호동》의 최리왕역을 제외하고는 어부역이나 빈농민역을 해왔었다. 그런데 지주의 역을 하라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긍정역을 하고싶었다.

다음순간 그는 소스라치듯 정신을 차렸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감히 조국이 맡겨준 믿음을 두고 투정질하다니.)

태을민은 자신을 질책하며 연기훈련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역인물의 성격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해방전 서울에서 시계수리공을 한 그는 지주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지고있지 못하였던것이다.

생각다 못해 시주변의 어느 한 농촌마을로 떠났다.

일이 안될 때라 길을 한창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다.

돌아서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지만 비를 흠뻑 맞으며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그 마을에는 해방전 악착하기로 소문난 지주의 집에서 20년이나 머슴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태을민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깜짝 놀랐다.

《아니, 그까짓 놈 소리를 듣자고 궂은날에 온단 말이요? 나 원참.》

그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예술영화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자 반가와하며 손님을 집안으로 잡아끌었다.

다음날 극장으로 돌아온 태을민은 새로운 연기대안을 세우고 훈련에 들어갔다.

일단 연기에 들어가면 주위세계를 감감 잊는것이 그의 특징이였다.

그는 최지주놈을 악착한 흡혈귀로만이 아니라 자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총까지 들고 발악하는 간악한 원쑤로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어느날 밤이였다.

당시 태을민은 합숙생활을 하고있었는데 그와 한방에서 생활하는 동료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깨여났다.

웬 일인가 하고 창문을 내다보니 《지주》가 거드름을 피우며 호통치고있는것이 아닌가.

《태동무, 지금 몇시인데 그러나?》

그러자 태을민은 《꿈에서 그 지주가 머슴을 못살게 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 한번 연기를 해보던 참일세.》 하고 싱긋 웃는것이였다.

동료는 어이없어 껄껄 웃고말았다. …

품들여 가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마련이다.

촬영에 들어간 태을민은 지주의 역을 나무랄데 없이 형상하였다.

드디여 영화가 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국립영화촬영소(당시)에 나오시였다.

영화가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창조성원들을 바라보시며 해방후 처음 나온 영화인데 잘되였다고, 동무들의 손으로 만든것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첫 예술영화인데 잘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예술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하겠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이렇듯 조선예술영화 《내 고향》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보람찬 생활을 보여준 첫 예술영화로 세상에 태여났다.

영화는 나오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예술영화가 나온것만 해도 놀랍고 기쁜 일인데 영화의 내용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진실하니 관중들은 마치 자기들의 지난날을 보는것 같다고 하였다. 더우기 지주 최경천이 영사막에 비칠 때면 관객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치를 떨군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태을민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완성된 첫 예술영화의 필림속에 자기도 들어있다는 긍지로 가슴이 뿌듯하였다.

얼마후 그는 국립연극단에 배치되여 그처럼 희망하던 연극창조의 보람찬 나날을 이어갔다.

그 시기 태을민은 주로 단역 특히 부정인물을 형상하였다.

연극 《금산군수》의 박군수역, 《수원회담》의 리승만역, 《전쟁도발단》의 웰리암스역 등은 그 시기 그가 형상한 부정역들이다.

1950년 6월 평화롭던 조국은 미제에 의해 일어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침공으로 조국해방전쟁은 시작되

였다. 나는 군대를 따라 전선으로 공작을 떠났다. …》

이것은 태을민의 자서전에 적혀있는 한 대목이다.

연극인들에게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서울에 나가서 전선위문공연을 할데 대한 과업이 떨어졌다.

태을민을 비롯한 연극인들은 감히 신성한 조국강토를 침범하려는 원쑤들을 짓부시고 용감무쌍하게 진격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남으로 향하였다.

7월초 어느날 서울동양극장에서 첫 공연의 막이 올랐다.

태을민은 감회가 깊었다.

그 무대는 15년전 대본필사공으로 있던 그가 두부장사 군역을 하였던 잊지 못할 곳이였다. 뿐만아니라 왜놈들에게 치욕의 연기를 강요당하며 비탄의 눈물을 뿌리던 무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이 공화국의 당당한 연극배우로서 그 무대에 서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떳떳하고 긍지스러웠다.

그는 무대막사이로 관람석을 살폈다.

혹시 어머니랑 맏형이랑 오지 않았는가 해서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지난 몇해동안 한시도 잊은적 없는 어머니였고 형제들이였다.

구름처럼 모여든 관객들속에서 그들을 찾기란 헐치 않았다.

태을민은 그들이 어엿하게 성장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맡은 역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는 흩어져가는 사람들속에 낯익은 모습들이 끼여있는가 하고 두리번거렸다.

아쉽게도 없었다. 모름지기 가족들이 극장에 오지 못한것같았다.

태을민은 후에 짬을 내서 집에 꼭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연을 마친 전선위문공작대는 소편대로 나뉘여 남진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전선으로 나갈데 대한 명령을 받았다.

하여 그는 해방전 막내아들의 희망을 헤아려주고 고무해주던 어머니와 다정한 형제들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전선으로 떠났다.

태을민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아쉬움을 헌헌히 털어버렸다.

(그렇다. 조국이 있고야 가정도 집도 있는 법이다!)

전선위문공작대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군군인들을 전투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영등포, 인천, 수원을 거쳐 평택에 이른 소편대는 적기의 계속되는 폭격속에서도 수차례의 공연을 보장하고 다음

공연장소인 천안으로 향하였다.

그들이 한창 행군하는데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이어 미국놈비행기들이 굶주린 까마귀떼마냥 날아들며 기총탄과 폭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소편대는 저마끔 흩어져 길가의 도랑옆으로 은페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폭탄이 터지더니 태을민의 옆에 엎드려있던 황철의 한쪽팔이 떨어져나갔다.

태을민은 동무들과 함께 무작정 그를 들쳐업고 뛰여갔다.

시간이 갈수록 출혈은 점점 심하고 평택읍에 겨우 당도했을 때 환자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들이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마침 한대의 자동차가 달려왔다.

황철을 싣고 가기 위하여 서울에서 온 구급차였다.

차를 타고 온 일군이 놀라운 사연을 알려주었다.

그무렵 전선사령부와 서울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황철이 중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당시 전선사령관으로 사업하고있던 김책을 전화로 찾으시여 빨리 치료대책을 세우고 입원시켜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자동차가 서울에서 평택으로 온것이다.

황철을 싣고 오던 길을 되돌아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태을민의 가슴은 불을 안은것처럼 뜨거워났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복종시켜야 할 준엄한 시기이다. 한사람의 군인, 한대의 자동차도 귀중한 때이다. 그런데 위훈떨친 인민군전사도 아닌 한 연극배우를 위하여 구급차를 띄우다니…

그것은 우리 문예인들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품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였다.

얼마후 한 일군이 숨을 가쁘게 톺으며 달려왔다.

전선위문공작대는 빨리 뒤로 돌아서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때문에 심려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키려고 덤벼들었던 침략자들은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선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남쪽으로 멀어지고 승리의 그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그러한 전쟁의 와중속에서 평범한 예술인이 폭격에 부상당한것은 큰일이라고 할수 없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술인들의 생명을 념려하시여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다.

태을민은 그만 목이 꽉 메였다.

(아, 장군님! 저희들이 대체 뭐라고…)

그 사랑을 가슴에 안은 그는 남은 10여명의 배우들과 함께 서울로, 평양으로, 강계로 향하였다.

크지 않은 무대에서 그것도 연기에 심취되여 오락가락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천여리길은 헐치 않는 행군이였다.

하루도 못 걸어서 모두의 발바닥에 콩알같은 물집이 다람다람 매달렸고 때로는 쉬파리같은 적기때문에 발고랑으로, 덤불속으로 뛰여들어야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걷고 또 걸었다.

바로 그 행군길이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길이라고 생각하니 물집이 터져서 쓰리던 발도 아프지 않았고 무섭게 급강하하는 적기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다.

일행을 맞아준 문화선전성의 한 일군이 태을민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문화선전성 간부학교로 가게 되였다고 알려주었다.

태을민은 그만 참고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말았다.

(아, 장군님. 어제는 이름없는 배우를 위해 사랑의 구급차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한 지대로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또 저를…)

그 사랑, 그 은정을 심장에 새긴 그는 공부에 전심하였다.

몇달후 신심과 패기에 넘쳐 국립연극단으로 돌아온 태을민은 동료들과 함께 포연자욱한 전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위문공연을 힘차게 벌렸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군용사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둥둥— 하는 북소리가 울렸고 하늘땅을 진감하는 그 기세는 미구에 승리한 고지우에서 나붓기는 공화국기의 세찬 퍼덕임으로 이어지군 하였다.

드디여 조국의 밤하늘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조국이 자기의 아들들,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보내는 경의였다.

얼마후 방방곡곡에서 함마소리, 삽질소리, 목도소리가 전쟁의 페허를 뚫고 힘차게 들려왔다. 후날 세인을 크게 놀래운 장엄한 전후복구건설의 보람찬 나날이였다.

쭉쭉 뻗어가는 도로들과 우후죽순마냥 솟아오르는 고층살림집들의 위용앞에서 조선은 백년이 걸려도 일어나지 못한

다고 한 미제의 호언장담이 바닥에 떨어진 질그릇처럼 박산나고있었다.

태을민은 낮에는 연극공연을 하고 밤에는 복구건설장으로 달려나가 곡괭이를 휘두르고 삽질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 희망찬 래일로 줄달음쳐가는 조국의 힘찬 숨결을 페부로 느끼였다.

그 나날 그는 연극 《우리 마을》의 완고한 개인농민 한내춘역을 인상깊게 형상하여 성격배우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연극 《붉은 선동원》과 연극 《산울림》에서 부정인물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유명해진것은 역시 예술영화 《흥부전》때문이였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족고전을 각색한 《흥부전》은 이미 가극과 인형극으로 창조되였으므로 영화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운명이 결정되는것이다.

사실 소설책을 보며 자주 눈굽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군 하는 태을민에게 있어서 인정미없고 심술많은 놀부역은 힘에 겨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놀부의 본성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심혈을 바쳤다.

흥부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있을 때 태평스레 낮잠자는 놀부, 조상의 제상을 차리면서 빈그릇에 《음식》이라는 글자를 쓴 종이장만 담아놓는 불효자식, 황금만 생긴다면 집마당의 먼지까지도 안으로 빡빡 쓸어들이게 하는 욕심쟁이…

나아가서 태을민은 제비의 성한 다리를 꺾고 실로 처매주는 심술쟁이, 《보수박씨》에서 뛰쳐나온 량반과 꽹과리패, 무당들에게 봉변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죽기 전에 남은 박을 마저 타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인간쓰레기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특히 《흥부전》의 마지막장면에서 제 녀편네보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반박을 당하고 타다 남은 기둥과 서까래에 묻혀버리는 장면은 지금껏 축적해온 태을민특유의 연기술의 절정이였다. 그러나 놀부의 행동을 보며 이를 갈기도 하고 그가 망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통쾌한 나머지 손바닥이 깨여져라 박수치는 관람객들은 그 연기완성을 위하여 배우가 일부러 틀이를 입에 물고 연기하였다는것도, 제비의 다리를 꺾어놓고 실로 대충 처매주는 장면만도 수십번이나 련습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를것이다.

어느날 저녁 맏형(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

하여 공화국으로 들어왔다.)이 태을민을 찾아왔다.

남조선에 있을 때부터 동생이 연극배우가 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던 그는 대뜸 나무랐다.

《넌 왜 하필 골라골라 그런 역만 하니? 남들처럼 긍정역을 하면 못쓴다더냐?》

태을민의 가슴속에 회의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맏형의 말을 그르다고 할수 없다.

태을민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연극 《승냥이》의 최로인역이나 《산으로 가는 길》의 아버지역 등 몇몇 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역 그것도 관객들의 저주를 받는 부정역만을 해왔었다.

맏형뿐이 아니다. 아버지때문에 학교와 유치원에서 《놀부딸》이라고 놀림받는 딸들도 제발 나쁜 사람의 역을 하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하고있었다.

불현듯 조국의 믿음에 보답한다고 달려온 나날들이 허무하게 생각되였다.

(나라고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역만 하겠는가?)

그러던 어느날, 태을민이 시무룩해서 집에 박혀있는데 남조선에서 함께 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찾아왔다.

태을민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그들에게 고충을 털어놓

고나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토설하였다.

그러자 친구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 심정은 리해되지만 난 달리 생각하네. 부정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활의 참된 교훈을 깨우쳐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같은 생각일세. 만일 태동무의 그 특색있는 <놀부>역이 없다면 예술영화 <흥부전>이 무슨 의의가 있겠나?》

친구들은 고무하듯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순간 태을민은 가슴이 뜨끔했다.

(아, 그런줄도 모르고 난… 그렇다. 내 연기가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면 무엇을 주저하랴.)

그때부터 태을민은 부정역이든 긍정역이든 가림없이 맡은 연기형상에 충실하였고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태을민은 예술영화 《량반전》에서도 돈으로 량반벼슬을 사서 권력과 안락을 누리려다가 끝내 량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래, 나더러 도적이 되라는거요?》 하고 달아나는 권부자역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관록있는 배우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

그외에도 예술영화 《그들은 대지우에 서있다》의 리기주의령감역, 예술영화 《금화의 비밀》의 미국놈역도 특색

있게 수행하였다.

태을민은 부정역만을 한것이 아니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에서 긍정인물의 독특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재능있는 연극배우로서의 개성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그는 이 연극에서 조국광복회 회원인 마을청년 한장록역을 맡아하였다.

한장록은 락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주인공인 박성룡과 그의 약혼녀인 순애를 상대로 롱말과 익살로 웃기는 쾌남아이다.

그는 항일유격대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경찰서장 왕가에게 유격대공작원이 민족적량심을 저버린 그를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선포한것을 귀띔해줌으로써 그가 **김일성**장군님앞으로 편지를 쓰게 한다.

이 연극을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태을민이 대리구장역을 잘한다고, 왕서장을 잘 업어넘긴다고 치하하시였다.

태을민은 예술영화 《처녀중대장》을 비롯한 수십편의 영화, 연극들에서 긍정역도 감동깊게 형상하여 다재다능한 연기술과 독특한 화술기교를 보여주었으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거둔 성과를 높이 내세워주시고 1959년 12월 16일에는 공훈배우, 1962년 10월 6일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사랑, 행복, 분노

태을민은 무대를 열렬히 사랑하였을뿐아니라 생활도 뜨겁게 사랑한 다정다감한 인간이였다.

그는 다섯 딸을 가진 아버지였다.

매번 자식을 낳을 때마다 안해는 못내 죄스러워했지만 그때마다 태을민은 껄껄 웃으며 위로하군 하였다.

《수고했소. 딸이면 뭘 하우? 딸도 자식인데.》

그는 아들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도 재간이 없는가고 놀려주면 《흥, 난 딸 하나가 아들 다섯 부럽지 않네.》하고 시뚝해하군 하였다.

다섯째딸이 태여났을 때 태을민은 극장옆에 쭈그리고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있었다.

함께 배우생활을 하던 엄미화가 아무것도 모른척 하고 물었다.

《아이를 낳았다더니 총각앤가요, 처녀앤가요?》

채 피우지도 못한 담배를 내던지고난 태을민은 속이 상해서 내뱉았다.

《에, 또 딸이야!》

그렇지만 그의 다음말이 의미심장하였다.

《내 우리 딸들을 아들맞잡이로 키울테니 두고보라구.》

실지 그는 맏딸은 연극배우, 둘째딸은 작가, 셋째딸은 연구사, 넷째딸은 교예배우로 키우려는 계획을 세우고있었다. 금방 태여난 막내딸은 두고봐야 하였다.

씻은 팥알처럼 또글또글하고 아침이슬처럼 깨끗한 딸들은 아들에 대한 미련을 잊을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저녁마다 태을민의 집에서는 한바탕 복닥소동이 일어나군 하였다.

그가 극장에서 돌아오면 딸들이 복도로 뛰쳐나와 그의 팔과 옷자락, 가방에 매달리며 저마다 아버지, 아버지하기때문이였다.

태을민은 옷도 벗지 못한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방안으로 들어갔다.

뒤늦게야 부엌에서 뛰쳐나온 안해가 자석에 달라붙은 작은 쇠알같은 딸들을 하나하나 떼여놓고서야 집안의 소동은 가라앉는다.

《자, 오늘 숙제들을 검열하자요.》

겨우 실내복을 갈아입은 태을민의 말이다.

할끔할끔 엄마의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미리 준비하고있던 숙제장들을 펼쳐보이느라고 또다시 부산을 피운다.

태을민은 맏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넷째딸까지 숙제를 깐깐히 검열하고 잘된 점은 무엇이고 틀린것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야기한다.

부엌에서 《얘들아, 밥상놓으렴.》 하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딸들은 아랑곳않고 아버지를 지켜본다.

태을민은 자신이 직접 잉크병마개로 만든 오각별도장을 들고 한쪽벽에 붙어있는 《가정경쟁도표》로 다가간다.

그가 매 아이들의 이름칸우에 빨간 별을 올리거나 혹은 그냥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속에서 꼴깍꼴깍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은 안해의 차례이다.

딸들의 이름우에 오각별을 찍을 때는 그렇게도 엄엄하던 태을민이였지만 바라지 않은 딸들을 다섯이나 안겨준 안해의 이름우에는 군말없이 오각별을 올려준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우에는 그날 연기훈련을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하였는가 또는 공연을 실수없이 진행하였는가 못하였는가에 따라 량심적으로 별을 올린다.

《자, 이젠 밥을 먹자요.》

태을민이 한마디 하자 엄마가 세번네번 독촉해도 꼼짝 않던 아이들이 냉큼냉큼 달려가 큰 둥글밥상을 날라 온다.

밥상우에 음식그릇들이 놓이면 태을민은 숙제검열을 할 때와는 달리 막내딸부터 시작하여 매 아이의 밥그릇을 당겨 다가 식성에 맞게 여러가지 찬을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서는 제가 먼저 한술 먹어보고 《야, 정말 꿀맛이구나!》 하고 넘겨준다.

아이들은 밥그릇들을 받자마자 오랜만에 별식을 먹어 보는것처럼 맛있게 냠냠 먹는다.

그것으로 하루일과가 끝났는가? 아니다.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옛말시간이 남아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여 맏딸 태지애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착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주군 했답니다. 아마 우리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기 바랬던것 같습니다.》

이따금 태을민은 외국장편소설 《몽떼끄리스또백작》에서 이프성새의 수인 에드몽 당떼스가 지하의 보석을 찾아 어두운 층계를 한층한층 내려갈 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으앙!》 하고 소리쳤는데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눈이 새별처럼 빛나는 령리한 딸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벌써 자기들을 놀래우려고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그제야 그 가정의 다종다양한 하루일과가 끝난다. …

다음날 아침 달콤한 잠에 들었던 아이들은 《자, 어서 일어나 아침공기를 마시자요. 하나, 둘, 셋…》하는 아버지의 다정한 말소리를 들으며 깨여난다.

태을민은 마지막 《셋…》 하는 셈세기를 일부러 천천히 하였는데 그것은 잠꾸러기 맏딸이 동생들앞에서 위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던 아이들같지 않게 발딱발딱 일어난 딸들은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선다.

이윽고 그들은 가까운 모란봉을 향하여 달리기를 한다.

손으로 움켜잡으면 금시 잡힐듯 한 아침안개가 늠실늠실 흐르는 을밀대밑에 이르자 아버지의 구령에 맞추어 인민보건체조를 하고 이슬에 함뿍 젖은 잔디밭이나 나무에서 매미와 잠자리를 잡기도 한다. …

매일처럼 반복되는 이 일과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형제들과 동무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다섯 딸을 그처럼 사랑한 태을민이였지만 자식들이 잘못

을 저지르는 경우 엄하게 다스렸다.

어느날 아침달리기시간이였다.

그날 둘째딸 태성애는 달리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침을 탁 뱉았다.

옆에서 뛰여가던 태을민이 무춤 멈춰섰다.

그의 두눈은 놀라움과 실망으로 몹시 흐려있었다.

푸들푸들 떨리는 태을민의 입술에서 격한 말소리가 튀여나왔다.

《네가… 네가 어떻게 그럴수 있냐. 응?》

《…》

《자, 이 거리를 좀 봐라.》

그가 손으로 가리킨 아침거리는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저 멀리에는 천리마동상이 하얀 비단필같은 안개를 허리에 감고 우뚝 솟아있고 그밑으로 뻗은 도로에는 청신한 대기가 흐르고있었다.

길옆에는 손에 닿으면 물감이 들것 같은 푸른 아지들을 거느린 싱싱한 나무들이 미풍에 설레이고 실컷 자고난 새들이 날아예며 고운 목청으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때마침 물뿌림차가 물을 뿌리며 지나갔는데 령롱한 칠색무지개가 아침해빛에 반짝이였다.

그속에서 태을민의 준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리냐. 그런데 여기에 감히 침을 뱉는단 말이냐?》

성애의 오동통한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작고 동그스름한 어깨가 물결쳤다.

태을민은 주머니를 더듬다가 손수건을 꺼내더니 거리에 떨어진 딸애의 침을 깨끗이 훔쳤다. 그리고는 눈으로가 아니라 마치도 온몸으로 거리를 바라보듯 한동안 서있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태을민은 딸의 손을 잡고 교통안전원(당시)앞으로 갔다.

잘못을 빌라는것이였다.

성애는 콜짝거리며 교통안전원에게 잘못했다고 하였다.

그바람에 난처해진 사람은 교통안전원이였다.

《태을민선생님, 큰일도 아닌걸 가지고 뭘 그럽니까.》

태을민의 얼굴빛이 심중해졌다.

《이게 왜 큰일이 아니겠소.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지 않소.》

태을민은 교통안전원에게 딸교양을 잘하겠다고 사과하고 돌아섰다.

그 다음 딸을 데리고 거리를 걸으며 타일렀다.

《저 남쪽에서는 이런 거리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할게다.

그런데 너처럼 그런다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훌륭한 인간이 될수 있단다.》

태성애는 그날 너무 혼이 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리에 침을 뱉지 않았고 휴지 같은것이 떨어져있으면 꼭꼭 줏군 하였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겠지만 태을민도 대단한 열성학부형이였다.

딸들은 어머니를 제쳐놓고 아버지더러 학부형모임에 가자고 저마끔 졸라댔다.

태을민은 딸들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여 학교에 가군하였다.

언제인가 학부형모임에 참가했는데 맏딸의 담임교원이 태지애가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며 태을민은 딸에게 《글쎄, 가끔 지각할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각한다는것은 결국 게으른 표현이다. 앞으로 30분 앞당겨서 학교에 가거라.》 하고 자못 엄하게 일렀다. 뿐만아니라 그가 아무리 그날 숙제를 잘했다고 해도 학교에 지각하였다면 《가정경쟁도표》에 붉은별을 올리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 태을민이 학부형모임에 참가하였더니 담임교원은 그동안 태지애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학교적으로 제일 빨리 나오군 한다고 칭찬하였다.

태을민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을 향해 《오늘은 네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구나.》 하고 싱긋 웃었다.

태을민은 작가 못지 않게 문학을 사랑하였다.

《문학이 없는 사람은 배우가 될수 없다. 연기의 바탕에는 반드시 문학이 놓여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였다.

당시 태을민은 딸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게다가 세상을 떠난 맏형을 대신하여 조카들까지 돌봐주어야 하였다.

그속에서도 태을민은 새 책이 나왔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책방에 달려가군 하였다.

어느 일요일이였다.

그날도 새로 나온 장편소설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는 방안에 틀고앉아 정신없이 읽기 시작하였다.

몇장 넘기지 못했는데 방바닥에 눕혀놓은 갓난아기가 킹킹거렸다.

그애로 말하면 쉰고개에 들어설 때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있던 태을민에게 더할나위 없는 기쁨을 안겨준

외아들이였다.

여느때 같으면 오줌을 누지 않았나 하고 제꺽 기저귀를 헤쳐보았겠지만 태을민은 건성 달래고는 또다시 책장에 눈길을 박았다.

전에 없던 아버지의 무관심에 항변하듯 갓난아기는 점점 크게 보채였다.

책에 심취된 태을민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때 부엌에서 들어오던 안해가 혀를 차며 《여보, 책은 그만 보고 아이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였다.

《…》

성이 난 안해는 끝내 남편의 손에서 소설책을 앗아내였다.

태을민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여보, 책이 중하오, 아이가 중하오?》

자식들 특히 외아들에게 미친듯이 사랑을 퍼붓던 남편답지 않은 그 대답에 안해는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일찍 세상떠난 장인을 한번도 보지 못한 맏사위는 《이 집에 장가를 오니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게 한쪽벽을 꽉 채운 소설책들이더군요.》 하고 회상하였다.

태을민은 딸들에게 소설책을 읽고 인상에 남는것을 말해주기 좋아하였다.

특히 작가를 희망하는 둘째딸에게는 책을 본 다음 꼭꼭 감상글을 쓰게 하였다.

그처럼 가정과 생활을 끔찍이 사랑한 태을민이였지만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군 하였다.

태을민은 1944년 가을 둘째형수의 소개로 개성에 있는 농민의 딸 한복녀와 결혼하였다.

그들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태을민은 해방후 동료들과 같이 공화국으로 들어올 때 사정이 급하여 홀몸으로 왔었다.

그는 북에서 보람찬 연극배우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향에 두고 온 안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이 일어나자 태을민은 이번에는 꼭 가족을 데려오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후방으로 들어오는 전선위문공작대를 책임진 그는 지척에 있는 고향집에 들리지 못하고 또다시 홀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신 의용군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북으로 후퇴하던 맏형이 그의 가족을 데려오게 되여있었다.

공교롭게도 태을민의 안해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곳에 있는 친척집에 가있었다.

뒤늦게 련락을 받은 안해는 아이들을 업고 이끌고 천방지축 뛰여갔다.

잔등에 업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여섯살난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질질 끌리워갔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리자 안해는 그 아들마저 안고 달렸다.

그들이 역구내에 도착하였을 때 렬차는 떠나기 시작하였다.

《같이 가자요!》

《큰아버지!》

안해와 아이들은 달리는 기차를 따라가며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때 승강대에 나와있던 태을민의 맏형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제수, 빨리! … 빨리! …》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차와 그들의 간격은 더욱 멀어질뿐이였다.

맏형은 속이 타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동안에 가족들의 모습은 점으로 보이더니 종시 없어지고 말았다.

후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태을민은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남쪽하늘가를 추연히 바라보며 목메여 소리쳤다.

《여보, 기다리오. 내 꼭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태을민은 그 뜻을 이룰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더욱 높아진 저주로운 군사분계선은 그들을 더는 만날수 없게 갈라놓았던것이다.

그 원한이 가슴에 맺히고맺힌 태을민은 후날 다섯 딸들에게 남쪽에 있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특히 복스럽게 생긴 둘째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남쪽에 있는 선미언니와 꼭같이 생겼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오빠와 언니를 찾아야 한다.》 하고 당부하군 하였다.

전후에 태을민은 황철의 소개로 김경옥과 선을 보았다.

처녀는 황해남도태생의 얌전하고 마음씨착한 녀자였다.

태을민은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

생김새와 목소리는 다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남쪽의 안해와 비슷한데가 있었던것이다.

사달은 처녀쪽에서 났다.

남자와 선을 보고 돌아온 그는 맏오빠에게 토달거렸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과 살란 말이예요?》

처녀가 그렇게 말할만도 하였다.

그때 태을민은 37살의 홀아비였다. 게다가 아무리 올리훑고 내리훑어도 마음에 끌릴만 한 미남자도 아니였다.

맏오빠는 사람의 속을 봐야지 겉을 보면 되느냐고 녀동생을 욱박질렀고 몇년째 가정생활의 단맛을 모르고 외롭게 사는 태을민을 걱정하던 황철은 능청스럽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해가며 처녀를 설복하였다.

결국 처녀는 태을민과 가정을 꾸렸다.

한달이 지난 뒤 맏오빠는 녀동생에게 남편이 어떤가고 물었다.

김경옥은 수집어하며 《지내보니 사람이 똑똑하고 또 인정미도 있고…》 하고 뒤말을 얼버무렸다.

맏오빠는 남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곁에서 잘 돌봐주라고 신신당부하였다.

태을민의 안해는 맏오빠의 말대로 남편을 잘 받들어주었다.

남편이 일요일과 명절날에도 극장에 나가면 풀어놓은 망아지같은 딸들과 갓난 아들은 그의 어깨에 매달린 짐이였다.

그래도 그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남편의 심정을 리해하고 군말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다. …

태을민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날수록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는 의리깊은 인간이였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제 자랑을 늘어놓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잔뜩 늘어놓는다.

태을민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였다.

간혹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면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다가 안해에게 이런 말을 곱씹군 하였다.

《여보, 대체 내가 누구요? 사람 못살 저 남쪽에서 미국놈한테 쫓겨다니던 실패한 연극배우였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다 아시는 인민배우 태을민이란 말이요. 난 설사 숨이 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무대를 떠나지 않고 보답하겠소.》

태을민은 그 맹세를 지켜 혈압계의 눈금이 한계점에 이른 순간에도 혁명초소를 떠나지 않고있다가 무대우에서 한생을 마치였다.

빛나는 삶

1969년 5월 인민배우 태을민은 평양대극장에서 영화예술인들의 무대공연작품인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의 공연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사들이 달려와 구급대책을 취하였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되였다.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책임일군을 전화로 부르시여 태을민동무가 뇌출혈되였다는것이 사실인가? 오후 2시경에 뇌출혈되였는데 왜 이제야 보고하는가, 혁명동지가 의식을 잃었는데 점심시간이라고 보고 안하면 되는가, 동무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제야 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였다고 엄하게 나무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태을민동무는 당에 충실한 동무이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오랜 배우이라고, 모든 힘을 다하여 태을민동무를 살려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태을민이 끝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인민배우 태을민동무가 대극장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재능있는 아까운 배우를 잃었습니다.

태을민동무를 잃은것은 우리 당의 손실입니다. 그는 해방후 남반부에서 미국놈들의 탄압속에서 진보적예술활동을 더는 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우리를 찾아온 예술인들중의 한사람입니다. 태을민동무는 우리 당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재능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는 연극과 영화들에 많이 출연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태을민동무를 좋아하였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배우를 잃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고향이 남반부이기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사의 심장이 멎었다는 소식은 위대한 장군님께도 보고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우신듯 《태을민동무가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라고 하시며 놀라신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더니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전화를 거시였다.

하지만 수화기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튿날 일군들과 함께 예술영화촬영소로 떠나시였다.

그런데 서평양철다리를 지나 굽인돌이길을 넘어서던 승용차는 그만 더 전진하지 못하고 멎어섰다. 도로를 수리하느라고 길우에는 온통 자갈무지, 흙무지들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앞을 살펴보시였다.

그러나 길이 막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여기서부터 걸어가자고 하시며 마을로 뻗어간 길을 따라 친히 앞장서 걸으시였다.

일군들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 길은 전날 밤에 내린 비로 매우 험하였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이 몇번이나 만류하였으나 장군님께서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돌부리에 신발이 긁히우고 흙탕물에 바지가 어지럽혀졌으나 그이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였다.

뒤늦게야 장군님께서 걸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문밖으로 달려나온 예술영화촬영소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그이의

차림새를 보고 억이 막혀 입을 열지 못했다.

도대체 한 평범한 배우가 무엇이기에 그 험한 진창길을 걸어오신단 말인가.

떠나간 배우에게 베푸시는 그이의 은정이 가슴을 파고 들어 일군들은 모두가 어깨를 들먹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였다.

령구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누워있는 태을민을 한동안 보시다가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처럼 사랑하던 예술을 버리고 왜 기척없이 누워있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온 장내가 울음바다로 변하였다.

태을민의 맏딸 태지애가 장군님께서 오셨는데 한번만이라도 눈을 뜨라고 애절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령구를 돌아보시고 고인의 부인에게 다가가시여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태을민동무가 못다한 일을 아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속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떠나간 전사를 그처럼 잊지 못해하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말씀에 고인의 가족들은 더욱

목이 메여 흐느껴 울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고인의 령구에 예술인들이 호상을 서는 문제, 예술영화촬영소 일군들이 고인의 유가족들을 잘 돌봐주는 문제 그리고 고인의 령구를 잘 안치하고 장례식을 잘해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장군님께서는 태을민의 유가족들에게 배우 황철과 작곡가 김옥성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유가족들에게 적용한 국가적대우를 그대로 받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1970년 11월, 평양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의 첫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회사에서 우리 당을 받들고 오랜 세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특출한 공을 세우며 헌신하다가 우리곁을 떠난 혁명가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추모하도록 하시였다. 그들속에는 태을민의 이름도 있었다.

평범한 연극배우에 불과한 그가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열혈충신들과 나란히 영광의 단상에 오르게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1986년 2월 어느날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인민배우 태을민이 세상을 떠난지 17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으므로 고인과 함께 배우생활을 하던 동료들도 그렇고 그가 생전에 그처럼 사랑하던 딸들의 기억속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고있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그를 잊는다고 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무대에서 순직한 혁명전사를 잊지 않고계시였다.

그날 영화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을 보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연을 보니 감회가 깊어진다고, 자신께서는 1969년 4월에 처음으로 영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았다고,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에 예술영화촬영소 배우 태을민이가 출연하였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태을민의 가족과 예술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앞에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가을 어느날 또다시 만사람을 울리는 감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꾸려진 애국렬사릉에 태을민의 묘를 옮길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유가족들이 제막행사에 참가하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옥류관에

서 위로연회를 차려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그후에도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이 출연한 경희극 《축하합니다》를 보시며 지난 시기의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그때 배우 태을민동무가 연기를 잘하였다고 은정넘친 말씀을 주시였다.

또한 몇해전 극립연극단에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시고도 훌륭하게 자라난 새 세대들을 연극단의 관록있는 배우들이였던 한진섭, 태을민, 리단동무들이 보았더라면 몹시 기뻐하고 마음을 놓았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국립연극단에 관록있는 배우들이 많았기때문에 그전부터 국립연극단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태을민이 우리의 곁을 떠난지도 어느덧 4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변한다는 산천이 네번이나 변했고 세대도 바뀌였다.

그러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영생하는 참된 인간의 넋이다.

그렇다. 인민배우 태을민은 오늘도 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태을민,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예술인이였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연극을 하고싶던 희망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의 한몸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그를 인민이 다 아는 인민배우로 성장하도록 한걸음한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무대에서 한생을 빛내인 그의 삶을 어찌 평범하다고 하랴.

그처럼 연극을 사랑하였고 그처럼 조국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친 태을민의 넋은 그가 출연한 영화와 연극들과 함께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4. 붓대와 신념

리 용 악(작가)

- 1914년 11월 23일 함경북도 경성군 수성리(당시)에서 출생.
- 해방전 서울에서 창작활동.
- 1951년 3월부터 조선문학동맹 시분과위원장, 그후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부주필로 사업.
- 1971년 2월 15일 사망.
- 조국통일상수상자.

한권의 책이나 한편의 시뒤에는 반드시 한 인간이 서있는 법이다.

우리에게 진주보석과도 같은 훌륭한 시들을 남기고 간 리용악은 우리 민족의 풍운에 찬 근현대사속에서 겨레와 함께 울고웃으며 슬픔과 분노, 격정과 환희의 인생행로를 벅차게 새겨간 열혈의 시인이였다.

그의 시들은 재능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그보다 먼저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증오, 순결한 신념으로 터치고터친 심장의 토로였기에 리용악이 남긴 한편한편의 시들은 오늘도 그렇듯 숫되고 뜨겁게 우리의 가슴에 울려오는것이다.

구원의 등불을 찾아

리용악이 생전에 자필로 남긴 자서전을 읽느라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해방전부터 활동해온 문인들치고 그만큼 고생해본 사람이 쉽지 않기때문일것이다.

일제와 미제의 학정아래서의 수난에 찬 고역살이, 어디를 가나 면할수 없었던 빈궁과 굶주림, 목숨을 내댄 결사의 항거와 폐인이 되도록 거듭된 모진 옥중고초… 실로 공화국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의 그의 전반생은 누가 표현했듯이 험난한 《고행의 편력》이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무단통치가 삼천리강토를 짓누르고있던 1914년 11월 함경북도 경성군의 농촌마을에서 소작농의 셋째아들로 태여난 리용악은 태줄을 끊은 첫날부터 가난과 주림속에서 자라야 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어찌하여 빈궁을 면할수 없는지 알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것이 조상탓과 글을 못 배운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득바득 피땀을 흘려 고생하면서도 남달리 총기가 빠른 셋째아들을 학교에 넣어 공부시키였다.

리용악은 가난속에서 힘겹게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인 공립농업학교에 들어갔다.

비록 농업학교이지만 학교도서실에 적지 않은 문예서적들이 있은데다가 당시 문단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소설가 리효석이 교원으로 있었던 까닭에 리용악이 문학의 길에 들어서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교내잡지를 발간하고있었는데 리용악은 여기에 시를 투고하여 발표하군 하였다. 그 시들을 본 리효석이 좋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소년시인의 문학꿈은 점점 부풀어갔다.

그러나 불의의 사회는 천진한 소년의 희망을 짓밟고 가혹한 세례를 들씌웠다. 한가닥의 기대를 걸고 뼈빠지게 아들을 뒤바라지하던 아버지가 그만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리용악은 끝내 농업학교를 3학년에서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건만 소년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뜻을 품고 처서판에 찾아간 그는 몇달동안 벌목로동을 하여 려비를 마련한 후 서울에 가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우유배달도 하고 신문배달도 해보았으나 그는 굶주림과 학비난에서 도저히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몸을 들이민 곳이 서대문—마포 전차선로부설공사장이였다. 리용악은 자서전에서 당시의 체험을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여기서는 전날 밤부터 밀차를 차지하고 그우에서 자지 않으면 다음날에 일에 붙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또 우리처럼 점심곽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고학생은 일을 축내지 못한다고 내쫓기우기가 일쑤였다. 차차 물계를 알게 된 나는 품삯은 좀 눅어도 언제나 가면 일할수 있었던 인왕산신발공사에서 로동하면서 고학하였다. …》

1934년 봄 중학교졸업증을 빨리 얻을 목적으로 일본 히로시마현으로 건너간 리용악은 고된 고학끝에 마침내 졸업증을 얻어쥐게 되였다. 그후 그는 도꾜로 가서 대학 신문과를

다니면서 힘겨운 고학살이를 이어갔다. 그가 신문과를 택했던 것은 그래도 글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는 신문과졸업장이 유리한 간판으로 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낮에는 여기저기 공사장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밀차를 밀고 타입을 하며 날품팔이에 시달리다가 저녁이 되면 찢기고 터진 손을 부르쥐고 학교를 찾아가군 하였다. 그리고 깊은 밤이면 밤대로 함바집구석에 돌아앉아 붕대를 처맨 손으로 식민지노예의 설음에 겨워 시를 쓰군 하였다.

리용악의 자서전에는 일본고학시절의 그의 정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여있다.

《이렇게 1년나마 지내다가 1937년 2월경 나는 우시고메구 가꾸이쬬에 세방을 얻고 함바에서 나왔다. 그곳은 사관학교에서 남아 나오는 먹다남은 찌꺼기밥을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근처에 있어서 하루 10전정도면 식생활을 해결할수 있었고 따라서 한주일에 며칠만 로동을 해도 굶지 않고 학비도 충당하고 공부할 시간도 얻어낼수 있었기때문이다. …》

체험에서 우러나오는것이 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낳는것이지 만드는것이 아니라는 격언도 있는것이다.

이역의 비좁은 세방에서 일본사관학교 학생들이 먹다버린 찌꺼기밥으로 주린 창자를 달래느라면 떠나온 고국산천이 못견디게 떠올라, 나라없는 설음이 하도 북받쳐 피눈물을

함께 씹어삼키군 했을 식민지고학생… 그토록 비참했던 망국노의 생활체험이 바로 리용악의 시문학을 낳은 토양이였던 것이다.

땀마른 얼굴에
소곰이 싸락싸락 돋힌 나를
공사장 가까운 숲속에 만나거든
내 손을 쥐지 말라

만약 내 손을 쥐더라도
옛처럼 네 손처럼 부드럽지 못한 리유를
그 리유를 묻지 말아라

주름잡힌 이마에
석고처럼 창백한 불만이 그득한 나를
거리의 뒤골목에서 만나거든
먹었느냐고 묻지 말라
굶었느냐곤 더욱 묻지 말라
꿈같은 이야기는 이야기의 한마디도
나의 침묵에 침입하지 말아라

페인인양 시들어져
턱을 고이고 앉은 나를
어둑한 방구석에서 만나거든
울지 말라
웃지도 말고
내가 자살하지 않는 리유를
그 리유를 묻지 말아라

(시 《나를 만나거든》 1937년)

읊어볼수록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저주와 울분을 화약처럼 가슴속깊이 묻은채 서리찬 분노를 터뜨릴 분화구를 갈구하여 어둠속을 방황하는 한 식민지청년의 자화상이 암울하게 안겨온다. 더우기 《내가 자살하지 않는 리유를/그 리유를 묻지 말아라》는 시의 결구에서 우리는 망국노의 불행과 고통이 아무리 참기 어려울지라도 압제자들에게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시인의 거센 항거정신을 력력히 느끼게 된다.

고통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항거로 터져오르기마련이다. 나라잃은 우리 겨레의 비참한 운명과 강도 일제에 대한 울분을 담은 처녀작 《패배자의 소원》(1935년)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끈 리용악은 그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

하는 불같은 시들을 련이어 써나갔다.

1937년 5월 리용악은 도꾜에서 유일하게 조선어인쇄설비를 갖추고있던 삼문사 주인의 도움을 받아 그때까지 창작한 서정시 《나를 만나거든》, 《북쪽》, 《풀벌레소리 가득차있었다》, 《국경》, 《제비같은 소녀야》, 《항구》 등 20편의 작품들로 첫 시집 《분수령》을 내놓게 되였다.

후날 시인은 《첫 시집 출판을 분수령으로 삼고 더욱 억센 의지로 새 출발하여 우리 민족의 넋을 지켜갈 시들을 더 많이 쓰리라는 심정과 의지를 담아 처녀시집의 제목을 <분수령>이라고 붙였다.》고 회상하였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그 시기 일본땅에서 조선글로 된 반항시들을 출판한다는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였다. 초기에 시집에는 시인의 미발표작 50편이 들어가있었는데 일제의 가혹한 출판검열에 걸려 30편에 달하는 시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마저 시인이 원고료를 받지 않겠다는것을 조건부로 걸고서야 시집을 출판할수 있었다고 한다.

우에서 언급한 시 《나를 만나거든》은 일제검열기관의 눈을 피해 시집에 겨우 실리게 되였다.

시집에 담겨진 경향성을 문제시한 일제경찰은 리용악을 와세다경찰서에 잡아가두고 보름나마 갖은 박해를 가하였

다. 그러나 시인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듬해 또다시 두번째 시집 《낡은 집》을 출판하는것으로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나섰다.

해방전 일본에서 출판된 2권의 시집과 해방전에 쓴 미발표시들을 묶어 1947년 남조선에서 출판된 시집 《오랑캐꽃》을 통해 우리는 민족수난의 암담한 그 세월 시인 리용악이 벌린 창작활동의 면모를 여실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 시절 그가 창작한 한편한편의 시들마다에는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떠나온 고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삼천리강산을 타고앉은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캄캄한 암흑속에서 구원의 려명을 목타게 기다리는 갈망의 감정이 사무치게 흐르고있다.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차칸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굳게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있음을

…

차라리 마음의 눈을 가려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줄을 몰라 외롭다

(시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1938년)

당시 렬차가 두만강을 따라 달리는 구간에서 일제헌병들은 렬차의 창가리개를 내리우게 했다고 한다. 창가리개를 내리우지 않고 밖을 내다보면 헌병들이 달려들어 행패질을 했다는 두만강철도… 제 강산을 내다보는 자유마저 빼앗긴채 북간도로 가는 강원도사람과 마주앉아 피눈물을 삼키고있는 시인…

《나는 울줄을 몰라 외롭다》는 시인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목놓아운다고 웨치는것보다 더 비통한 통곡소리로 사람

들의 가슴을 찢는다.

시인은 시에서 일제의 악독한 통치밑에서 짓밟히는 조선의 현실을 얼어붙은 두만강에 비유하면서 두텁게 얼어붙은 그 얼음장속에서도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있》다는 은유적표현을 빌어 조국해방의 새날은 기어이 밝아오리라는 확신과 독립의 그 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겨레의 념원을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시 《낡은 집》(1938년)에서 펼쳐보이는 고향마을의 쓰라린 이야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에이는가.

밤낮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가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

산을 뚫어 철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메돼지 여우며 승냥이가
앞뒤벌을 마음놓고 뛰여다니던 시절
털보네 셋째아들 나의 싸리말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곁에서
첫울음을 울었단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

갓주지 이야기며 무서운 전설과 가난속에
나의 동무는 마음조리며 자랐다
하늘소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울어
종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아간 한구석에서
좁쌀겨를 쓰고앉아 외론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디론가 사라진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우에 떨고있었다
…

송아지라면 팔아먹기라도 하련만 아들이 태여나 고생만 더해지는 가난, 그런 가난속에서 살다살다 못살아 야밤도주를 했다는 고향마을 일곱 식솔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인은 눈물겹게 외우고있다.

고향의 눈물을, 조국과 겨레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그처럼 몸부림친 시인이였기에 그의 감정은 그리도 진실하고 그의 시어들은 그리도 페부를 찌르는것이 아니겠는가.

이 땅에 흔한 초목을 두고서도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결부시키군 한 시인의 남다른 사색을 보여주는 이런 시도 있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새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띳집도 버리고 강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군사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팔로 해빛을 막아줄께
울어보렴 목놓아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시 《오랑캐꽃》 1936년)

오랑캐와의 싸움속에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뒤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운 오랑캐의 뒤머리와 같다 하여 제비꽃을 불러 오랑캐꽃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허나 풀숲에 가리워 사는 이 자그마한 꽃을 두고 시인은 남다른 생각을 한것이다. 고려군사들이 쳐들어와 가랑잎처럼 쫓겨간 오랑캐, 그 오랑캐의 피 한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이라고 불리우는 그 꽃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어찌 보면 이 땅의 피를 받았어도 《센징》이요, 《한또징》이요 하는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우는 조선사람의 신세 그대로가 아니던가. 하여 시인은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진보라색오랑캐꽃앞에서 두팔을 벌려 해빛을 막아줄테니 울어보라고, 그 억울한 신세를 두고 통곡이라도 하라고 따뜻이 어루만진다.

참으로 리용악은 《글을 짓는》 시인이 아니라 《생활하

는》 시인이였다. 아무리 짧은 시라 할지라도 그의 시에는 생활이 있고 생활의 력사가 응축되여있다.

시집 《분수령》의 서문에서 누군가는 리용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있다.

《내가 우연한 기회로 처음 그의 방에 들어서게 되였을 때부터 자주 그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은것이므로 년래의 구우(여러해동안 사귄 오랜 벗)와 같은 정의를 붓지 않을수 없다. 나는 리군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수 있었다. 리군은 추위와 주림과 싸우면서, 그는 기아를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그것때문에 울지 않는다. 여기에 이 시인의 초연성이 있다. 힘이 있다. 리군의 시가 그의 생활의 거짓없는 기록임은 물론이다. 그의 시는 상이 앞서거나 개념으로 흐르지 않았고 또 시전체에 류동되는 적극성을 발견할수 있다. 하여튼 리군의 비범한 시재는 그의 작품이 스스로 말해주리라 믿는다.》

하다면 시인 리용악에게 있어 생활이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이요, 수난당하는 망국노의 울분이였다. 심혼의 뿌리가 내린 조국과 향토에 대한 사랑이였고 언젠가는 기어이 밝아올 조국해방의 새날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믿음이였다.

그가 시단에 들어선 1930년대 후반기는 조선문단에 모더

니즘이요, 퇴페주의요, 형식주의요 하는 세기말적인 문학 사조들이 기승스럽게 밀려들던 시기였다. 생활의 토양에서가 아니라 책상우에서 《시》를 배운 시인들과 디디고 선 생활의 토양이 허약한 시인들은 일제의 폭압선풍에 기겁하고 잡탕사조들에 들떠 현실을 등진채 저마끔 《순수예술》의 상아탑속에 들어박혔다. 지어 20년대에 경향적인 시를 썼던 시인들조차 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예술지상주의에로 넘어가 생활과는 멀리 동떨어져나가고있었다.

생활을 멀리한다는것은 곧 민족을 멀리하고 민족의 수난을 외면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럴진대 일제에게 말과 글, 성마저 빼앗기고 민족의 명줄이 칼도마우에 올랐던 가장 참담하던 그 시기 온갖 퇴페시들에 침을 뱉으며 끝까지 겨레와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한 리용악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것이다. …

일본에서 몇년간의 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당시까지 잡지 《문장》과 함께 조선말문학잡지로 남아있던 《인문평론》의 편집원으로 취직하였다. 하지만 그는 편집원생활을 오래 할수가 없었다. 일제가 《황국신민화》정책을 로골화하면서 조선말로 된 모든 신문잡지의 출판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잡지 《인문평론》도 일문잡지 《국민문학》으로

개간되여버렸던것이다.

그뿐이 아니였다. 일제의 강박에 굴복하여 리광수나 최남선 같은 명망을 뽐내던 문사들이 조선청년들앞에 나서서 《천황페하》를 위해 사꾸라꽃처럼 지라고 선동하며 돌아다녔는가 하면 지어 한때 경향문학을 한다며 글을 쓰던 작가들중에서도 그러한 투항분자, 타락분자들이 나타났다.

민족적량심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작가들은 붓을 꺾고 일제의 마수를 피해 은둔생활로 넘어갔다. 1939년말 리용악도 좌절된 포부와 풀길없는 원한을 구겨안은채 붓을 꺾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은둔이나 하고있기에는 시인의 심장속에 끓어넘치는 피가 너무도 뜨거웠다.

그는 농업학교시절의 독서회원들이며 문학청년들과 만나 망국의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조선말을 지키는것은 우리의 얼을 지키는것이다, 우리는 조선말을 지키기 위해서도 굴함없이 조선말로 시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후배들의 작품에 항거의 넋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당시 고향에는 《등불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이 무어져있었다. 어느날 리용악을 찾아온 조직책임자가 함께 손잡고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나설것을 권고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봄우뢰마냥 시인의 온넋을 뒤흔들었다.

일본에서 고학을 하던 그 시절 이역만리에까지 비쳐온 보천보의 홰불에서 민족재생의 서광을 보았던 시인이였다. 얼음덮인 두만강가를 오르내리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존함을 그리움에 넘쳐 외워보던 시인이였다.

피멍든 가슴에 광명을 안겨주며 백두산에서 메아리쳐 온 전민항쟁의 뢰성, 정녕 그것은 암흑속에 비쳐온 구원의 등불이였다. 설음과 울분의 엇갈림속에 방황하던 식민지 시인에게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밝혀준 애국의 등불이였다.

그때부터 리용악은 등불동지회의 영향밑에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전민항쟁의 용용한 대하속에 뛰여들었으며 백두산을 신념의 등대로 삼고 머지 않아 도래할 민족의 창창한 새날을 바라보며 억세게 걸어나가게 되였다.

1942년 11월 일제는 등불동지회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많은 조직성원들이 체포되였고 청진일보사 기자로 금방 취직했던 리용악도 이듬해 5월초 배후성원으로 지목되여 함경북도경찰부에 끌려갔다.

첫 시집을 출판한 때로부터 그때까지 시인은 일제경찰의 류치장신세를 한두번만 져오지 않았다. 조선말신문페간에 항거

했다고, 《창씨개명》을 반대했다고, 문학애호가들에게 불온 사상을 불어넣었다고 한달이 멀다하게 불리워간 곳이 경찰서였고 들어간 곳이 류치장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번도 지조를 굽힌적이 없었다. 반년동안이나 리용악을 가두고 악형을 들이대던 일제경찰은 끌끌내 한마디의 자백도 얻어내지 못하게 되자 하는수없이 시인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할수밖에 없었다.

지조의 시인

일제식민지통치의 숨막히는 세월속에 몸부림치던 리용악에게 마침내 환희의 날이 찾아들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땅에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오셨던것이다.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입성하실거라는 소문이 들려오자 리용악은 한시바삐 그이를 뵙고싶어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갔다.

허나 미군이 틀고앉은 남녘땅의 현실앞에 그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또다시 식민지노예살이의 운명을 강요하는 미제와 매국노들의 책동에 참을수 없어 시인은 애국자들

과 함께 어깨겯고 투쟁의 노래를 부르며 항쟁의 거리로 뛰쳐 나갔다.

폭풍이여 일어나라 폭풍이여 폭풍이여
  불길처럼 일어나라
…
우리는 이제 저무는 거리에 나서련다
  갈 곳없이 나서련다
내사 아마 퍽도 약한 시인이길래 그저
  울음이 북받치는것일가
불빛노을 함뿍 가라앉은 눈이라 노한
  노한 눈들이라

(시 《노한 눈들》 1946년)

그 나날 리용악은 시 《하늘만 곱구나》(1946년), 《노한 눈들》(1946년), 《빛발속에서》(1947년), 《짓밟히는 거리에서》(1948년)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투쟁의 시들을 얼마나 의분에 넘쳐 웨치고 또 웨쳤던가.

그는 지조의 시인이였다. 악과 불의와 압제앞에서 어느 한번도 머리를 수그린적이 없었다.

미제가 강점한 서울에서 문인들은 진보와 반동, 좌익과 우익의 두 진영으로 갈라섰다. 해방전에 예술지상주의를 하던 시인들은 대개가 우익진영으로 가붙었다. 그 주창자가 시인 서정주였다.

서정주는 잡지 《문장》이 배출시킨 시인이였는데 리용악이 우리 시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30년대 후반기에 그도 두각을 보였다. 8.15후 남조선에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떠올라 해방과 함께 다시 나타난 리용악과 서정주를 남조선시단의 쌍벽이라고 하였다.

진보적시인들의 시단에서 선배로 존경받은 리용악은 예술지상주의자 서정주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민족적량심은 가지고있으려니 생각하면서 한번은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러나 리용악의 기대는 허물어지고말았다. 서정주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탐미주의자였던것이다. 리용악은 대판 싸움을 벌리며 무섭게 그를 타매하고 서정주와 사상적으로 결별하였다.

그렇듯 의로움에 불탔기에 그는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5.10단선반대투쟁과 공화국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투쟁을 비롯한 애국투쟁의 앞장에서 시인의 열정을 화약처럼 폭발시켰다. 1946년 9월총파업때

룡산기관구 로동자들앞에서 읊은 즉흥시 《기관구에서》를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수많은 시들은 반미애국투쟁의 격전장에 휘날린 투쟁의 기발이였고 원쑤들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다.

남녘땅에서 리용악과 함께 싸운 작가들은 누구나 리용악을 《범》이라고들 했다.

범? … 과연 체소하고 흙냄새풍기는 텁텁한 그의 모습 어디에서 범같은 기질을 엿볼수 있단 말인가. 《오랑캐꽃》과 같이 놀랄만큼 섬세한 시적감정을 지닌 그에게 정말 범같은 호방담대함이 있었단 말인가.

아마도 그것은 시인의 가슴속에 타번지고있던 정의의 불길이 불의앞에서 용암처럼 분출하군 하였기때문일것이다. 그의 범같은 성격을 말해주는 몇가지 일화를 펼쳐본다.

언젠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의 정치고문이였던 버취가 연회를 차리고 좌익계와 우익계를 초청한적이 있었다. 리용악은 조직의 지시를 받고 연회장으로 갔었다. 그런데 연회중에 좌익계인물들이 앉은 자리에 찾아온 버취가 자기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귀중히 여긴다고 수선을 부리다가 느닷없이 팔씨름을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고 말을 걸어왔다는것이다. 그럴 때 리용악이 주저없이 나서서 할테면 하자, 그런데 당신이 지면 미국으로 돌아가겠는가고 야유했다고 한다.

1948년 공화국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때 있은 일이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으로 공개적인 투표를 할수 없었기때문에 종이장우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어느날 저녁 리용악은 서울 종로거리를 가다가 함께 가던 동지들에게 파출소 경찰놈들에게서도 서명을 받아내자고 하였다. 동지들은 처음에 만류하였으나 리용악의 성격을 잘 아는터여서 그가 가자는대로 따라갔다. 리용악은 파출소 문을 벌컥 열고 앞장에서 들어갔다. 영문을 몰라 쳐다보는 경찰들에게 시인은 호령하였다.

《이놈들, 나를 몰라봐! 기합을 좀 넣어야 알겠는가! …》

리용악의 추상같은 꾸짖음에 어리둥절해진 경찰들은 시인을 자기네 상급인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경례를 붙이였다. 그때 리용악은 품에서 선거련판장을 꺼내여 책상우에 펼쳤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다. 여기에 지장을 찍겠느냐 안 찍겠느냐!》

시인의 불같은 호령에 경찰들은 잠시 멍청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네… 찍어야지요. **김일성**장군님이시야 우리도 받들어야지요.》

경찰들이 련판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자 리용악은

한마디 하였다.

《됐다.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돼!》

그리고는 련판장을 품에 넣더니 유유히 파출소문을 나섰다는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그날 저녁 리용악과 함께 동행했던 한 시인이 들려준 과장없는 실담이였다. 리용악은 이렇게 겁이 없고 호방한 사람이였다.

경찰은 리용악을 지명수배대상에 넣고 그를 붙잡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리하여 그는 집에 거의 나타날수가 없었고 혹 나타나도 야밤삼경에 불쑥 들어서군 하였다. 그렇게 들리는 경우라도 가만히 들어선것이 아니라 오는 도중에 있는 경찰파출소문짝에다 하다못해 흙탕물이라도 쥐여뿌리고서야 들어섰다는것이다. 이튿날 아침 더럽혀진 파출소문짝을 보고 경찰들이 리용악이 왔다간것을 알고 집에 들이닥칠 때에는 이미 시인이 사라지고난 뒤였다.

집도 수시로 옮겨야 했다. 당시 소학생이였던 시인의 아들 리창은 학교를 너무 자주 옮겨다니는 바람에 그 시절 자기한테는 동무가 없었다고 추억하고있다.

1949년 8월 리용악은 변절자때문에 끝내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를 밀고한 변절자는 상급으로 있던자였는데 철면피하게도 그자가 감옥에 찾아와 전향을 권유할 때 제일

참기 힘들었다고 후날 시인은 괴롭게 회상하였다.

경찰은 악착한 고문과 회유로 시인을 굴복시켜보려 하였으나 헛물만 켰을뿐이였다. 그의 체포로 피해를 입은 조직선이나 조직성원은 하나도 없었다. 흔히 재판을 할 때에는 피고가 진술한데 따라 증인이며 련루자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는것이 상례인데 리용악이 재판받을 때에는 단 한명도 불려나오는 사람이 없이 시종일관 시인 혼자만 재판관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를 재판하는 날에 교형리들은 서대문형무소에 미결수로 투옥되여있던 진보적문인 20여명을 다 끌어내여 재판을 보게 하였다. 굴복하지 않으면 리용악이처럼 너희들도 중형을 받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피고》에게 10년징역을 구형하고난 검사는 이제라도 자기네 《정부》를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무죄석방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리용악의 서슬푸른 대답이 재판정에 벽력같이 울렸다.

《그런게 무슨 <정부>라고 지지한단 말인가. 죽어도 나는 인정할수 없소! …》

재판정에 참석했던 20여명의 수감자들은 그러한 시인에게 마음속으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그의 도고하고 정의로운 기상은 미결수감방에 수감된 동지들을 투쟁에로 고무하

였다.

남녘에서 들어온 한 시인은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리용악에 대하여 단마디로 《리용악… 그는 정말로 지조있는 깨끗한 사람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시인 리용악에 대한 총체적인 인물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대땅크가 서대문 형무소의 옥문을 까부시자 리용악은 용약 군복을 입고 종군하여 락동강 불바다를 헤쳐갔다. 그는 질풍같이 달려가는 땅크우에서 시를 읊었다.

…
찢고 물어뜯고
갈갈이 찢고 물어뜯어도
풀리지 않을 원쑤
원쑤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
…

미제를 무찔러 살인귀를 무찔러
남으로 남으로 번개같이 내닫는
형제여, 강철의 대오여
최후의 한놈까지 원쑤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

(시 《원쑤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 1950년)

부대와 함께 남진하던 도중 해방된 어느 마을에서 주민대장 같은 서류뭉치를 발견한 그는 그뒤에다 사단전투속보 《번개같이》를 등사하여 인민군용사들을 승리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때 발간한 속보들중 몇장은 오늘도 그의 서가에 그대로 보관되여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리용악은 주저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북으로 향하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급히 나를 찾더니 쪽지 하나를 써주면서 빨리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르시더군요. 그 당시 어머니는 서울 연초공장에서 녀맹사업을 맡아보고계셨습니다. 쪽지에는 속히 식구들을 데리고 련천쪽으로 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후퇴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다급한 정황인데다 인츰 후퇴가 끝나 남진하는 대오와 함께 다시 돌아올텐데 본인만 가도 되지 않겠는가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갈잖은 소리라고, 설사 후퇴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같이 고생하던 가족들을 순간이나마 원쑤들의 손에 남겨두고 갈수 있는가고 하면서 우리에게 련락을 띄우셨던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머니와

우리는 지체없이 후퇴길에 올랐고 련천부근에서 아버지가 속한 후퇴대렬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

리창의 추억담이다.

그때 리용악의 가족은 처와 오누이자식이였는데 딸(리창의 누이동생)은 후날 미국놈들의 폭탄구뎅이에 고인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폭격때문에 도로로는 갈수 없어 산릉선을 타고 적들의 포위에 들기도 하면서 만포까지 간 40여일간의 후퇴길은 실로 간고한 로정이였다.

…
아이야 너희들 꿈속은
정든 서울장안 서대문 네거리며
날마다 저녁마다 엄마를 기다리던
담배공장 옆골목이 스쳐흐르는가

부르튼 발꿈치를 모두어
무거운 자국자국 절름거리며
이따금씩 너희들이 소리맞춰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꿈결에도 그 노래 귀에 쟁쟁 들리는가

굽이굽이 험한 벼랑 안고도는

대동강 푸른 물줄기를 좇아
넘고넘어도 새로이 다가서는
여러 령을 기여오를 때
찾아가는 평양은 멀고도 아득했으나

바삐 가야 한다, 김장군 계신데로
거듭거듭 타이르며
맥풀린 작은 손을 탄탄히 잡아주면
별조차 눈감은 캄캄한 밤에도
울던 울음 그치고 타박타박 따라서던
어린것들 가슴속 별빛보다 그리웠을
김일성장군!
…

(시 《평양으로 평양으로》 1951년)

이 시는 시인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첩첩산발을 넘어오던 준엄한 가을의 그 심정을 토로한 시이다. 포성은 자꾸 가까와지고 안해도 아이도 기진하여 쓰러지던 그 밤, 시인은 평양으로 가는 길은 장군님품으로 가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것을 확신하며 걸음을 재촉하고있다. 시를 읊느라면 생사를 판가리하던 엄혹한 시기에 시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굽이치던 신조가 어떤것이였는가를 찌릿이 느끼게 된다.

이렇듯 투철한 신념과 지조를 지닌 시인이였기에 그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시 《피발선 새해》(1951년), 시초 《싸우는 농촌에서》(1951년)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수많은 전투적인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1951년 3월 북과 남의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조직되였을 때 리용악은 문학동맹 시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시대의 가수로

리용악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품에 안겨 체험한 현실은 모든것이 새라새로웠으며 시인으로 하여금 들먹이는 가슴속의 환희와 격정을 뜨거운 서정으로 터치게 하였다.

그는 전후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전변을 노래한 수많은 서정시를 창작하였다.

그중에서도 《봄》(1954년), 《어선 <민청호>》(1955년),

《어느 반도에서》(1955년), 《석탄》(1955년), 《좌상님은 공훈탄부》(1956년) 등의 서정시들이 이채를 띠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전후 대표작으로서는 역시 시초 《평남관개시초》(1956년)를 꼽아야 할것이다.

복구건설의 노래 우렁차던 1956년, 서해의 곡창 열두삼천리벌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평남관개의 새로운 전변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때 리용악은 치료중에 있는 불편한 몸이였지만 자리를 차고 공사장으로 달려나갔다.

수천리 물길을 어루밟는 그의 심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령감이 나래쳤다.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전변의 굽이굽이에 서면 《천추를 꿰뚫어 광명을 내다보는/지혜와 새로움의 상상봉/불패의 당이/다함없는 사랑으로 안아 너를 개조하고/보다 밝은 래일에로 기발을 앞세웠거니》라는 칭송의 노래가 가슴에 차넘치고 끝간데 없는 관개의 바다를 보면 《물이여 어디를 내가 딛고 서서 발을 돋우면/아득히 뻗어나간 너의 길을 다 볼수 있을가》 하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올랐다.

시인의 격정은 그대로 서정으로 흐르고 글줄이 되여 오늘도 후대들이 즐겨 읊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서정의 찬가 《평남관개시초》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10편의 주옥같은 서정시로 묶어진 이 시초는 그가 한생동안 쓴 서정시의 결정체라고 해도 좋을것이다.

떠가는 구름장을 애타게 쳐다보며
균렬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늘이 무심타고 통곡하는 소리가
허허벌판을 덮어도 눈물만으론
시드는 벼포기를 일으킬수 없었단다

…

콸콸 샘물이 솟아흐를 기적을 갈망했건만
풀지 못한 소원을 땅깊이 새겨
대를 이어 물려준 이 고장 조상들

물이여 어디를 내가 딛고 서서 발을 돋우면
아득히 뻗어나간 너의 길을 다 볼수 있을가

로쇠한 대지에 영원한 젊음을
지심깊이 닿도록 젊음을 부어주는
물줄기여

소를 몰고 고랑마다 타는 고랑을
숨차게 열두번씩 가고 또 와도
이삭이 패일 날은 하늘이 좌우하던
건갈이농사는 전설속의 이야기
전설속의 이야기로 이제 되였다

물이여 굳었던 땅을 푹푹 추기며
네가 흘러가는 벌판 한귀에
너무나 작은 나의 입술을 맞추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막으려도 하지 않음은
정녕코 정녕 내 나라가 좋고 고마워

(《평남관개시초》중 시 《전설속의 이야기》)

목마르게 기다려 애타던 물줄기를 누가 보내주었던가. 시인은 물이 없어 통곡하던 농민들에게 물을 보내준 내 나라가 고마와 벌판 한귀에 입술을 맞추면서 울고있다. 우리 조국, 우리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공감하지 않는 시인은 이렇게 쓸수 없다. 더우기 시적재능이 없이는 이런 경지에 도달할수 없다.

《어찌나 생광스런 물이과대
모르게 당도하면 어떻게 한담

물마중도 쓰게 못하면
조합체면은 무엇이 된담》

밤도 이슥해 마을은 곤히 자는데
칠보령감만 홀로 나와 둑에 앉았다
《물이 오면 종을 때리지》

별이 쨍쨍하면 오히려 마음흐리던
지난 세월 더듬으며 엽초를 빨며
석달 열흘 가물어도 근심걱정 없어질
오는 세월 그리며 엽초를 빨며

…

자정이 넘고 삼경도 지날무렵
그러나 수로에 물은 안 오고
가까운 서해에서 파도만 쏴 쏴

희슥희슥 동트는 새벽하늘을
이따금씩 바라보며 엽초를 또 빨며
몹시나 몹시나 초조한 마음
《어찌된셈일가 여태 안 오니》

수로가 2천리도 넘는다는 사실을
아마도 령감님은 모르시나봐
물살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하루에야 이 끌까지 어찌 다 올가

(《평남관개시초》중 시 《덕치마을에서》(2))

지면관계로 련을 더러 생략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수 없었다. 시가 너무도 째이고 흙냄새가 나는 농민의 감정이 너무도 진하게 풍겨오기때문에 어느 련도 뭉청 떼버릴수 없다.

생활그대로의 이야기가 이 시에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가. 2천리 수로를 가진 거창한 자연개조, 천년숙망이 풀린 농민의 행복과 격정, 우리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천지개벽 그리고 이것을 선명하게 부각한 시인의 열렬한 긍정… 수백매의 산문을 몇개의 련으로 대신한 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초는 리용악의 얼굴이며 사상이며 실력의 과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시초는 주체45(1956)년당시 조선인민군창건기념문학축전 시부문 1등상을 수여받았다.

몇해후 발표된 서정시 《우리 당의 행군로》(1961년)도 리용악의 한생의 대표작으로서 우리 문학사에서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있다.

리 용 악

베개봉은 어디바루 해는 또 어디
하늘조차 보이잖는 울울한 밀림
찌죽찌죽 우는 새도 둥지를 잃었는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모진 비방울

꼽아보자 그날은 스물 몇해전
우리 당 선두대렬 여기를 행군했네
억눌린 형제들께 골고루 안겨줄
빛을 지고
필승의 총탄을 띠고

넘고넘어도 가로막는 진대통
어깨에 허리에 발목에뿐이랴
나라의 운명에 뒤엉켰던 가시덤불
붉은 한뜻으로 헤쳐나간 길

저벅저벅 밟고 간 자국소리
아직도 가시잖는 그 소리에 맞추어
너무나 작은 발로 나도 딛는 땅
막다른듯 얽히다도
앞으로만 내내 트이는구나

진주를 다듬어 천리에 깐다 한들
이 길처럼이야 어찌 빛날가
조국의 광복을 만대에 이으신
김일성동지!
그이의 가슴에서 비롯한 이 길
…

이 시는 시인이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쓴 시이다. 그는 투사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행군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안아온 이 길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열어주신 길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인은 투사들이 선창한 혁명의 노래를 온몸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백두의 행군로를 따라 나아가리라는 신념의 맹세로 이 시를 높은 경지에 끌어올렸다.

리용악은 번영하는 조국을 노래한 시도 많이 썼으며 그 시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뜨겁게 담군 하였다.

이렇듯 한생토록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기 시대를 진실하게 노래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격조높이 례찬한 시대의 명작들을 남긴것으로 하여 리용악은 《진주보석》들을 남긴 우수한 시인의 한사람으로 오늘도 자랑스럽게 추억되고있다.

추억은 아름답다

먼 후날에도 후대들이 아름답게 추억하는 삶은 진정 고귀한 삶이다.

지성도가 높고 생활적인 서정시를 수많이 남긴 리용악은 그의 시와는 달리 너무도 소박하고 말이 없는 시인이였다.

검은 테의 도수높은 근시안경에 밤색 닫긴양복옷차림을 하고 수걱수걱 조용히 걸어가는 그의 눈빛에서 사람들은 어딘가 맏형과 같이 친근감을 주는 진정을 느끼군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인간적인 겸허성과 친화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었지만 언제나 무뚝뚝하고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였고 더우기 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터놓지 않는 형의 시인이였다.

말하지 않는 시인, 웃지 않는 시인, 이것이 리용악에 대한 피상적인 표상이였다.

그러나 웃을 때도 있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하나의 발견과도 같은것이였다.

시인의 아들 리창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웃으시는것을 나는 두번 보았습니다. 한번은

공화국창건 20돐 기념훈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1968년도였는데 아버지는 당의 배려로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러나 목소리는 젖어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1970년 봄에 입당했을 때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저녁상에 술을 들고 들어와 나에게 부어주며 한잔씩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제 나의 대를 이었구나 하면서 크게 웃으셨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버지의 눈굽은 젖어있었습니다. …》

인민예술가 리창은 조선화 《락동강할아버지》를 창작하여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은 유명한 화가이다.

미술공부를 시작하던 초기에 그가 조선화를 할것인가 유화를 할것인가 하고 망설일 때 아버지는 대번에 《너는 조선화를 해라, 무조건! 알겠느냐. 수령님께서 미술은 조선화를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무섭게 호령하였다고 한다.

리용악은 이렇듯 자기의 수령만을 따르고 시대의 요구앞에 다른 소리를 할줄 모르는 시인이였다.

그는 또한 자신과 모든 시인들에게 엄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시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요구성을 높일수 없고 요구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시의 형상수준을 높일수 없다. 이것은 리용악의 좌우명과 같은것이였다.

《평남관개시초》를 쓸 때도 그러하였다. 현지에 나가서 써온 초고를 다듬고 또 다듬으며 도무지 내놓지를 않았다. 원고지에 시를 정서해나가다가 단어 하나, 토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줄을 그어 지워버리고 그우에 다시 쓰는것이 아니라 새 원고지에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위해서 기울이는 그의 심혈을 당시의 시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원고지우에서 빠졌다 다시 들어갔다 하면서 최대한의 선택으로 탁마된 단어와 문장들은 그야말로 금싸래기나 보석과도 같은것이였고 그런것으로 하여 리용악이 완성되였다고 내놓는 작품들은 수정이라는게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는 시초를 완성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설익은 시는 시가 아닌데 어찌 보여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그것은 시에 대한 성실하고 경건한 태도였고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창작된 《평남관개시초》는 발표되자마자 시단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초는 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을 더 높은 곳으로 지향하는데 고무를 주었다.

어느해 봄날에 있은 일도 그러한 실례이다.

시인에게 청탁된 시를 전화로 독촉하다 못해 잡지 《조선문학》편집부에서 녀성편집원이 찾아와 《선생님, 이제는 주십시오. 시가 괜찮다는데요.》 하며 손을 내밀었다.

시인은 쏘파에 앉아 눈을 감고있었다. 한참만에야 시인은 서랍에서 시 한편을 꺼내더니 눈으로 읽기 시작하였다. 다 읽고난 시인은 《편집원동무, 미안하게 됐소. 노력은 했는데 이건 아직 시가 아니요. 인차 다시 써주겠소.》 하더니 원고지를 쭉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넣었다. 편집원은 울상이 되여 나가버렸다. 자기 작품에 대한 시인의 면도칼같은 성격이 엿보이는 일화이다.

시인 리용악은 이렇듯 자기 작품에 대한 요구성이 높았던것만큼 후배들에 대한 요구성도 높았다. 한때 서정시 《바다의 처녀》를 써서 이름을 날린바 있는 나이지숙한 시인이 리용악에게 자기의 시를 보아달라고 내밀었다. 리용악은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시를 가르쳐주었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도 그를 친동기처럼 대해주었다. 추워할 때는 외투도 벗어주고 나중에는 장가도 보내주고…

그런데 리용악은 원고를 두번이나 읽더니 그에게 돌려주며 《자네 손으로 찢어버리게. 아쉬운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다시는 시를 보이지 말게.》라고 랭혹하게 말했다는것이

아닌가. 시를 받아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용악의 앞에서 자기의 시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인 김철은 어느 회상글에서 리용악에 대해 이렇게 썼다.

《리용악… 무서웠다.》

젊은 후배들에게 그처럼 높은 요구성을 제기해준 선배시인에 대한 감사의 정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문학의 길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관대성을 베푸는것은 그를 이끄는것이 아니라 밀어팽개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리용악은 일상생활에서는 인간호상관계의 례의범절이 있어야 하지만 문학창작에서는 그 어떤 외교도, 《인정》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수범으로 보여준 엄격하고 요구성 높은 시인이였다.

시인 리용악은 일제와 미제의 폭압아래 거듭된 감옥살이에서 얻은 병으로 오래동안 신고하던 끝에 1971년 2월에 57살을 일기로 너무도 일찌기 생을 마쳤다. 아들의 추억에 의하면 그때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서사시를 계획하고있었다고 한다.

장례식에 찾아온 동지들과 문인들이 시인을 잃은 비감에 잠겨 침통해할 때 고인에게서 누구보다 사랑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은 《바다의 처녀》를 쓴 시인이 일어났다.

그는 리용악의 시 《우리 당의 행군로》를 조용히 읊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목이 꺽꺽 막히여 제대로 읊지 못했다. 좌중의 모든 시인들이 눈물을 흘리였다. 리용악의 시재가 아까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는 좋은 시절에 그토록 재능있고 그토록 열정적이고 그토록 조국과 인민앞에 한생 충실하였던 시단의 한 로장을 잃은것이 너무나 애석하고 분해서…

하지만 시인의 생은 결코 끝난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55돐이 되는 2003년 9월 통일애국위업에 바쳐진 리용악의 고결한 삶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신념의 붓대를 틀어쥐고 한생 애국애족의 길을 걸은 그의 생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오늘도 영생하는 삶으로 빛나고있다.

5. 한 화가의 생을 더듬어

배 운 성(미술가)

- 1900년 7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출생.
- 1925년 여름부터 도이칠란드 베를린미술종합대학에서 공부.
- 해방후 홍익대학 초대미술학부장, 경주미술학교 명예교장 겸임.
- 1951년 봄부터 평양미술대학 상급교원으로 사업.
- 1956년 여름부터 국립미술제작소 전속화가로,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사업.
- 1978년 9월 20일 사망.

1940년 6월 어느날.

히틀러군대가 빠리에 무혈입성하고 꽁삐앤뉴수림속에서 프랑스가 파쑈도이칠란드에 무릎을 꿇은지 얼마 안되는 그날, 일본으로 가는 마지막기선 한척이 침울한 안개드리운 리스봉항구를 떠나가고있었다.

승객들의 대부분은 온 유럽땅을 휩쓰는 나치즘의 무시무시한 광란을 피해 떠나는 피난민들이였다.

갑판우에 나와 란간을 부여잡은채 점점 멀어져가는 뭍이며 정든 사람들을 더듬어찾는 승객들의 얼굴마다에 리별의 아픔과 비감,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무겁게 떠돌고 있었다.

그러한 승객들속에는 40대의 한 동양인사나이의 모습도 보였다.

그가 바로 18년전 조국을 떠나 유럽땅에서 미술공부를 한 뒤 신비롭고 이색적인 동양의 색채로 유럽의 화단을 뒤흔들어놓은 조선인화가 배운성이였다.

부두가에서는 친지들이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며 배운성을 바래우고있었다. 조용하면서도 락천적이였던 동양인, 늘 쌍 친절한 인정미와 익살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럽인들에게 조선사람들의 신선한 풍류와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재능넘치는 화가와 헤여진다는 서운함이 친지들의 가슴을 허우룩하게 하고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비록 지금은 사세부득이 떠나가지만 전란이 가라앉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면 배운성이 다시금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리라는것을.

그에게 성공을 안겨준 유럽이 아닌가. 드높은 명성과 재부, 많은 벗들과 화가로서의 넓은 활무대가 다름아닌 이 유럽땅에 있지 않는가. 배운성이야말로 유럽과 떨어져 살수 없는 유럽화된 동양인이라고 친지들은 확신하고있었다.

허나 배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10년, 20년이 흘러갔건만 어인 일인지 빠리 몽빠르나스거리의 그의 집은 여전히 빈채로 있었다.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배운성이 삶의 닻을 내린 곳을 알게 된 유럽의 친지들은 어리둥절해하였다.

하다면 유럽인들은 무엇을 몰랐던가. 유럽의 거만과 편견에도 굽힘이 없이 끝끝내 성공을 이룬 식민지의 한 화가가 피와 땀, 눈물로 성취한 반생의 열매를 서슴없이 포기하고 인생의 항로를 돌린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20세기의 첫 기슭에서

화가 배운성은 1900년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령세한 가내수공업자의 넷째아들로 태여났다.

그가 5살 나던 해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다. 《시일야방성대곡》에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때 그는 나라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다.

온 가족이 어머니의 품팔이와 형의 로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런 형편에서도 어머니는 신동으로 불리우는 막내아들만은 어떻게든 공부시켜보려고 8살 난 배운성을 인현공립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지만 끝내 학비를 대지 못해 중도에서 학교를 중퇴할수밖에 없었다.

고된 삶의 무게가 식민지소년의 여린 어깨를 모질게 지지눌렀다. 배운성은 중학교 급사로 취직하여 허드레일을 하면서 틈틈이 형들이 일하는 리발관에 가 청소부노릇도 하군 하였다.

2013년 배운성의 둘째아들인 소설가 배경휘는 아버지의 일대기를 소재로 하여 장편소설 《넋의 토양》을 내놓았다.

소설에서는 당시의 운성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있다.

《보통학교때나 중학교 급사시절이나 점심을 싸갈수 없었던 그는 다른 애들이 점심밥을 먹을 때 외딴 곳을 찾아가 홀로 눈물을 삼키며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어떤 때는 집으로 오는 길에 주림을 견딜수 없어 다리밑의 쓰레기더미를 뒤지군 했는데 그러다가 부자집애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찌끼를 얻으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것은 상처입은 자존심이였고 배움에 대한 갈망이였다.

자기또래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애들이 보는 앞에서 잡심부름이나 하고 리발관에 가서 바닥에 널린 머리카락이나 쓸어모을 때 소년의 심정이 어떠했을가. 쓰디쓴 모멸감과 렬등감, 좌절감을 어린 가슴에 새기며 운성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웠고 너무도 때이르게 어른이 되여버렸다.

소년은 고달픈 하루일이 끝나면 로동야학으로 달려가 배움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군 하였다.

그러한 나날들이 흘러 어느덧 운성이 15살 되던 해에 그가 탄 운명의 쪽배는 돌연 뜻하지 않던 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길을 가던 배운성은 부랑배들이 소년 하나를 에워싸고 행패를 부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워낙 불의앞에서는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완력이 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로동야학을 다니면서 유술과 권투 같은 여러가지 호신술을 익힌 그는 대바람에 달려가 부랑배들을 제압하고 소년을 구해주었다. 그 소년이 바로 실업가 백인기의 외아들 백명곤이였다.

백인기는 당시 서울장안에서 사는 부호였는데 기업을 하였지만 어느 정도 민족적량심이 남아있어 자선삼아 고학생들에게 학비도 대주군 하던 인물이였다.

아들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백인기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던지 배운성을 집으로 불러 만나보았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다부진 체격, 듬직해보이는 태도… 마음에 들었다. 슬하에 똑똑한 아이를 하나 두고 부리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어 백인기는 운성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일하지 않겠는가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운성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중학교 급사노릇이 마음에 없는데다가 먹고 자는건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던것이다.

그렇게 되여 배운성은 백인기의 집에 상노로 들어가게 되였다. 아침저녁으로 방청소를 하고 주인의 타구며 재털이,

요강 등을 가시는외에도 갖가지 잔심부름으로 앉을새가 없었으나 하루 세끼 끼니걱정을 하지 않는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하였다.

백인기는 그러한 운성을 내심 탐탁스럽게 지켜보고있었다. 눈치있고 부지런하고 묵묵히 일을 찾아하는 모습도 눈에 들었지만 그보다 운성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응석밖에 모르던 아들 백명곤이 제법 헴이 들어가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는것이다.

사실 백명곤은 늘쌍 골골 앓는 약질인데다가 나서부터 부자집 외아들로 호강하면서 귀한 도자기처럼 애지중지 떠받들려 자라온탓에 만사를 오직 제 밸대로만 하려들었다. 온 집안이 그애앞에서는 설설 기였고 아버지도 별도리가 없어 번마다 쓴입만 다셨을뿐이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녀석이 운성이를 만난 후로는 저보다 5살우인 상노를 따르면서 그앞에서는 떼도 쓰지 않고 짐짓 의젓하게 굴려고 애쓰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한해가 지나 백인기는 배운성을 사립중동학교 고등과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운성은 주인집일을 계속 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였다.

그가 학교를 막 졸업하고났을 때 3.1인민봉기가 폭발했다.

《조선독립 만세!》의 우렁찬 합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화산처럼 터져올랐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늙은이들과 부녀자들 지어 아이들까지 떨쳐나와 목이 터지도록 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전라도 광주의 11살 난 소년은 만세를 부르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모진 매를 맞았다. 기진하여 쓰러진 소년에게 일본경관이 누가 만세를 부르라고 시켰느냐 따져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의연히 대답했다고 한다.

《병아리가 자라면 큰닭소리를 낸다. 큰닭들이 그렇게 울라고 시켜서 그러는게 아니다. 새벽이 오면 저절로 크게 우는것이다.》

3.1인민봉기가 낳은 수많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아이들이 그러하였으니 어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길가에 굴러다니던 이 땅의 조약돌들도 기미년의 그 봄날에는 독립만세를 불렀으리라.

온 강토에 사품쳐흐르던 전민족적항거의 격랑속에 배운성도 있었다.

그 나날 운성은 동료들과 함께 《자유신종보》, 《혁신공보》 등 반일투쟁을 선동하는 신문들을 비밀리에 등사하였고 그것을 서울과 지방들에 배포하면서 독립열망을 고조시켰다.

당황망조한 일제는 현장을 목격한 영국의 한 기자가 증언한바와 같이 《가장 거칠고도 가장 무자비한 모습》을 드러내놓았다.

적수공권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무참히 도륙하였고 그러고도 모자라 살아남은 봉기참가자들을 검거투옥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어느날 배운성도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별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를 인차 놓아주는것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학교시절 운성에게 많은 관심을 돌리던 한문교원이 제자의 체포소식을 듣자 자기가 알고지내던 경찰서 관리에게 부탁했던것이다. 다행히 화를 모면했지만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다. 배운성과 동료들의 활동이 드러나는 경우 일제경찰이 결코 곱게 놓아둘리 만무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럴즈음에 백인기가 운성을 조용히 부르더니 아들을 일본에 류학보내려는데 같이 따라가지 않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더우기나 놀라운것은 도꾜에 가면 명곤의 뒤바라지를 해주면서 그 기회에 운성이자신도 경제를 한번 배워보라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뜻밖의 권유에 배운성은 어리

둥절해지고말았다.

실은 백인기가 그런 말을 꺼낼만 한 사연이 있었다.

몇해동안 가까이에 두고 일을 시켜보니 확실히 배운성은 모든 면에서 제 아들에 비할수 없게 총명했다.

만사를 쉽게 깨닫고 습득하는 빠른 총기와 하자고 마음먹은것을 끝까지 해내는 완강한 실행력도 마음에 들었지만 보다 마음에 드는것은 도의에 충실한 운성의 그 고지식함이였다.

부모된 욕심 같아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싶었지만 그리 안될 경우 더 늦기 전에 대비책이라도 마련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모로 생각할 때 배운성이야말로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적임자였다. 그에게 아들이 외면하는 실업계의 사업을 배워주어 부족한 명곤을 뒤받쳐주게 한다면 뒤날 자식에게 모든것을 떠맡긴 후에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수 있을것 같았다.

오래동안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백인기는 마침내 배운성을 아들과 함께 도꾜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은 인간적인 호의이기 전에 앞날을 위해 예견성있게 투자하려는 실업가다운 타산이였다.

아무튼 배운성으로서는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가

난탓에 배움의 길을 잃고 남의 집 심부름군으로 들어온 자기가 주인의 돈으로 중동학교 고등과를 마친것만도 바라지 못했던 일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류학까지 보내주겠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행운이였다.

향학열에 불타던 운성은 그날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주인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가 백명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것은 1919년 10월이였다. 이듬해 배운성은 주인의 뜻대로 와세다대학 정경과 전문부에 입학하였다.

만리타향에서의 고학살이

하지만 배운성은 일본에서 학업을 마칠수가 없었다. 백명곤이 도중에 병을 만났던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쓰는 재미에 톡톡히 중독된 명곤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도꾜로 가자 음악공부보다는 주색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 그에게 운성이 빈번히 충고도 주었지만 마이동풍이였다.

게다가 두사람사이의 관계도 이전같지 않았다. 자기의 처지를 어쩔수 없었던 운성은 명곤이 나이가 들면서 틀을

차리려 하자 《도련님》이라고 그를 존대해주었고 명곤 역시 도꾜에 가서부터는 자기 아버지의 덕으로 류학공부까지 하는 운성에 대해 《임자》, 《자네》로 하대하며 주인행세를 하려 들었다. 그럴 때마다 운성은 자기와 그들사이에 가로놓인 넘을수 없는 심연을 깨닫고 자존심이 불끈거리군 하였으나 일본으로 떠나보내면서 아들을 부탁하던 백인기의 당부를 저버릴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진 애를 썼건만 향락의 유혹에 깊숙이 빠진 명곤을 끝내 건져내지 못하였다. 결과 원체가 약질인데다 무절제한 생활로 하여 명곤의 건강은 류학생활을 더이상 이어갈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말았다.

배운성은 학업을 중단한채 명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기는 일단 투자과녁이 정해지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끈덕진 실업가였다. 명곤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는 또다시 두사람을 도이췰란드로 보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는 하였어도 도이췰란드는 일본에 비할바없는 선진국이였고 당시의 세계에서 베를린은 빠리와 함께 문화의 중심지로 떠받들리고있었다. 식견이 있고 시세에 어둡지 않았던지 백인기는 이왕 아들에게 음악공부를 시킬바에는 일본보다 도이췰란드로 보내는게

낫겠다고 타산했던 모양이다.

이번에도 그는 운성에게 아들을 부탁하면서 도이췰란드에 가면 베를린종합대학에 들어가 경제학공부를 계속하라고 이르는것이였다. 그만큼 운성에 대한 백인기의 기대는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1922년 11월경 배운성은 백명곤을 따라 유럽을 향해 떠났다.

그들을 태운 기선이 오랜 항해끝에 남부프랑스의 항구도시 마르쎄이유에 도착한것은 이듬해초였다.

유럽대륙에 첫발을 디딘 그들은 낯선 세계의 환경과 문물을 익히기 위해 마르쎄이유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어느날 배운성은 시내의 한 미술관으로 들어섰다. 유럽의 현란한 미술작품들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그 그림들앞에서 그는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숨결이 느껴지는듯 한 부드러운 입술, 살아서 자기를 여겨보는것같은 눈의 미묘한 감정, 석양아래 길게 누운 전야의 아름다운 풍경, 정녕 이렇게 생동할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가싶었다. 현실속에선 무심히 스치는 광경이 그림속에선 가슴을 흔드는 정서속에 눈을 떼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보이는것이다. 이것이 그림의 힘인가? …》

장편소설 《넋의 토양》의 한 대목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는 예술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기안의 위대한 본성을 일깨워준다고 하였다. 배운성이 이전부터 그림에 취미를 가지고있었는지는 딱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허나 경제학을 공부하던 청년 배운성에게는 분명 아름다움앞에서 감동할줄 아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보고싶어하는 예술가의 천성이 있었다.

그는 북받치는 감흥과 희열에 잠겨 오래도록 그림들앞에 서있었다. 무엇인가 그리고싶은 격렬한 충동이 불시에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금껏 잠들어있던 그 어떤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에 받은 강렬한 인상은 배운성의 한생을 결정지은 계기로 되였다.

베를린으로 가는 도중 빠리에 들렸을 때에도 운성은 그림들을 감상하기 위해 여러 미술관들과 회화전시회들을 찾아다녔다. 마치 신접한 사람과도 같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의 눈앞엔 온통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이 얼른거렸고 자기도 한번 그려보고싶은 욕망에 심장이 달아올랐다.

하여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꽃과 나무도 그려

보고 그림엽서도 모사해보고 무엇이나 보이는대로 종이우에 옮겨보았다.

그런데다 의도해서였던지 아니면 운명의 조화였던지 베를린에서 그들이 든 하숙집의 주인도 다름아닌 도이췰란드의 화가였다.

동양의 한 청년이 그리는 그림들을 주의깊게 보고난 그 화가는 처음으로 배운성에게서 미술가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해주었다.

비로소 자기를 발견한 배운성은 본래의 전공이던 경제학을 포기하고 화가가 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도이췰란드어를 배우는것과 함께 하숙집 주인의 개인지도를 받으며 미술공부에 심혈을 쏟아부었다.

그러는 운성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면서 곁에서 백명곤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영달의 길이 차례질텐데 어째서 그 뜻을 어기고 화가가 되려 하는가고 놀라움과 의혹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지만 운성은 언제까지나 주인의 의사에 고분고분 순응해야만 하는 상노의 《도의》에 매여살고싶지 않았다. 그에게도 자기의 꿈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 이미 그의 온넋은 흥분과 희열, 아름다움으로 충만된 예술창작의 세계에로만 달리고있었다.

1923년 9월 배운성은 하숙집 주인의 권고로 레빈풍크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미술사가들은 그를 유럽에 건너가 미술을 공부한 최초의 조선사람으로 기록하고있다.

한편 배운성과 함께 베를린으로 간 백명곤도 음악학교에 들어갔건만 자유주의풍조가 만연하는 유럽생활속에서 그의 방종은 다시금 되살아났다. 운성의 거듭되는 만류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1년쯤 지나 명곤은 병이 도지게 되였고 그때문에 이번에도 류학을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였다.

운성은 명곤과 함께 돌아가기를 거절하였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술공부만은 그만두고싶지 않았다.

배운성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그것도 자기가 바라는 경제학이 아니라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인기로부터 편지가 들이닥쳤다.

자기의 뜻대로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는 경우에만 학비를 대주고 그러지 않겠거든 더이상 돈을 보낼수 없다는 최후통첩이였다.

배운성은 자기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갈림길에 나서게 되였다.

하나는 백인기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단념하고 제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자력의 길이였고 다른 하나는 백인

기에게 목이 매여 평생을 그가 끄는대로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길이였다.

눈앞에 닥쳐드는 주림과 궁핍이 아무리 두려운것일지라도 그림을 그리고싶어하는 배운성의 열망은 가로막을수 없었다. 운성에게는 과단성이 있었다. 자신의 꿈과 존엄을 위해 그는 맨주먹을 부르쥐고 벌떡 일어섰다.

백명곤이 떠나가자 배운성은 타향만리에 혈혈단신으로 남게 되였다.

힘겨운 고학생활이 시작되였다.

형편이 점점 곤궁해져 하숙비가 밀리고 배고픔이 텅 빈 창자를 허비기 시작했지만 배운성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스스로가 선택한 길이 아니였던가.

그는 이미 헐벗고 굶주리던 어릴적의 피눈물나는 체험을 가지고있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하숙집에서 나온 그는 어느 건물의 지붕밑에 있는 고미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방 한 구석에 무져놓은 마분지들을 펼쳐놓으니 사람 한명이 누워 잘만 한 깔개가 되였다. 다락이여서 겨울에는 몹시 추운 방이였다.

굶기를 밥먹듯 하였다. 허나 추위와 주림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학비난이였다. 학비를 내지 못하면 목숨처럼 소중한

희망을 버려야 했던것이다.

배운성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를 헤매다녔다.

역전에 나가 짐군노릇도 하였고 우유배달과 오물처리도 찾아하였다. 한푼의 돈이라도 손에 쥘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한번은 자기의 옷이 너무 낡았다고 생각한 그가 동료에게서 손재봉기를 빌려 낡은 옷을 뒤집어 손질하였다. 그런데 고쳐 지은 옷이 새옷처럼 보였던지 친구 하나가 어디서 옷을 해입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자체로 손질해 입었다는것을 알자 휘둥그래진 눈으로 바느질한 자리들을 뜯어보던 친구는 자기가 일감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나섰다. 덕분에 운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삯바느질을 하게 되였다.

그렇게 아글타글하면서도 돈이 부족하여 혈액은행에까지 드나드는 그에게 타향에서 고생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배운성은 도리머리를 흔들뿐이였다.

미술에 대한 애착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떼여낼수 없는 억척스러운 집념으로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1924년 여름 지도교원의 권고를 받은 배운성은 입학원서를 들고 베를린의 하르덴베르그거리에 있는 미술종합대학으로 찾아갔다.

집도 없는 동양인이 미술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온것을 보고 처음에 대학측에서는 의아해하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배운성이 물러설념을 안하고 그해 겨울에 다시 찾아가 미술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불같이 토로하자 그들은 신기해하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였다. 운성이 그림을 그리는것을 보고 소질이 있다고 판단했던지 며칠후에 다시 와보라는 대답이 나왔다.

약속한 날에 다시 찾아가니 대학측에서는 당신의 실력과 학비관계를 확신할수 없으나 하도 청원이 간절하여 정식 입학이 아닌 가입학을 허락하기로 하였다고 통고하는것이였다.

배운성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길이 없었다. 이듬해 여름 학기에 그는 자질을 인정받아 정식 학생으로 되였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빈궁은 검질기게 운성을 괴롭혔다. 그에게는 양복도 단벌옷이였고 내의도 새것이 없었다. 겨울에도 외투를 못 입은채 다녀야 했고 랭기 지독한 다락방에서 친구가 준 새털이불 하나를 가지고 추위와 싸워야

하였다.

그 정상을 보다못해 대학측에서는 베를린주재 일본대사관에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는 조선인학생에게 관심을 돌려줄것을 호소하였다.

당시는 일본이 조선의 《종주국》으로 행세하면서 외국에 나가있는 조선사람들도 일본사람들과 다름없이 저들이 《보호》해준다고 광고하고있던 때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대사관의 응답은 어떠했던가.

《일본은 반도청년을 공부시킬만큼 부유하지 못합니다.》

달리는 될수 없는 대답이였다.

민족말살정책과 우민화정책을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있던 일본이였을진대 그네들의 귀에 대학측의 인도주의적호소는 천진란만하고 가소로운 잠꼬대로밖에 들리지 않았을것이다.

일본대사관의 조롱에 찬 그 대답은 망국의 통한과 기미년의 절규가 쓰라린 피멍으로 새겨져있는 식민지청년의 가슴에 다시한번 대못이 되여 사정없이 들이박혔다.

(너희들이 무시해버린 조선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리라.)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해준다. 나라는 빼앗겼어도 조선사람이 다 죽은것은 아니라는 자존심과 반발심이 배운성

의 가슴속에서 거세게 용솟음쳐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대학공부도 할래 돈도 마련할래 숨가삐 뛰여다니는 속에서도 그는 틈만 생기면 열심히 운동을 하군 하였다. 운동은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추위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였다.

어릴 때부터 무술에 취미가 있던 그는 대학안에 꾸려져 있던 격검소조와 권투소조에 들어갔다. 권투소조의 지도원은 유럽선수권보유자였는데 이가 부러지면서도 권투에 열중하는 배운성의 투지가 마음에 들어 때때로 그를 으슥한 골목에 있는 단골카페에 데려가기도 하면서 은근히 윈심을 썼다.

언제 봐도 단벌옷차림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학생,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늘 쌍 웃고 지내는 락천적이며 열정적인 동양청년을 대학생들과 교원들은 차츰 호감어린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판화 《세계도》

베를린에서 공부하던 나날에 배운성은 피타는 노력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회화기법들을 습득해갔으며 그런 결과 점차로 대학생들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용솟는 정열로 해마다 대학에서 열리는 학생작품경연에 빠짐없이 출품하였으며 그때마다 입선하여 상장과 메달, 상금을 수여받군 하였다.

대학 2학년때인 1927년 가을에는 경연에서 받은 상금으로 빠리에 3개월간 수학려행을 갔었는데 려행도중 빠리의 권위있는 미술전람회장인 도톤느에서 열린 가을철전시회에 목판화 《자화상》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조선사람이 유럽땅에서 진행되는 미술전람회에 입선한것은 그때가 처음이였고 그해부터 배운성의 작품에 대하여 조선국내에도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해묵은 전통과 권위에 포로되여있던 유럽의 화가들은 난데없이 출현한 동양의 이름없는 청년화가에게 야릇한 예감과 긴장감을 느끼며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33년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는 제1차 만국목판화전람회가 개최되였다.

명칭자체가 말해주듯이 만국목판화전람회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는 판화미술의 치렬한 경연장이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제노라 하는 판화가들이 앞을 다투어 전람회참가를 신청해나섰다.

그 시기의 배운성으로 말하면 아직은 창작년한이 보잘것없는 한날 연구생에 불과했었다. 허나 혈기왕성한 패기와 창작의욕에 넘쳐있던 그는 세계판화계의 권위자들에게 도전해볼것을 결심하고 준비위원회앞으로 조선국적을 가지고 참가하겠다는 희망을 적어보냈다.

그런데 전람회준비위원회에서는 조선이라는 국적으로 출품하겠다는 그의 의향에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우선 작품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의 실력도 못미덥거니와 이미 세계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국명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는 태도였다.

쓰라린 망국의 설음이 배운성의 가슴속에서 열물마냥 치밀어올랐다.

유럽땅에 와서 빈번히 당해온 모멸이였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조선을 일본의 한 부분으로 리해하고있었고 조선사람이라면 일본인의 곁다리격으로 대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운성은 민족을 짐으로 여기며 숨어다니는 못난이

로는 살고싶지 않았다. 그는 한번도 자기를 일본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을뿐더러 늘 도이췰란드친구들에게 일본을 증오한다고 강조하군 했다고 한다.

정녕 조선이라는 국명은 세인들의 마음속에서 영영 빛을 잃었단 말인가. 아니, 결코 그리될수는 없다. 태를 묻은 고국산천과 대대손손 삶을 이어가는 내 겨레가 있는 한 조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해솟는 동방에는 맑은 아침의 나라가 있다는것을 알려주자! 세계지도우에는 변함없이 조선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일깨워주자!

끓어넘치는 민족적자존심과 의분을 걷잡을길 없어 배운성은 마침내 목탄을 들었다.

그는 흰종이우에 봉화가 타오르는 타원형의 올림픽경기장을 천천히 그려넣었다. 그러고나서 올림픽경기장을 향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평화와 친선의 사절들을 하나하나 그려가기 시작하였다.

구름을 헤가르며 비행기가 날아오고 도로를 누비며 자동차들이 달려온다. 굽이쳐흐르는 강물우로는 배들이 떠오는데 저 멀리 눈덮인 산야를 기세좋게 질주해오는 개썰매의 모습이며 한가로이 걸음을 옮기는 중국인들의 가마행렬도 눈에 띄운다. 피라미드와 에펠탑이 보이는가 하면 우중충한

도시며 야자수 우거진 열대의 모습도 보인다. 창공에서는 뭇새들이 줄지어 날아오고 동산에서는 뭇짐승들이 생기에 넘쳐 뛰여온다. 평화롭고 화목한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념원이 화폭의 곳곳에 비껴흐르고있었다. 하다면 조선은…

그는 화면의 아래중심에 조선기와를 얹은 커다란 대문을 그리고 갓을 쓴 두루마기차림의 사나이가 지팽이를 짚으며 대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형상했다. 해솟는 아침의 나라를 상징하듯 눈부신 빛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태양이 사나이의 앞길을 밝혀준다.

멀리 타향만리에 떨어져있었던탓에 백두밀림에서 밝아오는 민족재생의 서광을 보지 못했던 배운성이였다. 그런데로부터 조국에 대한 그의 표상은 저으기 고루하고 가냘픈것이였지만 민족의상을 입은 조선사람이 올림픽무대로 들어서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소리쳐 알리려고 한 화가의 애국적열망은 지금도 후대들의 마음속에 후더운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창작된 그림은 판목우에 새겨지고 다시 종이우에 찍혀져 《세계도》(일명 《올림픽》)라는 제명으로 전람회에 출품되였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판화 《세계도》가 만국목판화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

였다는것이 아닌가.

배운성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1등을 하다니? … 조선국적으로 출품한 자기의 작품이 정말 세계적인 전람회에서 1등을 하였단 말인가? …

배운성은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미술전람회에서 조선사람이 받은 첫 1등상이였다.

제1차 만국목판화전람회에서 조선화가의 작품이 1등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세계의 미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로 말하면 유럽인들이 판화미술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더우기 유럽인쇄술의 발명가 구텐베르그와 《판화미술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뒤레르를 낳은 도이췰란드 같은 경우에는 판화를 자기들의 민족미술형식으로 간주하고있는 정도였다.

그런 시절이였으니 조선화가가 세계판화계의 정상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실앞에 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겠는가 하는것을 가히 짐작할만 하다.

만국목판화전람회에서 1등을 한 그해에 배운성의 첫 개인전람회가 베를린의 이름있는 구를리트화랑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목판화 《세계도》를 비롯한 유화, 판화, 수채화 등

4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였는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즉시에 팔려나가고 베를린미술박물관에도 몇점 소장되였다.

1935년 2월 배운성은 구를리트화랑에서 두번째 개인전람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역시 성황을 이룬 전람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스럽고 이국적인 동양화가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 전람회장으로 찾아들었다.

유럽인들의 주목을 끈 그의 그림들은 대부분이 민족적색채가 짙은 우리 겨레의 전통풍속을 소재로 하고있는것들이였다.

유화들인 《나의 고향》(1931년), 《조선의 아기》(1934년), 《배운성의 가족》(1930년—1935년), 《해금강 총석정》(1930년대 중엽), 《조선옷을 입은 자화상》(1930년대 중엽), 수채화들인 《결혼행렬》(1931년), 《신부의 초상》(1931년), 《신방엿보기》(1931년), 《조선의 신부》(1930년대초), 《조선의 민속축제》(1931년—1932년), 《기발을 든 아이들》(1930년대 중엽), 《조선의 무희》(1930년대), 목판화 《술마시기》(1932년)…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배운성의 초기작품들에서는 시대적안목과 창작방법의 제한성으로 하여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들을 적지 않게 찾아보게 된다. 그렇지만 그의 그림들에 맥맥히 굽이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눈물겨운 애정과 그리움의 감정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축축히 젖어들군 한다.

식민지망국노의 설음을 안고있어서인지 그가 창작한 그림들에는 어딘가 쓸쓸해보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유럽인들은 배운성이 류다른 화법으로 묘사한 조선고유의 풍경이며 세태풍속, 민족의상을 입은 남녀로소들을 먼 별나라를 들여다보듯 흥미롭게 감상하군 하였다.

그 당시의 베를린은 빠리와 더불어 표현주의, 립체파, 미래주의, 신즉물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야수파 등등 각이한 미술류파들이 뒤엉켜 돌아치는 혼란스러운 네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성의 작품들에서는 서방의 화단에 만연하고있던 형식주의적이며 말세기적인 퇴페미술의 영향을 거의나 찾아볼수가 없었다.

무의미한 색채의 유희와 방자한 감각의 탕진에 지쳐있던 유럽인들은 민족적정취와 사실주의적진실성이 약동하는 배운성의 그림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유럽의 풍경들과 사람들을 주제로 삼은 경우라도 그의 그림들은 조선사람의 시각으로 묘사한것이기에 유럽인들에게 새롭고 이채로운 인상으로 다가왔다.

기이한 일이였다. 오랜 기간 유럽에서 살면서 유럽의 색채

와 화법들을 배우고 유럽의 문화와 풍토에 절어온 화가일진대 어떻게 되여 그의 그림들에서는 유럽의 진부한 냄새가 풍겨오지 않는것일가?

누군가는 《여러가지 회화기법과 판화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무정형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화법에 그 비결이 있다고 평하였고 또 누군가는 배운성의 작품들이 안고있는 동서양의 《중간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화풍은 결코 여러가지가 혼탕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범벅과 같은것이 아니였다.

민족혼이라 할지… 배운성의 그림들에서는 그런것이 맥박치고있었다. 그것은 이미 태여난 첫날부터 그의 피와 살속에 깊숙이 슴배여있는 조상의 얼이였다.

태를 묻은 고향산천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까지 스며있는 추억의 훈향이였고 머나먼 이역만리에 떨어져있어도 그를 어쩔수 없는 조선사람으로 만드는 잊지 못할 김치맛이였고 장맛이였다.

배운성은 자기의 넋속에 숨쉬고있는 민족적개성의 가치를 알고있던 화가였다. 하기에 비록 유럽의 화법을 배우고 유럽의 화구를 리용하여 작품을 창작할지라도 그는 화폭마다에 어릴적부터 심혼에 새겨진 겨레의 멋과 맛을 담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이군 하였다.

유럽인들이 《신비적이고 이색적》이라고 호평하며 그의 작품들에 유별난 관심을 쏟아부은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유럽인들의 환영은 대단하였다. 도이췰란드뿐만아니라 유럽의 곳곳에서 세계미술계에 싱싱한 파문을 일으킨 조선화가를 앞을 다투어 초청하였다. 구를리트화랑에서 두번째 개인전람회가 열린 해에 함부르그박물관에서도 배운성의 개인전람회가 열렸으며 이듬해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쁘라하에서 그리고 윈에서 련이어 개인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볼로냐만국목판화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들에 그의 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린 개인전람회들은 출판보도계의 취재열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박물관들이 주저없이 그의 작품들을 소장하였다. 어느새 배운성은 도이췰란드문화원 미술분과 회원으로 추천되였으며 그의 명성은 이미 국제적인것으로 되여버렸다.

남의 지붕밑의 고미다락방에서 단벌옷차림으로 대학을 다녀야 했던 식민지고학생이 인제는 온 유럽의 화단에 명성을 들날리는 세계적인 화가로 올라선것이다.

하지만 뭇사람들의 선망어린 눈길속에 성공의 령마루로 오르면 오를수록 배운성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명성과 재부로도 메꿀수 없는 휑뎅그렁한 공허가 점점 커져만

갔다.

그자신은 타향에서 행운을 누리고있었어도 조국은 여전히 피와 눈물속에 허덕이고있었던것이다.

슬펐다. 유럽이 다 아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였어도 그는 이전이나 다름없는 망국노였다. 불쌍하고 무력한 약소민족의 대명사였던 《조선》을 모국으로 가진 식민지망국노였다.

만리타향에 와있어도 배운성은 어머니를 잊을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혈육들, 피를 나눈 겨레들이 살고있는 조국의 비운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머나먼 해외에서도 그렇듯 조국을 그리며 산 그였기에 조선민족무용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순회공연을 돌던 최승희일행이 베를린에 왔을 때에는 그들이 일류급극장에서 공연할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였고 1936년 8월에 진행된 베를린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때에는 관리원완장을 빌려끼고 경비가 삼엄한 경기장안에 들어가 출발직전까지 조선선수들의 안마치료를 해주며 갖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그 경기에서 손기정이 맨 선참으로 결승선에 들어서는 광경을 보았을 때 배운성은 끓어오르는 환희로 하여 숨이 꺽 막히는것만 같았다.

우리 선수가 이겼다! 조선사람이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우는 마라손경기에서 온 세계를 떨구고 1등을 했다!

자기 민족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고 거기서 힘을 얻을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적에게 침탈당하고 모욕당해온 모든 조선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민족적감정이 배운성의 가슴속에서도 용암마냥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시상식이 시작되는 순간 한껏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은 졸지에 꺼멓게 질려버리고말았다.

기미가요가 울려퍼지면서 두개의 일장기와 한개의 영국 국기가 게양되고있었다. 2위를 한 영국선수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기네 국기를 쳐다보는데 1위를 한 손기정과 3위를 한 남승룡은 가슴에 일장기를 단채 죄인인양 고개를 짓숙이고 서있었다.

배운성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누를길이 없었다.

조선사람이 국제무대에 나서려면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만 하는 시대였다. 일본을 《우리 나라》라고 불러야만 하고 일장기를 《우리 나라 국기》라고, 기미가요를 《우리 나라 국가》라고 말해야만 했던 시대였다.

세계의 마라손왕이 되였건만 떳떳하게 바라볼 자기의 국기가 없어 고개를 떨구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선수의 슬픈 그 모습은 그대로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였기에 배운성은 그 시각 온 겨레와 함께 통한의

피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다. …

도이췰란드는 차츰 나치스의 천지로 되여가고있었다. 도이췰란드 각계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나치스의 광기와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떠나가고있었다. 배운성 역시 히틀러의 폭정과 민족배타주의에 혐오를 느끼고 1937년 9월 조용히 프랑스 빠리로 이주하였다.

세계의 소문난 화가들이 《회화의 전당이요, 메카》라고 부르며 찾아드는 빠리에서 그의 창작활동은 새로운 고조기를 맞았다.

그해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2차 만국목판화전람회에서 배운성은 목판화 《실업가의 초상화》를 출품하여 명예상을 수여받았다.

1938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빠리의 그랑팔레봄철전람회에서 《어머니》 등 그가 출품한 10점의 유화와 목판화 4점, 소묘 2점이 모두 입선되여 빠리미술계를 놀래웠고 같은해 6월에는 세계3대화랑중의 하나로서 대관료만도 7천프랑을 하는 빠리 샤르팡티에화랑에서 그가 창작한 6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개인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와르샤와국제미술전람회에서도 그의 작품이 입선되였는가 하면 1938년 가을에 진행된 프랑스미술가전람회에서는 그가 내놓은 5점의 작품중 한점을 빠리박물관에서

매입하여 특별진렬하기도 하였다.

배운성의 재능은 빠리를 흥분시켰다.

프랑스국립미술협회는 1938년 5월에 그를 장식분과 회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또다시 유화분과 회원으로 추천하였다. 보도계는 《섬세한 필치와 우수한 명암법 등 아시아적특질의 표현》, 《유럽의 문화와 미감에 흔들림없는 고전적조선의 중후한 예술》이라고 그의 작품들을 격찬하였고 화보들은 또 화보들대로 《배운성 웃는다》는 표제를 달고 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조선국내의 신문들도 유럽미술계에서의 그의 활약상을 소개하였다.

1940년 6월 프랑스 남서부의 항구도시 보르도에서 현지창작중이던 배운성은 파쑈도이췰란드군이 빠리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광포한 나치스의 마수가 어느덧 지척에까지 뻗쳐온것이였다.

빠리로 되돌아갈수 없게 된 그는 장차 어디로 갈지 번민을 거듭하였다.

많은 친지들이 그에게 전란을 피해 잠시 영국이나 미국에 건너가있으라고 권유하였다. 배운성은 무겁게 도리를 저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다. 언제든 귀

국하여 조국의 미술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미술후비들을 키우는데 있는 힘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꿈이였다.

그가 자기의 의향을 터놓자 친지들은 아연해하며 저마끔 만류해나섰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 했는데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조선이 과연 세계적인 화가에게 유럽과 같은 활무대를 펼쳐줄수 있겠는가. 대체 드넓은 이 세상에서 조국이란 뭐고 민족이란 또 뭐란 말인가. 괴테도 말하지 않았는가. 과학과 예술은 전세계에 속하며 이 두가지앞에서 민족성의 장벽은 사라져버린다고…

하지만 배운성은 공감할수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조국이나 민족은 결코 추상적인 부름이 아니였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운 어머니였고 혈육들이였다. 만리타향에서도 잊을수가 없어 화폭에 담아보군 하던 이웃들이였고 고향산천이였으며 그가 그리는 그림마다에 열과 정을 부어주고 색채와 명암을 안겨주는 창작적흥분의 샘터였다.

명성도, 재산도, 벗들의 강경한 만류도 그의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그는 유럽과 떨어져 살수 없는 유럽화된 동양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한시도 고향과 조국을 지워본적이 없는 철저한 조선사람이였던것이다.

하여 배운성은 자기의 작품들을 비롯한 재산전부를 빠리에 남겨둔채 홀몸으로 귀국의 길에 올랐다.

암흑의 세월에

배운성이 탄 기선은 1940년 9월 일본 요꼬하마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는 인차 귀국할수가 없었다. 일본인들이 《정양》이라는 미명으로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것이다.

유럽미술계에서 활약한 배운성의 명성을 잘 알고있던 일본인들은 그가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기회를 리용하여 일본에 눌러앉히고 저들의 민족동화정책의 리용물로 삼으려고 타산한것이였다.

배운성이 요꼬하마항에 내린 순간부터 국빈이라도 온것처럼 야단스럽게 맞이한 일본인들은 고급승용차와 고급호텔을 제공한다, 륭숭한 연회를 차린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관리들과 명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유럽대륙에서 이름을 날리던 당신 같은 재사에겐 락후한 《반도》보다 《본토》가 훨씬 어울린다느니, 일본에 남겠다면 훌륭한 화실과 저택은 물론이고 바라는 모든것을

다 보장해드리겠다느니 하며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조선의 미술발전에 주추돌이 되려는 배운성의 굳센 포부앞에서 일본인들의 달콤한 유혹은 바위에 부딪친 한갖 물거품일따름이였다. 그는 일제의 검질긴 회유와 위협을 끝끝내 물리치고 조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배운성은 자나깨나 잊지 못해하던 사랑하는 어머니며 혈육들 그리고 국내의 친지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였다.

허나 다시 찾아온 조국은 그에게 반가움만 안겨준것이 아니였다.

마음속에 그려보던 많은 얼굴들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맏형은 세상을 떠나고 셋째형은 징용에 끌려가고 백인기도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더우기 배운성을 구슬프게 한것은 일제의 총독정치아래 짓눌려있는 조국산천의 기막힌 정상이였다.

히틀러도 무색케 할 일본제국주의의 중세기적인 폭압이 온 삼천리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있었다.

그래도 제나름의 뜻을 품고 돌아왔건만 하도 비참한 조국의 현실앞에서 배운성의 가슴은 돌처럼 무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코 조선은 이대로 스러지고마는것인가.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도 모자라 인제

는 조상이 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긴채 속절없이 섬오랑캐족속들에게 동화되여버려야 한단 말인가.

아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유구한 세월의 온갖 풍운을 끗끗이 이겨온 우리 겨레가 아닌가. 《동조동근》설이나 《황국신민서사》따위로 거세하기에는 너무도 끈끈이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얼이 아닌가.

배운성은 모든것을 다 버릴지언정 조선사람의 넋만은 버리지 않을 결심을 거듭 가다듬었다.

그는 미술애호가들의 도움으로 황금정 3정목에 있던 어느 한 건물의 2층을 화실로 쓰게 되였다. 빠리의 집과는 대비할수 없어도 큰 마루방 한칸과 그보다 작은 방 두칸에 부엌과 위생실이 달려있어 침식도 겸할수 있는 창작실이였다.

배운성은 그곳에서 창작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신인들의 그림지도도 해주었다.

얼마 못 가서 각이한 간판을 단 친일미술단체들과 어용미술전람회들에서 그에게 벼슬감투를 권한다, 작품을 의뢰한다 하며 쉬파리처럼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화가를 일본에 붙들어두려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일제는 어떻게든 조선에서라도 그의 코를 꿰여 저들의 《황국신민화》정책에 써먹으려고 검질기게 책동하였던것이다.

일제의 그런 잔꾀를 모르지 않던 배운성은 자기는 워낙

자유주의자여서 어느 단체에도 들고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어중이떠중이들의 회유를 번마다 물리쳐버렸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구속당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면서 조선의 미술발전에 이바지할 길을 찾고싶었다.

간악무도한 일제통치하에서 실로 천진한 생각이 아닐수 없었다. 걸음마다 일제의 간섭이 뒤따랐고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 그의 작품들이 총독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전람회장들에서 내리워졌다.

날이 갈수록 배운성은 좌절과 절망감에 허덕이게 되였다. 모든것을 버리고 찾아온 조국땅이건만 일본제국주의라는 포악스러운 독사에 휘감겨있는 이곳에서 과연 자기의 꿈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압박해오고있었다.

어둡고 우울한 번뇌속에 어느덧 귀국한지 두해가 흘러갔을 때였다.

불현듯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배운성의 생활에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배금희라는 누이동생이 있었다. 《불온분자》로 지목되여 서대문형무소에 얼마동안 감금되여있던 누이동생은 그무렵 출옥하여 어머니의 구완을 받고있었다. 배운성은 누이동생이 걱정되여 이전보다도 더 자주 집에

들리군 하였는데 그 과정에 금희와 같은 날 출옥하였다는 한 처녀를 알게 되였다.

옥고를 겪느라 여위고 창백해진 얼굴이였지만 정기있는 큰 눈이 인상적인 처녀였다. 처녀의 이름은 리정수였다.

누이동생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조국땅 북변의 삼수땅에서 태여난 리정수는 리화녀전(리화녀자전문학교)을 다니다가 독서회사건으로 검거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이 넘도록 독감방생활을 했다는것이였다. 고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화녀고(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리화녀전에서도 특등생으로 전교의 이목을 모았다는 처녀… 남달리 뜨거운 인정미로 감옥의 잡범들까지 감화시키고 한해가 넘도록 모진 악형을 당하면서도 굴함없이 싸워 나중에는 일제경찰이 무죄석방할수밖에 없었다는 처녀… 후날 그 처녀가 배운성의 인생행로에 자못 큰 영향을 미치게 될줄을 그때에야 누군들 상상했으랴.

누가 말했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울수 있다고. 배운성은 출옥후에도 여전히 반일투쟁에 참가하고있는 처녀를 통하여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추켜드신 민족재생의 거세찬 봉화를 보았으며 조국과 겨레를 위한 참된 삶의 길을 찾게 되였다.

리정수 역시 오랜 해외생활속에서도 바래지 않은 배운성의

민족적감정을 존중했고 점잖으면서도 유명인물 같지 않게 소탈하고 익살기 넘치는 화가를 친오빠처럼 존경하며 무랍없이 따르게 되였다.

마침내 두사람은 한생을 같이하기로 약속하였다. 의로움에 공감하고 아름다움에 공감한 두 심장의 영원한 포옹이였다.

배운성이 리정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총독부는 조선신궁에서 그들의 결혼식을 치를것을 강요해왔다.

남산 중턱에 있는 조선신궁은 일본의 조상신과 명치왜왕을 섬긴다는 곳이였다.

배운성이 귀국한 뒤 그에게 친일귀족의 딸을 소개한다 어쩐다 하며 갖은 잔꾀를 부리던 일제는 닭 쫓던 개 울타리 넘겨다보는 격이 되자 이름있는 화가의 결혼식을 리용해서라도 저들의 식민지동화정책을 광고해보려고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던것이다.

총독부의 요구에 순응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번화한 결혼식을 치를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망국노라 해도 조선사람으로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조선신궁에서 결혼식을 한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치욕이였다.

치미는 울분을 금치 못하며 총독부의 마수를 피할 방도

를 모색하던 배운성이 리정수에게 뜻밖의 안을 내놓았다. 처가가 있는 간도에 가서 결혼식을 치르자는것이였다.

배우자의 부모들이 서울에 없기때문에 처가에 가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 총독부에 언질을 잡히지 않으면서도 일제가 파놓은 함정을 피할수 있다는 타산이였다. 그럴듯한 생각에 리정수도 쾌히 동의해나섰다.

그들은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와 북간도행 3등렬차에 올랐다.

가증스러운 왜적들때문에 결혼식도 제땅에서 당당히 치르지 못하고 멀리 남의 나라 땅으로 피해가야만 하는 배운성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가보고싶은 북간도였다. 단지 그곳에 처가가 있어서만이 아니였다. 리정수에게 민족의 장한 기개를 일깨워준 곳, 온 겨레가 우러르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이기때문이였다.

한때 리정수가 교편을 잡았었던 북간도의 화룡현 토산자의 두메마을에서 두사람은 조용히 성례를 올렸다. 1943년 11월의 어느날이였다.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이라야 신랑신부외에 장인장모와 토산자사립학교 교원 한명이 전부였고 상에 올린 음식이라야 조밥에 산나물김치, 닭알과 감자 그리고 배운성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조선소주

두병뿐이였다. 두말할것없이 구석진 산골인지라 사진사는 구경조차 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유의 기쁨이 있었다. 왜적들의 간섭없이 소박한 혈육들과 한데 어울린 마음편함이 있었고 구김살없이 펼쳐보는 래일에 대한 꿈이 있었다.

더우기 배운성에게 희열을 안겨준것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가슴벅찬 이야기들이였다. 그 이야기들은 암울하던 그의 앞길에 희망의 서광으로 비쳐들었다.

배운성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거멓게 스러져가던 생의 불씨가 빨갛게 되살아나기 시작하는것을 환희에 넘쳐 의식하였다.

(조선민족은 죽지 않았다! 머지않아 삼천리에 재생의 새아침이 밝아올것이다!)

진정 북간도의 자그마한 그 산간마을에서 화가는 새로이 청춘을 맞은 심정이였다.

겨레의 마음이 달리는 곳으로

토산자에서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황금정 화실에 신혼살림을 폈다.

며칠후 배운성은 그곳에 《배운성회화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술을 지망하는 로동청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귀국할 때 다진 결심대로 민족의 미술후비들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그의 창작도 계속되였다. 1944년에는 귀국후 창작한 30점의 작품들로 서울에서 개인전람회를 열었는데 대다수의 작품들이 곧바로 팔려나가고 시내의 기자들과 예술인들은 물론 적지 않은 외국인들의 관심까지 모아 화가가 지향하는 사실주의미술에 대한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허나 결혼뒤의 배운성은 오로지 그림에만 파묻혀있던 어제날의 단순한 화가가 아니였다.

늦게나마 시대의 부름을 깨달은 그는 백두에서 시작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굽이쳐흐르는 전민항쟁의 용용한 대하속에 뛰여들었다.

배운성은 자기의 회화연구소를 안해의 동지들의 비밀아지트로 리용하게 하고 아지트의 안전을 위해 여러모로 왼

심을 기울였다. 주인의 명망으로 하여 그곳은 일제경찰의 주목을 피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례사로이 드나들수 있는 편리한 장소였던것이다.

당시 서울사회계에 얼굴이 넓던 배운성은 리극로, 홍명희, 리병남, 박세영, 최승희 같은 각계의 인사들과 두루 교제가 깊었다.

배운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인사들과 마주앉아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민족정신을 고무격려하고 일제의 패망상과 관련한 격동적인 소식들을 주고받았으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안아올 조국해방의 새날을 흥분속에 함께 그려보군 하였다.

그는 안해를 도와 위험을 동반하는 투쟁에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안해가 긴급한 련락을 가지고 경주에 가야 할 일이 제기되였다. 일제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다. 그럴 때 배운성이 안해와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불국사에 습작하러 간다는 명목을 내걸고 안해와 동부인한다면 경찰의 의심을 피할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되여 안해는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수 있었다.

배운성은 종종 안해와 함께 조직에서 써주는 반일선동자료들을 가지고 삐라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판화로 원판을

만들고 둘이서 밤새워 찍어낸 삐라를 안해가 여러곳으로 날라가군 하였다고 한다.

멸망을 앞둔 일제의 단말마적광증이 극도에 달하였던 시기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것은 목숨까지도 내대야 함을 의미했다.

배운성은 아직 혁명가는 아니였다. 그렇지만 안해앞에서, 조국과 민족앞에서 욕되게 살기를 원치 않는 량심인이였기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의 길로 분연히 걸어갔을것이다.

드디여 해방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온 강토에 환호성이 터져오르던 감격의 그날 배운성도 조국의 이름을 목메여 부르며 격정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로 나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역에 나가 밤을 새우기도 하고 벗들과 모여앉아 새 조선의 미술이 나아갈 길을 열정에 넘쳐 의논하기도 하며 그는 흥분된 나날을 보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온통 해방의 기쁨에 부풀어 나래가 돋친듯 흥성거리던 시절이였다.

그러나 랑만에 들떠있던 그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민족의 원한의 표적인 총독부건물에 일장기대신 성조기가 거만스레 펄럭거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전투기들의 엄호하에 상륙작전이라도 하듯 어마어마한 태세로 인천에 기여오른 미점령군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조선인민의 자치기관들을 강제로 해산시켜버렸다. 미군을 하늘이 보낸 《해방군》으로 여기며 환영해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오죽기가 막혔으면 서울의 한 신문은 《차라리 브루네이추장의 통치를 받는것이 낫겠다. 미군주둔을 축하해야 할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비꼬았겠는가.

저들의 국익을 위해 이 땅의 허리를 랭정하게 동강낸 미국에 있어서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하는 조선사람들의 피타는 절규는 한날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된 이듬해에 서울의 문예인들은 민족문학예술의 장래를 위해 예술종합대학을 창립할것을 발기하고 배운성에게 총장 겸 대학창립기성회 회장으로 나서줄것을 요청해왔다. 워낙 벼슬에 흥미가 없은데다가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벌이 큰 일이여서 처음엔 저으기 주저했지만 주위사람들의 권고가 하도 강하고 조국의 미술발전에 디딤돌이 될 결심을 오래전부터 품어왔던지라 배운성은 종내 그 요구를 수락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기성회성원들과 함께 대학창립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관건적고리의 하나인 미군정청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아무튼 미국인들은 《해방자》의 명분으로 조선에 들어왔으니 일본인들 같지는 않을것이라는 한가닥 미련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청에서는 대학창립기성회의 명단을 요구하더니 중요성원들을 기성회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군정청에서 밑줄을 그은 성원들은 하나같이 민족예술계의 중진들이요, 기성회의 핵심들로서 장차 대학교육력량의 골간을 이룰 사람들이였다. 결국 조선민족의 문화발전이나 대학교육의 장래는 어찌되든 기성회에서 애국적인 민주세력을 제거하자는것이 미군정청의 로골적인 의도였다.

배운성과 그의 벗들이 안타까이 뛰여다니며 애를 썼지만 좌익청산에 피눈이 된 미군정의 차단봉은 요지부동이였다. 지어 미군정은 갖은 모략중상으로도 모자라 우익깡패들을 부추겨 대학교사로 쓰려던 건물을 빼앗기까지 하였으며 나중에는 좌익분자들의 집단이라는 구실로 기성회를 해산시켜버리고말았다.

일제의 발굽밑에 억눌렸던 청운의 뜻을 해방된 조국에서 한껏 이루어보려던 배운성으로서는 실로 억이 막히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진정 이것이 해방이란 말인가. 제 나라, 제땅에서 자기 민족에게 복무하려는 소박한 희망조차 외세에 의해 이다지

도 유린당해야 한다면 과연 왜정때와 다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이 바위에라도 짓눌리운듯 답답하기만 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민족의 예술을 꽃피울 씨앗이 되고싶었건만 그 씨앗을 품어줄 토양은 그곳에 없었다. 일본놈들이 쫓겨가고 망국노의 멍에에서 풀려났다지만 남녘땅은 예나 다름없이 꿈도 재능도 깃들일데 없는 인생의 황량한 불모지였다.

화가는 쓰디쓴 환멸과 번뇌속에서 괴롭게 모대겼다. 그럴 때 뜻밖에도 빠리에서 편지가 날아왔다고 한다. 몽빠르나스에 있는 배운성의 집은 예전 그대로이고 집열쇠며 미완성작품들도 그대로 보관되여있으니 평화가 깃든 빠리로 어서 돌아오라는 친지들의 충고였다.

만일 그때 마음만 돌려먹었다면 빠리시민권을 가지고있던 배운성이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유럽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때문이였던가? …

그무렵 그의 마음은 점점 북으로만 쏠리고있었다.

모두들 북으로 가고있었다. 허헌도 리극로도 박세영도 황철도… 가깝고 소중한 벗들이 잇달아 북으로 떠나갈수록 배

운성은 주위의 공기가 희박해져가는듯 한 가슴답답함에 시달렸고 그들이 찾아간 북으로 못견디게 온넋이 이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더우기 화가를 흥분시킨것은 북녘에서 들려오는 감격스러운 소식들이였다.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으로 간 시인 박세영을 친히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며 무용가 최승희를 위해 대동강반의 좋은 건물을 최승희무용연구소로 쓰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평양에 나라의 미술후비들을 키워내는 평양미술학교(평양미술대학의 전신)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온몸의 피를 끓게 하는 꿈같은 소식들이였다.

배운성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백만관동군을 혼비백산케 하시던 항일의 전설적령장께서 그토록 민족의 예술을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홍벽을 치는 세찬 충격을 느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장군, 인간의 꿈과 재능을 그리도 존중하시는 령도자… 비록 몸가까이 뵙지는 못했어도 그이이시야말로 뜨거운 심장을 지닌 희세의 장군이시고 령도자이심을 화가는 높뛰는 가슴으로 깨달았다.

그러고보면 온 민족이 머리숙여마지 않는 만고풍상의 항일무장투쟁도, 겨레의 세기적인 숙망이 현실로 꽃펴나는

북녘의 벅찬 오늘도 조국애와 민족애로 열렬히 고동치는 그이의 열화같은 심장을 떠나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기에 그이의 품속에 안겨살려는 남녘의 열망은 그렇듯 절절하고 그이의 성스러운 존함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의와 애국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라고 배운성은 생각하였다.

자기가 나서자라고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라 하여 조국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를수 있는것은 아니다. 참된 삶을 누릴수 있고 후손만대의 운명까지도 맡길수 있는 어버이품이여야 진정한 조국이라고, 내 나라라고 부를수 있지 않겠는가.

배운성은 온 겨레의 마음이 대하가 되여 달려가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그 품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부르고싶었다.

그렇다. 나라의 절반땅에 먹구름은 나날이 짙어갔어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절세의 위인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신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이께서 반드시 안아오실 통일조국의 앞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한 희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배운성은 남녘의 비참상에 환멸을 품고 다시금 조국땅을 하직하였을지도 모른다.

마음 같아서는 그도 한달음에 공화국북반부로 달려가고

싶었다. 허나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미전부터 안해는 조국통일을 위한 지하투쟁에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이번에도 배운성은 조국과 시대앞에 부끄러운 길을 택하지 않았거늘 그는 또다시 안해와 함께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을 이어갔다.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그의 회화연구소는 조직성원들의 비밀회합장소로 리용되였다. 조직에서는 화가의 합법적활동과 아지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게 좌익단체들과의 련계를 끊고 우익인물들과만 접촉하는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주었다.

그리하여 배운성은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과 경주미술학교 명예교장, 법정학관 도이췰란드어교수직을 겸임하고있는데다 유명한 화가라는 당당한 합법적지위를 리용하여 미점령군 사령관과 미군정청 서울시장, 관료들과 《유엔조선위원단》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대상하면서 아지트를 보호하는 한편 미제의 식민지정책과 북침흉계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으며 그 정보들은 안해를 통하여 조직에 보고되군 하였다.

해방후 몇해가 지나 그는 서울의 정자옥화랑에서 귀국하여 두번째로 되는 개인전람회를 열었다. 유화 《한강을 바라보며》(1946년), 《설경》(1947년), 《38선의 야경》(1947년),

《로인》(1948년) 등 36점의 작품들이 출품된 전람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화가는 전람회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혁명조직에 투쟁자금으로 바쳤다.

그후 감금된 통일애국투사들을 구출하는 사업이 벌어질 때에도 배운성은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당시 그의 가족은 황금정에서 후암동의 2층집으로 옮겨와 살고있었다. 적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프랑스려권을 신청한 그는 빠리로 갈 려비를 마련하는것처럼 소문을 돌리고 서슴없이 후암동의 새 집을 저당잡혔으며 그렇게 마련한 저당금 50만원을 구출활동에 쓸 자금으로 조직에 기부하였다.

1948년 9월초 배운성은 커다란 격동에 휩싸이게 되였다. 혁명조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의식을 비밀리에 가지기로 결정하고 행사장에 모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형상하는 일을 바로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던것이다.

화가는 감격하였다. 왜적의 노예로 신음하던 조선민족을 도탄에서 건져주신 해방의 은인! 이 땅우에 조선사람이 주인되고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내 조국을 일떠세우시는 절세의 애국자! 겨레가 하늘로 우러르며 따르는 위대한분의 숭고한 영상을 화폭에 모신다고 생각하니 여직껏 체험해보지 못한 거세찬 흥분으로 하여 온몸이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돌이켜보면 예수며 마돈나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인류사의 명인들을 초상화로 옮겨왔던가. 그러나 그들가운데 조선의 위인은 없었다. 한없는 긍지에 부풀어 심장으로 그리고싶은 자기 민족의 위인은 없었기에 배운성은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조수같이 밀려드는 서글픔과 허전함을 어쩔수 없었다.

과연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자기의 심혼을 송두리채 기울여 화폭에 담고싶은 우리 민족의 걸출한 위인은 언제나 나타나려는지. …

수십년세월 마음속에 그러한 갈망을 잉걸불처럼 간직하고 살아온 화가였다. 그러던 그가 한생의 절절한 꿈을 풀게 되였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하건만 배운성은 선뜻 붓을 잡을수가 없었다. 자기가 진정 그이의 비범한 풍모를 손색없이 형상해낼수 있을가싶은 위구심에서였다.

그는 혁명조직으로부터 받아안은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을 경건히 우러러보고 또 우러러보았다.

넘쳐흐르는 태양의 강렬한 빛발과도 같은 안광, 그 안광에서 뿜어나오는 담대한 기상, 준수하고 기백넘친 모습에 비껴흐르는 자애깊은 친화의 훈향…

정녕 그이는 태양이시였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광명을

안겨주시고 열을 부어주시는 희망과 진리의 태양, 사랑의 태양이시였다. 수천년세월 쌓이고쌓인 겨레의 피타는 숙원을 풀기 위해 반만년민족사가 높이 받들어올린 찬란한 태양이시였다.

북받쳐오르는 감동에 겨워, 희열에 겨워 드디여 화가는 붓을 들었다.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의 열정이 붓끝을 따라 뜨겁게 굽이쳐흘렀다.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한 환희의 격정이 화폭우에 용용히 끓어넘쳤다. 지나온 인생의 만단사연을 아뢰러 어버이께로 달려가듯, 우리 겨레의 마음과 마음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그이께로 달려가듯 그는 자기의 온넋을 기울여 심장으로 붓을 놀리였다.

며칠후 서울시내의 어느 한 건물 지하실에서는 배운성이 형상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신 가운데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비밀행사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국의 대지우에서

1950년 6월 28일, 마침내 서울이 해방되였다.

배운성은 그처럼 동경해오던 공화국의 품,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국립미술제작소 판화부를 책임지고 활동하게 되였다.

해방된 남녘의 곳곳에서 8.15해방 5돐을 성대히 기념하던 때 그는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형상하여 서울시 중구 립정동지구인민위원회의 기념행사장정면에 높이 모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목청껏 환호성을 터친 수많은 행사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용약 의용군으로 탄원해나갔다.

1950년 9월 배운성은 서울의 민주선전실화랑에서 석판화 《미제의 만행》 등 여러점의 작품들로 개인전람회를 열어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단죄하고 사람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격려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는 주저없이 가족을 데리고 북행길에 올랐다.

애국적인 화가들이 그와 더불어 후퇴대렬에 들어섰다. 리석호, 정종여, 김용준, 정현웅, 박문원, 정온녀… 비단

화가들뿐이 아니였다. 작가들과 음악가들, 연극인들을 비롯하여 정의에 살고 애국에 살려는 의로운 문예인들이 참다운 삶의 품을 찾아 북으로 떠났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작가, 예술인들이 북으로 갔던지 《유명한 문예인들은 전쟁때 다 월북하고 남은건 껍데기뿐》이라는 말까지 남녘에서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누군들 다를바 있었으랴만 배운성에게도 후퇴의 길은 간고한 로정이였다. 안해가 만삭인데다가 5살잡이 딸애와 2살잡이 아들애를 데리고 가자니 도저히 대렬을 따를수가 없었다. 별수없이 처자들은 달구지를 타고 천천히 뒤따라오기로 하고 강원도 이천의 산중초가에서 그들과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배운성은 동지들과 함께 험난한 행군길을 이어갔다. 후퇴대렬이 전천부근에 이르렀을 때에는 미제공중비적들의 맹폭격으로 흙속에 파묻혔다가 간신히 살아나오기도 하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족의 어버이를 따르는 그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 량심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있었기에 화가는 나서자란 고향도 집도 등뒤에 남긴채 자신이 선택한 신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었던것이다.

이듬해 봄 배운성은 평안북도에 소개되여있던 평양미술대학 출판화강좌 상급교원으로 임명되였으며 후퇴때 헤여졌

던 사랑하는 처자들과 기쁨속에 상봉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이였다.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도 나라의 미술인재양성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고 자기를 교단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배운성의 가슴속에 크나큰 믿음으로, 영광으로 아로새겨졌다.

오래전부터 조국의 미술후비육성에 의욕을 품어온 그는 자기의 뜻을 공화국의 품에 안겨 마음껏 펼쳐가게 되였다. 그는 판화실기교수체계를 세우고 강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정열을 쏟아부었으며 그의 실기지도는 학생들의 재능과 개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였다.

허나 학생들이 배운성에게서 무엇보다 인상깊게 받아안은 것은 조국과 시대에 대한 후더운 열정이였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가을날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으로 나갔다.

벌판을 둘러보던 그는 학생들에게 열띤 어조로 말하였다.

<보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황토색의 넓은 들, 그뒤의 야산, 풍작을 거둔 기쁨에 넘쳐있는 근경의 마을… 수확이 끝난 가을의 농촌정서가 느껴지지 않소?>

그때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었다. 텅 빈 들판에서 무슨 흥겨운 정서를 느낀단 말인가? 가을의 쓸쓸함밖에…

그러나 교원의 정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도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장편소설 《넋의 토양》의 마감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은 제자들의 체험담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다.

사랑할 때라야만 참답게 보이고 느껴지는 법이다. 텅 빈것으로만 여겼던 전야의 풍경에서 학생들은 해산을 마치고난 어머니인양 만시름을 놓고 숨을 돌리는 대지의 행복감에 젖은 모습을 보았으며 승리한 땅우에 땀과 리상을 심어 풍작을 안아온 농촌마을의 흐뭇한 숨결을 느끼게 되였다. 또한 현실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뛰여난 관찰력이나 예술적환상력에 앞서 열렬한 심장을 지닐 때 발견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배운성은 후날 우리 나라 출판미술분야의 거목으로 된 인재들을 적지 않게 키워냈다. 1950년대말에 진행된 라이프찌히세계미술경연에서 금메달을 받고 여러 국제전람회들에 입선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친 이름있는 판화가 함창연도 그런 제자들중 한사람이다.

한편 그 나날 배운성의 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그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처음으로 창작한 작품은 판화 《유격대원들》(1951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야말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하고있는 무비의 영웅주의의 근원이라는것을 보여준 이 작품에는 가렬한 전화속에서 새겨안은 화가의 절절한 체험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어느 글에서 그는 《항일빨찌산들의 영웅적투쟁을 담은 작품을 나의 새 출발의 첫걸음으로 내디딘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긴다.》고 자랑스럽게 토로한바 있다.

그후 배운성은 교수사업을 하는 속에서도 《원쑤를 반드시 갚으리라》(1953년), 《소겨리반》(1953년), 《후방의 어린이들》 등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는 기동성있는 판화들을 적극 창작하였으며 전후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려나갔다.

그무렵에 와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판화형식이였다. 한것은 그가 판화에 조예가 깊은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보다는 격동하는 당대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함에 있어서 선동성과 보급력이 강한 판화미술을 그중 적합한 형식이라고 보았기때문이였다.

1956년 여름 배운성은 국립미술제작소 전속화가로, 후에는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소환되여 전업적인 창작활

동의 길에 나섰다.

천리마대고조의 장엄한 시대가 화가앞에 펼쳐졌다.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현장들은 그에게 청춘의 기백을 되찾아주었다. 그 시절에 쓴 수기 《장자강발전소를 찾아서》에서 그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체험하는 자신의 격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고있다.

《조선사람의 힘이 이렇게 컸던가… 새삼스럽게 놀랐다. 내 눈앞에 펼쳐진것은 수십만립방의 콩크리트를 다져만든 웅장한 언제였다.

…

나는 붓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기쁨과 자랑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용감하고 위대한 힘의 표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그속에서 느끼도록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듯 뿌듯한 시대긍정의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화가는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조국의 대지우를 지칠줄 모르고 뛰여다녔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가 목격한 놀라운 현실들을 화폭으로 남겼다.

배운성이 남긴 화폭들을 보느라면 그가 그토록 격찬해마지 않은 천리마시대에 대하여, 긍지와 희열에 넘쳐 활보해간 화가의 발자취에 대하여 뜨거운 공감을 느끼게 된다.

판화들인 《위대한 힘》, 《청년발전소건설장》, 《쇠물이 흐른다》(1958년)와 같은 작품들을 볼 때면 거연히 솟구쳐오르는 발전소언제며 사품쳐 쏟아지는 쇠물앞에서 환성을 터뜨렸을 화가의 흥분어린 모습이 보이는듯 하고 《평양건설》(1959년)과 《옥류교건설》, 《대동강변》, 《대동문》 등의 판화작품들을 보느라면 나날이 웅자를 드러내는 평양의 모습에 환희를 금치 못했을 그의 벅찬 숨결이 와닿는것만 같다.

그밖에도 배운성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로동의 기쁨을 경쾌한 률동속에 그려낸 판화 《즐거운 로동》(1957년), 신포의 어로공들과 함께 날바다에 나가 풍어의 기쁨을 나누며 창작한 판화 《고기잡이》(1963년)를 비롯하여 천리마시대의 들끓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그 시기에 내놓은 화가의 발표작들가운데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은 판화 《우리의 자랑》(1958년)이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는 용해공들의 자랑찬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장면을 선과 담채를 배합하여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용암마냥 끓어넘치는 애국의 열

정인양 주홍빛쇠물이 용솟음쳐흐른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며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이를 우러러 만세를 터치는 용해공들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든다. 온 화폭에 굽이치는 쇠물보다 더 뜨거운 감격과 긍지, 넘쳐흐르는 힘과 희열…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국가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우리의 자랑》은 해방후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판화로 형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술사적의의를 가지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울인 화가의 심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반만년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영웅적인 시대였다. 강선에서는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로 12만t의 강재를 뽑아냈고 김철에서는 19만t능력설비에서 27만t의 선철을 뽑았다. 그런가 하면 황철의 로동계급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제힘과 기술로 대형용광로를 건설하여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일떠서지 못한다고 장담하던 미제의 뒤통수에 쇠물폭포를 들부었다.

하다면 세인들을 경탄시킨 그 놀라운 기적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사흘째 되던 날 몸소 황철에 찾아

오시여 파괴된 평로자리에는 더 큰 평로를 세우고 불탄 초가집자리에는 벽돌집을 지어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웅지,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령도야말로 이 땅에서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의 무궁한 원천이라는것을 배운성은 지칠줄 모르는 현실체험의 나날에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을 피눈물속에 씹으며 판목우에 《세계도》를 새기던 화가,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의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게 된것이다.

운명의 행로를 따라 세상천지를 떠돌아다니며 여러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한 화가였다.

위인의 손길아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세계의 상상봉에 존엄높이 올라선 천지개벽의 세월을 온몸으로 체험한 화가였다.

정녕 판화 《우리의 자랑》은 각이한 시대와 지경을 넘나든 배운성에게 있어서 한생의 로정이 비낀 인생총화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풍습을 반영한 민속주제의 작품들은 배운성의 창작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

었다.

판화들인 《나들이》(1955년), 《봄날》, 《장고춤》(1955년), 《우물가》, 《자매》, 《널뛰기》(1958년), 《제기차기》(1961년), 《유희》 등에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속에서 벌어지는 아름답고 다양한 민속생활들이 꾸밈없이 묘사되여있다.

그중에서도 《나들이》는 귀여운 옥동자를 업고 친정집에 나들이를 가는 젊은 녀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민족고유의 풍속생활을 조형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작품이다.

조선옷을 곱게 차려입은 녀인과 어린이의 사랑스러운 모습, 마중나와 반기는 누렁강아지, 실가지 드리운 버들 한그루며 봄빛 무르녹는 낯익은 동구길우로 날듯이 걸음을 옮기는 녀인의 코고무신,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에돌아 아련히 바라보이는 정든 고향집…

보면 볼수록 한편의 아담한 서정시와도 같은 화폭이다.

화가는 치마자락에 감겨도는 누렁강아지를 갸웃이 돌아보는 녀인과 아이의 정겨운 눈길에 초점을 박고 함축된 구도처리와 선명한 색대조수법을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운 친정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기쁨과 허둥지둥 뛰쳐나올 고향집부모들의 반가움을 애틋이 보여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몇포기의 풀과 물오른 버들가지들, 산뜻하니 트인 봄하늘

등의 간결한 묘사만으로 따스한 봄의 향기와 고향의 정서가 방불하게 느껴오게 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란 찾아볼수 없다.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중심이 뚜렷하며 하나의 선, 하나의 점, 대담하게 처리한 여백조차도 작품의 주제해명에 조화롭게 기여하면서 그윽한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민족적정서와 랑만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의 밝은 생활을 부드럽고 정가로운 형상에 담아 펼쳐보인 판화 《나들이》는 우리 민족의 오랜 목판화전통을 현시대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킨 대표작의 하나로서 오늘도 조선미술박물관에 국보작품으로 보존되여있다.

판화 《나들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운성은 선명하고 간결한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판화형상에 적극 구현한 화가였다.

그가 작품창작에서 적게 그리여 많은것을 느끼게 할수 있은것은 조선화화법의 기초를 이루는 함축과 집중의 원리를 원숙하게 구사한 결과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조선화의 선을 깊이 연구해온 그는 《선의 대가》로 불리울만큼 자기의 판화들에서 선을 기본묘사수단으로 능란하게 활용하였으며 하나의 선을 놓고도 심사숙고하면서 선을 가지고 멋을 부리는것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또한 조선화의 담채방법을 응용하여 력점을 찍어야 할 부분들에 선과 배합한 연하고 요약된 색채를 적절히 입히군 하였으며 여백처리에서도 조선화의 여백조성방법을 세련된 필치로 살려썼다.

때문에 그의 판화작품들은 대부분 간명하고 소담하고 통속적인것이 특징이며 짙은 민족적정취로 하여 사람들에게 친근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그 모든것은 자기 민족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떠나서, 진지한 창작적모색과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배운성은 뛰여난 판화가였을뿐아니라 다양한 미술형식의 작품창작에서도 재치를 가지고있는 화가였다. 이미 창작의 첫 시기에 적지 않은 유화들을 발표한 그는 그후 수채화, 조선화 등에도 관심을 돌려 수채화 《내가》(1956년)와 《허궁다리》(1961년), 조선화 《5호물동》(1962년) 같은 크지는 않으나 무시할수 없는 작품들을 내놓았다.

사회주의조국은 화가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국가수훈과 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전후복구건설이 끝나자마자 평양의 중심부에 마련된 새 살림집도 선참으로 배정해주었다. 뿐만아니라 1961년 7월에는 그의 생일60돐을 계기로 평양에서 《배운성판화창작발표전》을 가지도록 하

였다.

전람회에는 배운성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창작한 작품들중에서 46점의 판화와 28점의 수채화, 조선화를 포함하여 모두 74점의 성과작들이 전시되였다.

잡지 《조선미술》 1961년 8월호에 실린 관평 《배운성의 판화전을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고있다.

《우리 나라 현대판화예술에서 배운성의 창작활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우리 현대판화예술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일뿐만아니라 해방후 판화창작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공로가 자못 크다.

그의 작품 <우리의 자랑>과 <나들이>는 우리 판화에서 특히 주목할 작품들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깊은 사랑과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국외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있다. …》

많은 사람들이 전람회장을 찾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맥박치고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화가의 작품들을 깊은 관심속에 돌아보았으며 우리 나라 현대판화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로화가에게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보내였다.

그러나 배운성은 자기의 창작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창작발표전을 가지면서 토로하였듯이 그는 《나의 미술창작

의 최고조기도 응당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할것》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화가는 그러한 창작자세를 가지고 그후에도 화폭에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반영하고 민족의 감정을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배운성은 생활에서도 인간적인 면모와 인상깊은 개성들로 하여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긴 화가이다.

《우리보다 퍼그나 년장자인데다가 화단에서의 관록때문이여선지 배운성선생에게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을 볼 때마다 자못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렇게 감자바우처럼 투박하게 생긴분이 대체 어디서 그런 재간이 쏟아져나오는걸가 하고 말입니다. …》

젊은 시절부터 미술가동맹에서 사업하였고 배운성을 비롯한 오랜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해 많은 취재와 연구를 해온 미술평론가 리재현의 웃음어린 추억담이다.

하지만 실지 대상해보면 겉보기와는 판이하게 소탈하고 다감한 호인이 배운성이였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면 늘 자기가 먼저 중절모를 들어올리며 인사를 건네군 하였다는 이야기며 새해를 맞을때마다 제자들이 보내오는 년하장에 꼭꼭 회답을 보내군 하였다는 이야기들은 그가 지녔던 허심하고 격의없는 성품을 선히 그려볼수 있게 한다.

화가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언제 한번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회상하고있다. 여북했으면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한번 성내봐요 하고 아버지를 부추기기까지 하였겠는가. 그 정도로 가정을 무척 사랑한 화가였기에 혹 마음속에 그늘이 생겨도 내색함이 없이 항상 집안에 웃음과 화기만을 보태주었고 창작으로 바쁜 속에서도 자식들과 즐겨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면 동화도 들려주군 하였다는것이다.

배운성은 단지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타고난 락천성과 쾌활성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소문난 음치였던 그는 워낙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술을 한잔 마시고 기분이 뜨면 곧잘 나서서 노래를 부르군 하였다. 그가 바이올린이며 첼로, 가야금 등 동서양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면서 한바탕 《세계일주가》를 부를 때면 배를 그러쥐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였다. 하기에 점잖으면서도 유쾌하고 익살을 즐기는 그를 두고 화가가 아니라 희극배우가 되였으면 더 성공했을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배운성은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막히는것이 별로 없는 다재다능한 재인이기도 하였다. 김치도 잘 담그었고 료리도 잘했으며 바느질솜씨에 침뜸도 놓을줄 알았을뿐더러 지어

조산원노릇까지도 손색없이 해보았다는것이다. 그런 그가 유독 망치로 못을 박는 일만은 끝내 해내지 못하였다니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해보건대 손끝의 예민한 감각을 생명처럼 여기는 판화가로서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였던가싶다.

료리는 그가 류달리 애착을 가지고있던 분야였다.

류학시절부터 자취생활에 익숙해있던 화가는 즐겨 안해를 대신하여 부엌에 서군 하였고 여러가지 음식들을 솜씨있게 재빨리 만들어낼줄 알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음식상에서 이마살을 찌프리거나 맛있는것만 골라가며 먹는것은 교양과 례절이 없는 행동이다, 료리를 만드는 사람도 개성이 있고 먹는 사람도 개성이 있으니 어떻게 모든 료리가 한결같겠는가고 입버릇처럼 외웠다. 그래서 곁의 사람들은 화가를 가리켜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군 하였다는것이다.

만사에 그처럼 리해성이 깊어서였던지 배운성은 동물들도 잘 다루었다고 한다.

전쟁시기 그가 평안북도에 소개된 미술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때 있은 일이다.

전시의 어려운 환경에서 동물교재로 쓸 박제품이 부족하

여 개나 고양이, 닭 같은것을 그릴 때에는 산것을 놓고 그릴수밖에 없었다. 물론 살아있는 동물인지라 학생들이 마음놓고 그릴수 있게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였다. 그래서 산 동물교재를 그리는 수업은 동물을 잘 다루던 배운성이 도맡다싶이 하였다.

하루는 게사니를 그리게 되여 배운성이 산 게사니를 안고와서 학생들앞에 올려놓았다.

게사니가 달아나려고 발버둥질을 치자 그는 한손으로 게사니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쓸어주면서 《용타, 용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게사니는 최면술에라도 걸린것처럼 금시 얌전해지더니 조는듯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것이였다. 학생들은 바삐 게사니를 그려나갔다.

허나 얼마후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게사니가 움지럭거리더니 교원의 양복에 배설물을 뿌려놓았다는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민망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지만 배운성은 그러거나말거나 게사니를 어루만지면서 마지막까지 실기수업을 원만히 보장하였고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학생들속에서 《동물과 말을 하는 교원》으로 소문나게 되였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배운성은 말년에 난치의 병을 만나 오랜 기

간 침상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가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계속 벌려나갔더라면 그 이후에도 인민들의 찬사를 받는 우수한 작품들과 후더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으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나라 현대판화미술을 개척한 대표적인 화가로 값있게 살았다.

배운성은 50여년간의 화가생활기간 3 000여점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작품들이 조선미술박물관은 물론 유럽의 여러 박물관들에 소장되여 오늘도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긍지롭게 과시하고있다.

배운성의 안해 리정수도 공화국의 품에 안겨 소녀시절부터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어온 자기의 희망대로 조선작가동맹 정맹원으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 《녀교원》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소설들을 창작발표하였다.

남편이 지녔던 민족의 얼을 귀중히 여겨 일생 조선치마저고리만 입어온 그는 진실한 애정과 존경을 품고 화가를 마지막순간까지 뒤바라지하였으며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던 소중한 추억들을 후손들에게 거짓없이 들려주고 2008년에 작고하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부끄럼없이 살아온 부모들의 고결한 넋은

자식들 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배운성의 맏딸은 부모들이 념원하던대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갔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나라 판화미술계의 당당한 중진으로 자라났다. 그런가 하면 둘째아들은 소설가가 되여 어머니가 품었던 소설창작의 뜻을 미덥게 이어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배운성의 손자손녀들도 어엿한 화가로, 체육인으로, 성악가수로, 과학자로 끌끌하게 성장하였으니 실로 화가가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대견스러워했으랴.

배운성이 우리곁을 떠난지도 어느덧 40년이 가까워온다.

매 인간들이 살아간 인생의 무게는 후대들의 평가를 받기마련이거늘 화가가 남기고 간 삶의 자욱들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깊은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분명 세계적인 화가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는 평생토록 자기의 조국이, 민족이 자리잡고 있었다.

운명의 선택 4

필 자	장수봉, 류원규
편 집	성문호
장 정	박봉혁
교 정	안순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10월 1일
발 행	주체104(2015)년 10월 5일

ㄱ- 1233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012-1

ISBN 978-9946-31-012-1